
東草文化
1987/第三號
東草文化院
85

# 雪嶽山 케이블카



## 雪 嶽 文 化 財 團



理事長 會長 韓 丙 起

代表理事 社長 金 亨 東



**文化財團**

1971年 8月 31日 韓丙起氏 私財로 設立
1986年末 現在 연 1,110명의 中·高·專門大生에
총 64,940,000원의 장학금을 支給

商號 : 雪嶽觀光(株) 케이블카
本社 : 江原道 束草市 雪嶽洞 170番地
電話 : 7－7362, 7365
支社 : 서울시 江南區 瑞草洞 12－5 보성빌딩 203號
電話 : 554－1820



文化의식 높이는 7만 市民의 전당

# 현대식 市民文化会館 착공




속초시는 7만시민들의 문화교육과 정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현대식 시민회관을 착공해 88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 현재의 일복문화관을 헐어내고 신축되는 문화회관은 14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대식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장 회의장등의 문화전당으로 마련된다.

2천2백42평의 부지 위에 신축될 문화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8백97평으로 회관동은 7백5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며 지상 3층의 3백46평짜리 별관에는 2백석의 소회의실과 전시장, 식당및 다방, 사무실을 시설한다.

공연장은 각종연주 및 영화 음악 상연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신무대시설을 구비하며 구내방송및 무대특수조명 자동 화재 경보설비등도 모두 갖춘다.

또 문화회관을 7만시민의 문화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18평짜리 야외공연장도 마련해 다양한 조경사업으로 아늑하고 정감넘치는 야외공연도 꾀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회관의 상징성을 더욱 살리기위해 건물과 담장사이의 빈터에는 느티나무 편백눈향 개나리등 상록교목및 관목, 낙엽교목및 관목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 22종 1천3백75그루를 심어 외부공간을 꾸미는 한편, 조경지공터에도 나무의자 16개를 설치해 놓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高度文化
民族心氣

丙寅陽月 文峰



第三號 目 次

제 자 : 김 철 홍
표 지 화 : 김 광 수
속간휘호 : 한 상 우


□ 卷頭辭 / 鄕土文化, 그 所重한 의미 …… 金 容 龜 / 9
□ 祝刊辭 / 鄕土文化, 창달에의 의지 …… 宋 鎭 賢 / 10
鄕土文化의 根源地 …… 李 根 宇 / 11
□ 초대시 / 나의 집 …… 李 聖 善 / 12


## 論 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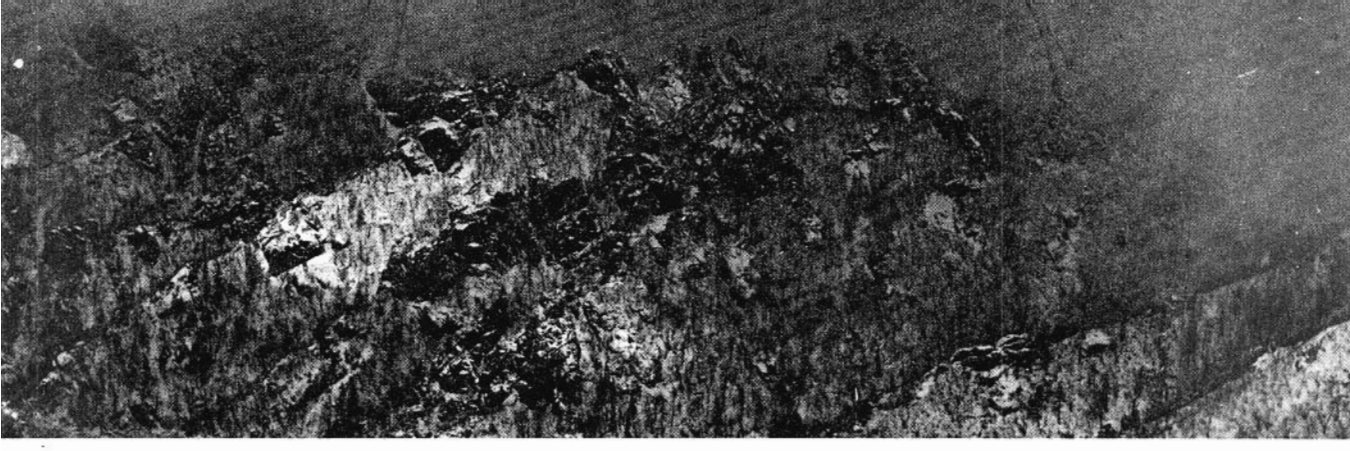

寒溪寺 3층쌍탑과 雲興寺3층탑 …… 金 鍾 權 / 14
지방문화와 지역민의 역할 …… 盧 在 春 / 18
港灣의 役割과 展望 …… 裵 孝 烈 / 20
雪嶽祭의 現況과 鄕土祝祭로서의 活性化 方案 …… 張 正 龍 · 김 종 달 / 24


## 특 집


대포동 오씨일가 …… 李 相 國 / 29
大浦港 …… 윤 홍 렬 / 30
대포성황제 …… 이 태 근 / 32
대포외옹치고풀이 …… 金 永 琪 / 34
대포의 어제와 오늘 …… / 36
수난의 70년 대포국민학교 …… 최 재 도 / 39
가난속의 幼年시절 …… 金 容 基 / 42
푸른가을하늘아래의 운동회 …… 李 建 錫 / 44
애국충절을 위한 산교육, 학예회 …… 金 正 祐 / 46

□ 내고장 사람들 □
독립만세를 선도한 애국자, 李錫範 …… / 50
收復地區 英才育成의 代父, 徐昌河 …… / 53
報恩의 장학재단 忠貞獎學會 理社長 金忠鎬 …… / 56
보리고개의 詩人, 黃錦燦 …… / 58

□ 現場을 찾아서 □
설악프라자페밀리타운 …… / 60
국립공원 설악산 …… 朴 益 勳 / 62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3) …… 金 慧 法 / 64




□ 그리운 내고향 ····· 건강한 삶에의 향수

건강한 삶에의 향수 ····· 李　盤 / 68
'86아시아경대기회 성화봉송행사를 치르고 ····· 朴 承 禹 / 70

□ 나의 제언 ····· 살기좋은 인정미 넘친 고장으로

교육의 책무와 향토발전 ····· 김 성 기 / 74
"孝"·"禮"·"義" ····· 박 용 권 / 75
살기좋고 인정미 넘친 고장으로 ····· 최 무 일 / 76
한국관광의 요람지 설악권 ····· 李 炳 連 / 77
主人精神에의 참여를 ····· 윤 종 구 / 78
法과 良心 ····· 金 普 漢 / 79


## 청소년 문화강좌


현대아동문학의 추구 ····· 이 희 갑 / 82
한국무용과 그 분류 ····· 양 숙 희 / 86
음악감상법 ····· 李 珍 雨 / 88
繪畵의 감상법 ····· 金 光 秀 / 90


## 東草文化界


문화계 소식 ····· / 94
東草文學의 현주소 ····· 이 상 국 / 98
東草 演劇史 ····· 張 奎 皓 / 100
속초미술의 어제와 오늘 ····· 金 榮 福 / 102

| 초대시 | | | | | |
|---|---|---|---|---|---|
| | 黎明 ····· 朴容說 / 104 | | 어머니의 꽃밭 ····· 장승자 / 106 | | |
| | 침묵으로 가는자의 노래 ····· 崔明吉 / 105 | | 길이 보존하리라 ····· 박명자 / 107 | | |

○ 바닷가 사람들(청봉사진 동우회) ····· / 108
강 덕 희 / 정 연 국 / 박 종 영 / 허 필 욱
○ 根, 그리고 마을(속초사진 동우회) ····· / 110
최 이 권 / 김 영 재 / 최 춘 영 / 권 영 진
○ 제 9 회 雪嶽書藝展 ····· / 112
황 동 준 / 조 진 옥 / 황 철 준 / 지 응 준
○ 제 2 회 한국서화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 / 116
이 원 식 / 이 창 섭 / 황 남 일 / 정 원 철

□ 東草文化院 임원명단 ····· / 121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 鄕土文化, 그 所重한 의미



金 容 龜/
東草文化院長

年年히 發刊되는 "東草文化"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면서 漸次 香氣를 풍기게 되는 것을 生覺할 때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文化의 꽃이 필 때에는 그 겨레가 薩盛하여지고 國力이 衰退할 때에는 文化 또한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모두는 잘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지난날의 우리固有의 傳統文化가 近來에 와서 外來文物의 分別없는 受容과 価値觀의 混頓으로 날이 갈수록 漸次 褪色하여 이제는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우리周邊에서 사라져 가거나 또는 그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참다운 人間性, 特色있는 固有民俗, 傳統的인 美風良俗들이 어디론가 밀려나고 禮儀와 廉恥마저 사라져가는 이 時點에서 淺薄하고 頹廢的인 風潮의 氣流만이 蔓延하는 乘離現象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混濁한 氣流를 慮過하여 淨化하지 않고서는 眞正한 市民社會를 具現할 수 없으므로 이 慮過와 淨化의 根源的인 課題가 바로 精神文化의 暢達이며 藝術의 振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祖上의 얼과 슬기, 그리고 숨결을 再照明하여 価値觀을 確立하고 史觀을 바로잡아 새 時代의 鄕土文化를 創造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우리 周邊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文化遺産을 發掘하고 保存擴散하며 獨特하고 特色있는 傳統美와 짙은 鄕土色이 풍기는 鄕土文化를 다듬고 가꾸어 나가는데 한層 더 힘써야 하겠읍니다.

이번에 東草文化院에서는 地方文化의 活性化를 爲하여

① 傳統文化遺産의 發掘과 傳承
② 鄕土史料의 蒐集保存
③ 愛鄕心鼓吹 및 人性培養
④ 青少年善導와 情緖涵養等에 主眼을 두고 이 冊에 담아 보았읍니다.

우리 모두의 鄕土誌인 "東草文化"가 여러분의 期待와 聲援속에 날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鄕土를 사랑하고 아끼는 內外鄕人들의 따뜻한 손길이 맺어있는 까닭으로 生覺하옵고 끝으로 本誌 發刊을 爲해 玉稿를 보내주신 분과 編輯에 이르기까지 物心兩面으로 協助하여주신 여러분에게 感謝드립니다.

# 鄕土文化창달에의 의지

## -사랑받는 鄕土誌가 되기를-



宋 鎭 賢 /
春川地方法院 束草支院長

처음 束草市로 발령을 받아 부임하였을 때에 제가 束草市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 나라 最北端의 市다" "오징어로 有名한 漁港이다" "隣近에 海水浴場이 많고 또 雪嶽山이 가깝게 있어 觀光客들이 많이 찾아 든다"는 程度에 不過하였읍니다.

그러다가 束草文化院에서 發行한 "束草文化" 誌 創刊號를 接하여 朴益勳 先生의 국립공원 설악산(外雪嶽編)이라는 글을 읽고 雪嶽山과 束草市의 여러地名에 대한 知識과 더불어 거기에 얽힌 아름답고 안타깝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퍽 多幸스럽게 생각하였고 그 책 끝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束草文化院 主管의 主要事業實績과 計劃을 보고 이 지역 주민의 鄕土文化 繼承 發展 및 創造 意志에 感銘 받은 바 컸읍니다.

冊 編輯後記에서는 앞으로 春秋로 나누어 한 해에 두차례 發刊하겠다는 다짐이 있어 期待를 가졌읍니다만 여러가지 事情이 뜻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昨年 年末에야 第2號가 發刊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 하기도 했읍니다.

第2號에서도 北淸獅子놀음에 대한 記事라든가 내 고장 민속, 내 고장 선각자, 내 고장 얼굴 등 意慾的인 기획에 의한 읽을 거리가 있어 반가왔읍니다.

文化는 教養과도 通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束草市民, 客地人을 막론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共感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하여 自己 向上의 契機로 삼을 수 있는 읽을 거리를 많이 실어 주기 바라며 "束草文化" 誌 第3號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아울러 萬難을 이겨 내고 이 課業을 成就시킨 束草文化院長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敬意를 表하며 無窮한 發展을 빕니다.

感謝합니다.

# 鄕土文化의 根源誌

## -獨特한 文化創出을 期待하며-



李 根 宇 /

前 春川地方檢察廳 東草支廳長

其間의 急激한 社會發展은 必然的으로 文化的인 慾求를 擴張시켜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成長과 함께 그를 收容할만한 文化的役量이 아직 成熟되지 못하고 있음도 또한 否認할 수 없읍니다.

無分別한 外來文化의 導入과 消費性向의 急進的 增加 価値觀의 混濁等은 바로 이 現象을 立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社會的 犯罪의 大部分이 이러한 文化的 成長의 未成熟에서부터 原因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最近 우리 社會의 文化的 成長에 對한 關心도 이러한 脈絡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社會的 成長에 副應한 文化的 成熟이 併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장마다 各己 獨特한 文化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接近하는 方法도 各各다를 것입니다. 우리도 鄕土의 文化的 傳統과 그 現實에 符合되는 文化現狀을 찾아내야 하겠읍니다.

東草文化院이 오래前부터 이러한 鄕土文化創出에 애쓰고 있음은 익히 周知하고 있는 일이며 이 자리를 빌어 새삼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社會正義를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信念과 바른 文化現象의 定着에 對한 우리의 期待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이기 때문입니다.

"東草文化"는 그러한 使命을 지닌 채 永續的으로 우리 고장을 지켜나가며 鄕土文化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 초대시

# 나의 집



李 聖 善

설악산은 나의 지붕이다.
지붕 끝으로 밤이면 별이 뜬다.
기왓골 깊이깊이 물소리가 잠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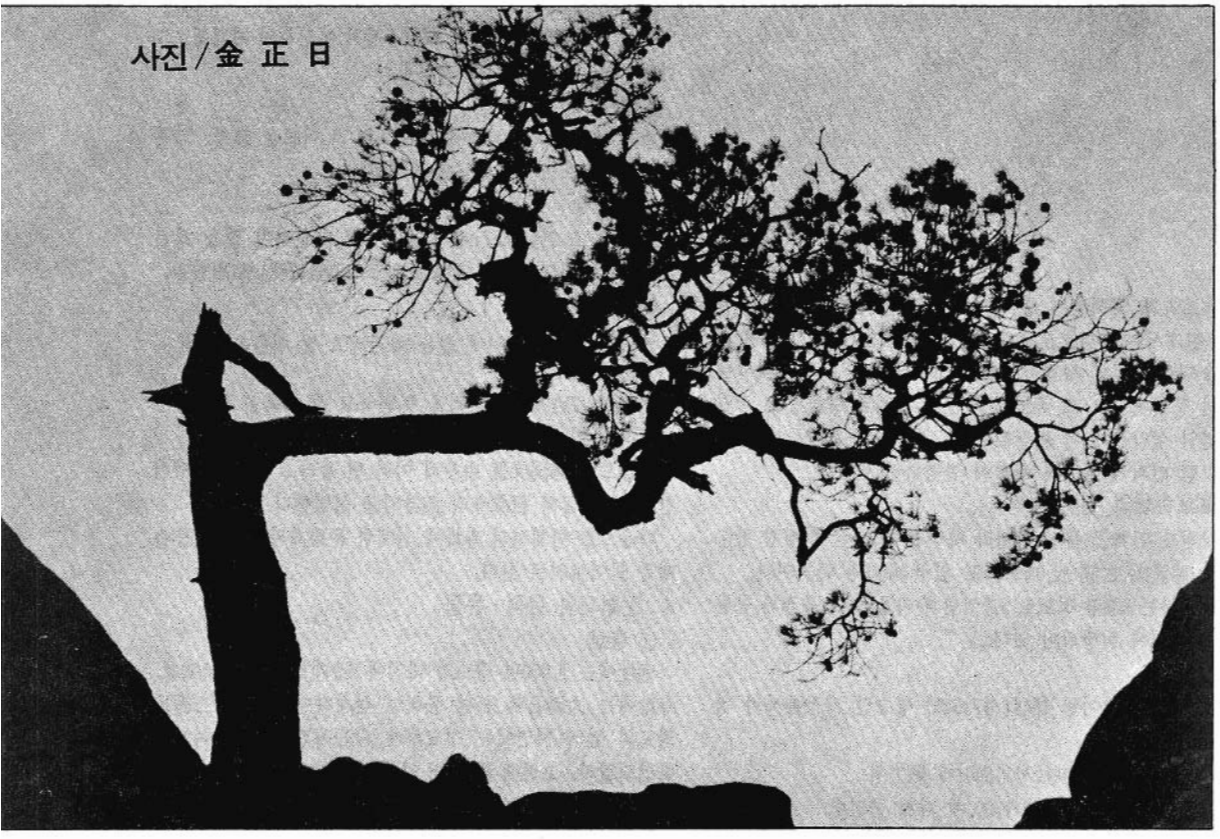
동해는 나의 마당이다.
새벽에 일어나 뜨락을 쓴다.
일렁이는 푸른 잔디밭에 올라온

퍼들쩍거리는
생선 한 마리.
붉고 싱싱한 햇덩이.

나는 빙긋 웃으며
젓가락으로 집어 숯불에 구워
아침상에 올린다.

# 論　壇

寒溪寺 3층쌍탑과 雲興寺 3층탑/金 鍾 權
雪岳祭의 현황과 鄕土祝祭로서의 활성화 방안/張 正 龍
地方文化와 주민의 역할/盧 在 春
항만의 역할과 전망/裵 孝 烈


사진/金 正 日

# 寒溪寺 3층 쌍탑과 雲興寺 3층탑



金鍾權／雪岳山人

寒溪寺와 雲興寺는 현 설악의 名刹인 百潭寺의 전신이다. 한계사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신라의 명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므로 그 3층쌍탑은 장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재이고 그 寺址에 散在한 유적과 유물등도 국립공원인 설악산 안에 비장된 실로 귀중한 문화재들이다.

그럼 먼저 한계사에 관하여 설명하려 한다.

## 1.寒溪寺址의 위치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자양전 곧 지금 한계령 장수대로 寒溪山 古城 및 대승폭포 입구 옥녀탕 근처이다.

한계사는 800평 정도로 3층쌍탑과 아울러 그 유적과 유물들이 여기에 비장되어 있다.

## 2. 한계사

① 신라 선덕여왕 15년(서기646) 명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함.

② 신라신문왕 10년(서기690)에 燒失됨.

③ 신라성덕왕19년(서기720)에 다시 중건함.

이 해에 경주에 있던 황룡사 8층탑도 중건.

④ 신라문성왕 원년(서기789)에 소실됨.

이렇게 한계사의 이름으로 존립된 연대는 이상 128년 동안이다.

## 3.그 뒤의 寺歷

① 雲興寺

신라 원성왕 6년(790년)에 한계사에서 이전하여 절을 재건함. 그런데 고려 성종 3년(984)에 소실됨.

② 深源寺

고려 성종 6년(987)에 운흥사에 이전하여 절을 재건함. 그런데 조선 세종 13년(1431)에 소실됨.

③ 涎龜寺

조선 세종 15년(1433)에 深源寺에서 이전하여 재건됨. 그런데 세종 24년(1442)에 소실됨.

④ 靈鷲寺

조선 세종 28년(1446)에 재건하고 절 이름을 고침. 그런데 조선 세조 원년(1456)에 소실됨

⑤ 百潭寺

조선 세조 2년(1457)에 靈鷲寺에서 이전하여 절을 재건하고 절 이름도 고침. 그런데 인조 48년(1772)에 소실됨.

⑥ 尋源寺

조선 영조 51년(1775)에 절을 재건하고 절 이름을 고침.

⑦ 百潭寺

조선 정조 7년(1783)에 절을 복원하고 절 이름을 百潭寺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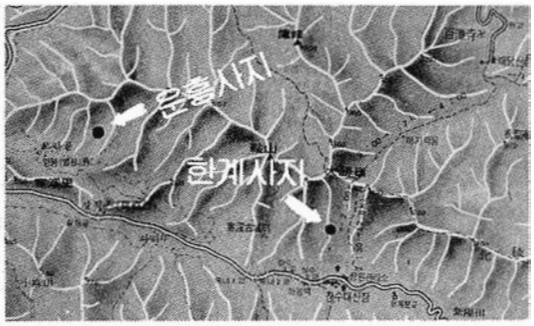
이상으로 寒溪寺를 비롯해 여러 번 불타고 또 이를 재건한 절이 지금의 百潭寺의 前身임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계사의 寺址에 산재한 문화재와 유적유물을 대강 들어보기로 한다.

## 4. 문화재와 유적 · 유물

① 寺址

寺址에는 1,800평 정도의 대지에 3층계단식으로 구조됨. 寺址에는 大礎石과 石材 유적이 산재하여 있는데 三棟建 정도의 절터 지면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礎石 30여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절터 옆에는 어떤 개인이 절터를 되는대로 헐어제치고 이곳에 개인집을 짓고 그 귀중한 문화




寒溪寺와 雲興寺의 위치도

재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실상이다. 이 문제는 다른 날 논란과 대책이 있어야하겠으므로 여기에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② 한계사 3층쌍탑

1) 小塔

이 小塔一其는 寺址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다. 그런데 지금은 도굴배의 횡포로 웅덩이처럼 되어 있고 塔身, 壇石, 屋蓋등의 石材 일부가 塔址근처에 산재해 있다. 이 小塔은 장수대에 있는 개인의 정원에 옮겨 세웠는데 탑단상층의 面石이 땅바닥에 널려 있고 3층부만 세워놨으나 가소롭게도 3층 屋蓋가 딴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基壇과 탑 상부의 相輪이 어떻게 구조되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

㉮ 基壇

하층 쌍탑의 너비는 250cm, 높이는 18cm이고 壇身石은 單石 사면에 8개의 장방형 蓮花紋眼象이 정교하고 우아하게 조각되어 있고, 屋蓋에도 8개의 큰 蓮花紋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밑의 너비는 186cm 윗너비는 127cm이고 밑두께 9사면의 길이는 36cm로 구조되어 있는데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실로 보는 사람을 경탄하게 한다. 상층 基壇部의 面石은 땅에 그대로 놓아졌는데 높이는 다 64cm이고 너비는 100cm 4개, 122cm 4개, 20cm 2개 등이다. 基壇面石 일부는 옮겨다 놓지 않았다. 중앙받침 撐柱가 1개 더 있다. 1,2,3층의 것은 네 모서리의 기둥뿐이다.

㉯ 1층 탑신은 단석으로 한면의 너비는 65cm, 높이는 56cm이고, 撐柱는 네 모서리에 1개씩 사방 4개인데 너비는 13cm이고, 屋蓋 밑바침은 5개로 잘 구성되어 있다.

㉰ 2층 塔身은 單石으로 1면의 너비는 55cm, 높이는 20cm이고, 撐柱는 네 모서리에 1개씩 사방 4개인데 그 너비는 13cm이고 屋蓋 밑받침 5개로 1층 것과 같은 樣式으로 되었다.

㉱ 3층 塔身은 單石으로 너비는 52cm, 높이는 16cm이고 撐柱는 네 모서리에 1개씩 4개인데 그 너비는 13cm이다. 그리고 屋蓋는 딴 탑의 屋蓋를 바꿔다 놓았는데 밑받침은 4개이다.

2) 大塔

이 대탑의 1층은 소탑의 위치에서 서북방으로 50m쯤 떨어진 寒溪寺址 後園의 小峯 위에 세워졌는데 이 탑도 도굴배의 화를 입어서 완전히 도괴된 채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나 이 탑은 前言의 小塔보다 塔材가 대개 그대로 그 자리에 널려 있어서 복원이 아주 가능하겠다고 믿어진다.(필자가 발견할 1981년 당시의 소견)

㉮ 基壇

하층 쌍탑의 너비는 250cm, 높이는 21cm이고, 탑신의 너비는 195cm, 높이는 21cm이고 밑받침은 5개고 윗층계는 3개이다. 상층탑신은 너비가 95cm, 높이는 81cm이고, 屋蓋는 밑받침이 5개이고 윗층계는 3개이고 撐柱는 네 모서리에 1개씩 4개이고 중앙에 1개씩 4개, 사방을 합하여 8개이고 撐柱의 넓이는 다 17cm인데 그 구조양식은 小塔과 거의 같다.

㉯ 1층 탑신의 너비는 74cm, 높이는 71cm이고 屋蓋는 밑너비가 100cm, 윗너비가 66cm인데 撐柱는 네 모서리에 1개씩 다 17cm이다.

㉰ 2층탑신의 너비는 80cm, 높이는 50cm이고 구조양식은 1층과 같다.

㉱ 3층탑신의 너비는 58cm, 높이는 50cm인데 구조양식은 역시 1,2층과 같다.

한계사 3층 쌍탑의 小大塔의 높이는 相輪部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알 수가 없으나 석탑의 높이는 탑신과 기단의 높이를 계산하여 소탑은 300cm이고 대탑은 400cm쯤으로 추정한다.(대탑은 지금 도괴된 탑재가 산중에 그대로 보존돼 있으므로 이를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寒溪寺 3층쌍탑의 구조 양식은 우리나라의 오랜 탑으로, 저 南原 實相寺의 3층 쌍탑(보물37호)과 유사하고, 또 양양 禪院寺 3층탑(보물49호)와 유사한데 다만 하층 基壇身에 眼象蓮花紋 조각 8개는 지극히 우아하고 정교한 미려하게 조성된 것이 다른 탑들보다 특이하다 할 것이다.

3) 石佛像址와 佛像奉安座臺

㉮ 石佛像址

이 위치는 3층 小塔址에서 8m쯤의 前面에 있는데 지금은 도굴배의 횡포로 인하여 큰 웅덩이로 되있고, 佛像奉安座臺과 그 遺材들이 부근에 산재해 있다.

㉯ 佛像奉安座臺

**"寒溪寺는 1300년전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므로 3층탑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文化財이다"**

座臺와 屋蓋는 각각 3개씩인데 2개는 浮屠臺石인지 石燈臺石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 飛天佛像座臺

여기 실로 경탄할 만한 비천불상좌대 1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8각 연화문으로 조각된 하부에 연화문 8개가 양각되어 있고 그 연화문 속에는 1개마다 하나의 飛天佛像이 양각되어 있다. 이 희귀한 불상의 높이는 22cm, 너비는 24cm, 머리는 4cm, 몸은 6cm, 앞팔은 10cm, 다리는 6cm, 키는 10cm인데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형상은 저 경주에 있는 봉덕사의 에밀레 종에 양각된 飛天佛像에 못지 않는 우아한 작품으로 처음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 浮屠臺石과 石燈臺石은 다른 사찰의 것과 거의 같다.

4) 銘文瓦片

신라 성덕왕 19년(720년) 3월, 곧 한계사를 중건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銘文瓦片을 몇개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고증되면 한계사의 사적과 한계사 3층쌍탑과 당시의 온갖 사실을 밝힐 수 있겠다. 이 명문은 뒤집힌 글씨 3행으로 새겼는데, 이를 판독하면 다음과 같다.(3자는 未譯)

寒溪寺瓦 ○庚曲三月 日○○

**5. 한계사지의 문화재 발견과 발굴과 보존에 관한 제언**

1) 한계사와 유적 유물은 문화재 관리국을 비롯하여 관계 당국과 학계, 종교계, 예술계, 문화언론계 등 각 기관의 제휴로 시급히 발굴계획을 세워 매몰되었을 귀중한 문화재를 한점이라도 파손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보존책을 강구하고 이와 아울러 한계사가 이전하여 창건된 雲興寺, 深源寺, 涎龜寺, 靈鷲寺址 등의 유적유물등을 찾아내어서 조상의 거룩한 일을 이어받아야 하겠다.

2) 한계사 3층 쌍탑은 우리나라에 드문 문화재이므로 시급히 원형대로 복원하여야 하고 특히 현재 장수대는 개인의 집 정원에 옮겨져 볼품없이 만들어 놓은 小塔에 관하여는 그렇게 된 사유를 엄정히 조사함과 아울러 그렇게 귀중한 문화재를 파괴하고 조작한 만행을 징계하는 뜻으로 올바르게 조처하여야 하겠다.

3) 한계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寒溪山 古城(마의태자의 거성)과 대승폭포를 비롯한 내설악의 명승지로 국립공원내의 문화유산의 집적지이므로 하루속히 이를 찾아내어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발휘해야 하겠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여 말할 것은 이번 필자가 발견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연구한 개인이나 학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내설악에 매몰된 문화재가 가능한대로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雲興寺 쌍탑의 복원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운흥사는 약 1,200년 전인 신라 원성왕 때 한계사가 소실되자 宗演, 覺洞, 靈熙, 廣 , 雪 法察師가 이전하여 재건한 절이다. 雲興寺址에 3층탑이 있고 또 사지의 뒷편 석벽에는 희귀한 '黃腹禁山' 刻石文이 있어 문화재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된다.

**1.雲興寺址의 위치**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臥牛부락의 동북쪽 1,300m 정도인 연현계곡에 있는데 한계사지(장수대)에서 서쪽으로 8km, 寒溪山 古城에서 서쪽으로 약 4km되는 한계산의 승지에 자리잡고 있다.

**2.雲興寺址**

신라 문성왕 6년(790년)에 한계사에서 이전하여 재건하였다. 그뒤 고려성종 3년 (984)에 소실되었는데 이때까지 雲興寺名으로 194년 동안 존재했다. 그뒤에 변천된 寺歷은 深源寺, 선구사, 영조사, 深源寺를 거쳐 지금 百潭寺로 이어져 온다.

**3.문화재 유적**

1) 寺址

500평 정도의 대지를 상중하 3계단(주위는 석등)으로 층지를 조성하고 사지(하층 150평, 중층 250평, 쌍층 100평)는 현재 개인의 사유전답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초석이 사방에 산재하여 있고, 3층탑자리 주위에는 한계사지의 초석처럼 잘 다듬어진 큰 초석이 널려 있으며 또한 토기류의 파편이 산재하여 있다. 그런데 사지를 아울러 현재 사유지 전답과 임야를 합하면 약 10,000평이고 그 중에 경작지가 약 7,000평쯤 된다.

"

**寒溪寺3층탑의 구조양식은**
**남원 實相寺의 3층쌍탑(보물37호)과**
**양양 禪院寺의 3층탑(보물477호)과**
**유사하다**

"

2) 3층탑

礎臺屋蓋가 전부 연화문 조각인데 지금은 도굴배의 횡포로 도괴되어 있으나 塔材가 그대로 있으므로 이는 쉽게 복원될 수 있겠다.

㉮ 기단부

礎臺石탑신 屋蓋의 3중으로 조성되었는데 礎臺石은 연화문 조각의 거석으로 되었고, 탑신은 전후 너비 111cm, 좌우너비 97cm, 높이25cm이다. 면마다 3개의 연화문 조각으로 되어 너비가 30cm, 길이가 18cm로 조성되었는데 저 한계사 3층쌍탑의 하층 단부에 있는 연화문 조각같이 우아하고 정교하며 미려하다. 그리고 屋蓋는 탑신의 전후좌우의 너비가 같은데 다만 屋蓋의 사면에 연화문 조각을 한 것이 특징이다.

㉯ 1층 탑신

전후의 너비가 86cm, 좌우의 너비가 66cm와 높이가 30cm의 單石塔身으로 된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屋蓋는 전후의 너비 107cm, 좌우너비 1,000cm, 높이 30cm의 4면각을 밑받침없이 평면으로 만들고는, 상부에는 각마다 8개의 연화문 꽃밭은 아주 아름답고도 정교하게 19cm로 조각한 것이 여느 탑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 그리고 屋蓋의 윗부분에는 4개의 층계를 만든 것이 특이하다.

㉰ 2층 탑신

전후의 너비 84cm, 좌우의 너비 62cm, 높이는 30cm의 單石塔身으로 만들어지고 屋蓋는 1층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1,2층의 탑이 모두 장방형으로 전후좌우의 길이가 다른 것이 특색이고 또 평면에 탑신을 세우지 않고 屋蓋위에 圓穴을 파고서 세운 것이 별다른 양식이다. 또한 屋蓋에는 밑받침이 없고, 위에는 4개의 층각을 너비 63cm, 58cm, 55cm, 51cm씩으로 구조하고 屋蓋의 4면에 8개씩의 연화문 음각을 아주 우아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성한 것이 여느 탑과 다른 특징이다.

이 3층 탑은 지금 도굴배의 횡포로 파괴되어 있는데 토착민인 한남규(韓南圭)씨의 말에 의하면 40년 전까지도 이 탑이 그대로 잘 보존되었었으나 그뒤 조휘영이란 사람이 여기에 와서 경작한 뒤에 파괴된 것이라 한다. 이 寺址의 後面石壁에 "黃腹禁山"의 각석문이 있는데 너비가 145cm, 높이가 120cm의 원형석벽에 6cm²의 크기의 글자로 다음과 같이 4행의 한문으로 음각되어 있다.

黃 禁山
自西古寒溪
至東界二十里
雲興寺

여기 특이하게 쓴 글자는 黃자를 黃자로 쓴 것과 界자를 界자로 쓴 것이다. 그리고 끝 줄 雲興寺라고 쓴 글자는 크게 마모되어 겨우 판독했다.

이글의 뜻은 雲興寺를 기점으로 하여 서쪽은 寒溪로 부터 동쪽 地境 20리까지는 죽은 사람의 관을 만들거나 들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黃 禁山刻石文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운흥사지나 운흥사 3층탑과 더불어 寒溪寺蹟과 한계산 일대의 그 당시 사실을 고증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잘 보존되게 조처하여야겠다.

4. 문화재 발견 발굴 보존에 관한 제언

먼저 잠깐 언급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寺刹史料集에는 외설악방면의 사찰은 낙산사, 신흥사 및 암자 등에 관한 사실이 실려 있으나 내설악 사찰은 衆人이 公忍하는 백담사마저도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그 전신인 운흥사와 한계사등은 사료에도 없고 한계사 유적과 2,3층 쌍탑과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개인의 정원에 사유물처럼 방치되고 보물다운 값진 것들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문화재를 주관하는 당국이나 연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귀중한 문화재는 가능한한 조사, 발굴, 수집, 연구, 고증, 지정, 보존, 활용, 전승하는 것이 앞날의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善策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운흥사지의 3층탑은 특히 屋蓋까지 연화문 조각으로 우아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그 구조양식도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탑이다. 탑은 무너진 그대로 있으므로 복원도 용이할 것으로 믿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 탑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82년 발견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적은 글이다. -필자 注)

# 지방문화와 지역민의 역할



盧 在 春
/ 속초시교육장

한 民族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文化的 創造力이다. 文化의 創造力을 잃었을 때 民族의 發展은 침체되고 文化의 自主性을 찾았을 때 民族이 융성하고 發展해 온 것은 歷史的 教訓이다.

우리나라는 急速한 工業化와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社會問題가 發生하였으며, 特히 傳統的 文化와 近代的 文化가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人間疎外의 現象이 점차 增大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經濟成長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러한 問題를 적절히 解決치 못하면 健全하고 幸福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文化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文化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努力이 필요하다.

우리가 傳統文化를 계승하고자 하는 努力은, 수천년 동안 傳承해 온 우리 固有의 文化 遺産을 後世에 傳하여 民族의 自主性과 主体性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經濟成長을 발판으로 先進祖國을 創造해야 할 使命을 띠고 있으며, 文化的으로 傳統文化의 假値를 유지 계승시켜 이를 더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傳統文化를 올바르게 理解하는 일이다. 現代에 살고있는 우리가 祖上의 文化遺産을 물려받으려는 것은 옛것을 무조건 숭상하고 따르려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復古主義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生活樣式에 맞게 創造的으로 계승하자는데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祖上들이 어떤 與件에서 民族文化를 形成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오늘까지 계승해왔는지 올바르게 理解하고 오늘날 우리生活與件에 맞게 傳統文化를 계승하는 方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의 文化 가운데 地方文化는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共同 創作物로서 민요, 설화, 민속극 등 말과 碑文으로 傳해지고 있으며 특정한 作家나 작곡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民族의 生活과 情緖를 노래로 표현한 民謠는 우리의 傳統的 農耕文化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모내기노래 보리타작노래 방아노래와 같은 勞動謠는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도 노래에 따라 규칙적으로 되풀이 하면 힘이 덜 들고 心理的으로 즐겁게 해주면서 行動의 統一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강강술래 줄다리기노래와 같이 순수하게 놀이를 중심으로 한 민요도 있으며,상여소리와 같은 儀禮的 民謠도 있고, 아리랑 도자기타령등과 같이 우리민족 누구에게나 共感을 주는 민요가 있는가 하면, 정선아리랑 몽금포타령 영선가 등 같은 各地方 鄕土色을 살려 정서에 맞게 불리는 그 地方 固有의 향토민요도 있다.

이 고장은 半農半漁의 經濟生活을 해온 까닭으로 농악과 漁夫歌가 있었다. 그러나 農樂만 옛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여져 있고 漁天歌는 正確하게 傳해지지 않고 있어 地方文化財로서 발굴할 價値가 있다.

우리의 傳統的 土谷信仰도 自然條件에 영향을 많이 받은 農耕文化에 基礎하고 있다. 집안에 터주와 상주를 모시고 추수가 끝난다음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고사를 지냈고, 마을에서 해마다 토지신 城隍神에게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였으며 쥐불놀이, 농악, 지신밟기도 傳統的 民俗놀이로 農耕文化에 기초하였다. 科學과 技術이 發達하지 못했던 그 時代로서는 自然에 도전하기 위한 民族의 슬기와 지혜가 모아진 傳統文化다.

이 고장의 鄕土民俗으로 雪嶽山神祭, 豊漁祭, 別神굿, 靑草湖의 불꽃놀이등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神上들은 수많은 民謠를 통하여 해학과 웃음을 즐기며 선한 사람을 찬양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며 孝子, 烈女를 칭송하는 등으로 民族的 生活感情을 표현해왔으며 가면극을 통하여 양반들의 身分的 特權이나 男性의 횡포에 대하여 저항을 表現하고 社會를 비판하는 풍자적이고 해학적 특징을 곁들인 것이 많다.

몇해전 言論의 調査에 의하면 東草가 全國에 살기좋은

"

**우리가**
**傳統文化를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수천년동안 전승해온**
**우리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여**
**민족의 自主性과 主体性을**
**뿌리내리기 위함이다.**

"

곳의 하나도 選定되었음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江土가 다 아름답지만 특히 束草는 天惠의 名勝 寺刹이 많아 우리의 자랑거리다. 論語에 智者樂水 仁者樂山라는 글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혜는 山과 물의 지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詩와 가사에는 물을 묘사한 것이 많은데 湖岩文一年이 韓國의 山水에서 雪嶽山을 예찬한 것은 그 좋은 例의 하나이다. 이 雪嶽山을 中心해서 鄕土의 傳說이 많이 있는데, 울산바위, 계조암 권금성의 傳說이라든가 香城寺의 3층탑과 古利等의 遺物에 대한 유래가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러한 文化財를 소중하게 保存하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발굴하고 考證하여 後世에 傳하는 일이다.

束草文化院과 몇몇 예술문화단체등이 中心이 되어 鄕土文化發展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慶賀할만한 일이며 이 고장 文化發展을 위하여 市民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文化都市로 가꾸어 나가는데 同參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港灣의 役割과 展望

## 東草港을 中心으로



裵 孝 烈/동우전문대

"東草는 관광지로서 육상과 항공및 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 海上은 연안어선이 형성되는 관계로 수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

### Ⅰ. 序

『人類의 近代文化는 港灣을 中心으로 發展되어왔다』고 한다. 港灣은 人間과 社會에 대하여 중요한 役割을 가지고 있다. 經濟 社會 文化의 發展이 어떠하던지 간에 歷史的으로보면 港灣이 近代化에 대단한 공헌을 했음을 볼수 있다.

우리 政府에서는 港灣施設의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에 역점을두어 施設擴充을 추진하여 第4차 5個年計劃기간중 總投資額 3,111억원 1982년부터 시행되는 第5次計劃期間중 총 5,669億원을 投入할 計劃으로 있다.

東草地域은 제1종의 항만을 갖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부심해오고 있으나 安定的인 발전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을 갖고있다.

本 考에서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고찰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 Ⅱ. 東草港灣의 立地條件

港灣의 제1기능은 海上과 陸上의 運送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매개기능이다. 東草는 觀光地로서 육상과 항공및 해상을 연결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고 있고 인근 海上은 연안이선이 형성되는 관계로 속초항만은 수산업의 前進기지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화물의 해상수송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東草港은 다음 表1을 보면 양양지역의 鐵鑛石을 위시하여 무연탄 油類등 상산업원료및 생필품의 수송에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港灣은 海陸交通의 터미널적인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道內굴지의 觀光地를 배후에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立地上 이용도가 개발될 條件을 어느정도 구비하고 있다. 항만의 입지조건은 지역 산업생산력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있는 연안공업기지의 確保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점에서는 불리한 立地要因이 된다.

**"항만 본래의 역할중 비중이 큰 해상과 육상수송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기능이 취약한 결과 화물선의 취항기회가 적고 관련산업이 부진하여 항만기능 자체의 생산능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港灣機能수행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漁業은 점차 장비의 현대화, 조업기술의 향상, 어장의 원양화로 항만의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좋은 立地要因이다.

〈表1〉 속초항 화물수송 통계 및 어획고 (단위 : t)

| 품목 / 연도 | 유 류 | 무 연 탄 | 철 광 석 | 기 타 | 어 획 고 |
|---|---|---|---|---|---|
| 1981년 | 16,403 | 63,083 | 277,269 | 290 | |
| 1982년 | 20,730 | 45,845 | 311,102 | | |
| 1983년 | 18,213 | 48,521 | 327,259 | 50 | 19,842 |
| 1984년 | 17,463 | 60,734 | 311,246 | | 22,810 |
| 1985년 | 19,001 | 66,000 | 336,000 | | 22,448 |

자료 : 해운항만청 85년도, 수협 속초지부

## Ⅲ. 束草港灣의 역할상 문제

束草港灣은 자연적 인위적 조건상 좋은 항만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항만의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不備한 점이 적지 않다.

첫째 항만 본래의 역할 중 비중이 큰 해상과 육상수송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기능이 취약한 결과 화물선의 취항기회가 적고 관련산업이 부진하여 항만기능자체의 생산능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背後地의 位置上 工業港과 臨上工業의 역할이 전무한 관계로 多角的인 港灣機能의 合理化가 제약을 받고있다. 〈表3〉을 보면 우리나라 全港灣에 投資될 5차 5개년기간중 투자예산액의 4.1%를 束草港灣에 投資할 計劃으로 있으나 生産性과 賦加價値가 높은 海上運送의 기능의 약화로 投資價値에 대한 效率性면에서는 다른 代案이 모색되어져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表2〉 연도별 어선현황

| 구분 / 연도 | 합 계 (척수/t수) | 1~5t | 5~100 t | 100 t 이 상 |
|---|---|---|---|---|
| 1981년 | 741/ 9,449 | 445 | 296 | |
| 1982년 | 765/10,885 | 454 | 311 | |
| 1983년 | 752/11,075 | 461 | 292 | |
| 1984년 | 751/17,880 | 461 | 290 | |
| 1985년 | 752/17,799 | 358 | 373 | 21 |

자료 : 속초시청 수산과

〈表3〉 束草港灣 建設計劃 (단위 : 백만원)

| 총투자액 | 85년 | 86년 | 87년 이후 |
|---|---|---|---|
| 23,342 | 14,043 | 3,563 | 5,738 |

> 東草港은 항만기능상
> 漁港으로서 中心的 위치를 차지하고
> 있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 지속적인
> 진흥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表4에서의 속초항 충무항 삼척항의 입출항 선박통계를 참조하면 工業港인 삼척에 비해 톤수면에서 삼분의 일 정도로 운송량의 저조현상을 볼수 있고 觀光港인 충무와 비교하면 선박의 척수면에서 칠분의 일로서 他港灣에 비해 운송능력이 열세임을 알 수 있다.

## Ⅳ. 東草港의 經濟的 發展展望

東草港은 항만기능상 漁港으로서 中心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기에 지속적인 진흥책이 요구되므로 政府의 적극적 擧力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연안어업의 한계성에 직면하여 점차 어선의 원양화와 操業의 能率과 安定을 유지할 수 있는 方向轉換的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은 특성이 조수간만의 差가 깊은 관계로 大型船舶의 출입이 가능한 관계로 속초항에도 5000톤급의 선박 입항이 가능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太平洋 時代를 목표로 한 國際港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東海의 인근지역항만으로 동해와 삼척이 있으며 臨海工業團地로 부터의 輸送物量이 막대하므로 점차 東草港灣의 기능을 강화해 가면서 동해안 중심항만의 역할도 아울러 보조할 수 있는 政策도 추진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그외에도 地域특성을 보면 관광수요가 크기 때문에 시즌에 集中되는 교통수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海陸交通을 잘 소화시키면 해상을 이용한 여객수송 기능도 개발되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港灣의 주요기능을 육상과 海上을 연결하는 교통의 터미날 내지는 관련된 산업의 집결지로서 경제적 커뮤니티의 형성이라 본다면 經濟的 측면에서 해상운송업을 육상

〈表4〉 항만별 입출항 비교 (척/톤)

| 구분 / 년도 | 속초 | 충무 | 삼척 |
|---|---|---|---|
| 1981년 | 1,185 / 507,974 | 8,790 / 498,968 | 1,151 / 147,914 |
| 1982년 | 1,248 / 525,631 | 9,209 / 534,688 | 1,041 / 1,339,371 |
| 1983년 | 1,287 / 526,975 | 8,053 / 648,602 | 1,203 / 1,571,181 |
| 1984년 | 1,244 / 512,092 | 13,415 / 1,004,011 | 1,095 / 1,565,079 |

자료 : 해운항만청 85년도 ※단, 어선은 제외됐음.

〈表5〉 운수업의 주요지표

| 구분 / 산업별 | 노동 생산성 | 설비투자 효율 | 부가 가치율 | 종업원 1인당수입 | 종업원 1일당 부가가치율 |
|---|---|---|---|---|---|
| 평균 | 100 (%) | 100 (%) | 100 (%) | 100 (%) | 100 (%) |
| 연안여객운수 | 79 | 55.8 | 79.3 | 99.6 | 79.0 |
| 연안화물 | 163 | 89.1 | 122.0 | 133.9 | 163.3 |
| 보관창고 | 106 | 91.4 | 166.1 | 64.3 | 106.9 |
| 육상 | 76.5 | 111.2 | 112 | 67.9 | 76.5 |

자료 : 해운항만청 85년단, 외항수송은 평균치에만 가산됨.



**東草항은 자연적·인위적 조건상 좋은 항만이라 할 수 있지만, 항만의 기능을 감당하기는 불비한 점이 적지 않다.**

운송업과 비교해 볼때 해상운송업의 産業生産이 더높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表5의 統計를 보면 設備投資効率에서만 陸上運輸가 우위를 가지는 정도이고 그외 지표에서는 海運이 보다 有利한 經濟性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때 東草港灣運送의 개발은 지역産業發展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港灣의 보다 빠른 成長은 大型交通手段이 되는 카페리호의 就般이나 航空路의 開設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으로 국제쟁보리대회가 열리는 1991년까지는 韓日間 카페리호가 運航할 計劃으로 있어 東草港灣이 국내는 물론 國際的인 위치로 부상할 展望도 보인다.

## V. 結 言

海運發展과 港灣經濟圈 形成을 中心으로 東草港灣政策에 대한 方向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要略할 수 있겠다. 첫째 港灣發展은 工業生産力과 관련성을 가지므로 工業과 結合할 수 있는 항만의 역할이 절실하다.

둘째 海運能機의 개발과 강화로 貨物 旅客 觀光등 항만의 效率的 活用方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세째 港灣投資는 巨額이 所要되므로 政府次元의 지원이 강화돼야하고 기간산업의 立地를 위한 港灣公債發行도 필요할 것이다.

네째, 建全한 港灣의 發展을 위해서는 地域主民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地方自治團體를 통해 自主的 經營과 管理를 담당토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地域住民이 海上活動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도활동과 港灣發展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專門的인 海運人力을 地域에서 적극 활용하고 점차 海上活動 人力도 養成할 수 있는 方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雪嶽祭의 現況과 鄕土祝祭로서의 活性化 方案

張 正 龍 / 중앙대 교수
金 鍾 達 / 속초민속보존회

## Ⅰ. 序言

木橋는 雪嶽祭의 現況을 檢討하여 傳統的인 祭典의 方向摸索과 定着化, 그리고 活性化를 위한 方案으로서 雪岳祭의 行事全般을 再考察함으로써 傳承部落祭의 意義를 살리며 地方民의 精神的 一切感을 助成할 수 있는 鄕土祝祭의 創案에 目的이 있다.

## Ⅱ. 雪嶽祭의 現況과 問題点

雪嶽祭는 山岳人의 祭禮에서 출발하여 今年까지 20回을 거듭함에 따라 飛躍的으로 발전하여 東草市의 鄕土文化를 傳承 發展시키고 豊饒와 和合, 跳躍을 다짐하며 觀光水産都市로서의 東草特有의 文化와 祭典으로 定着할 단계에 이르렀다.



**東草市는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山岳文化와 海洋文化가 접하는 境域으로 양교차 문화와 주민이 융화되어야 명실상부한 시민화합의 祭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東草市는 地域的 持性으로 볼 때에 山岳文化와 海洋文化가 接하는 境域으로 両交叉文化와 住民이 融化되고 調和를 이루어야 名実相符한 市民和合의 祭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인 山岳文化와 수평적인 海洋文化의 만남은 지금까지 이룩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文化圈을 형성하여 文化와 風俗, 價値観의 定立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此際에 雪岳祭의 活性化를 도모하고 祭典과 흥을 통한 市民大同和合의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몇가지 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現況을 살펴보면 多様한 行事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実質的인 祭典行事는 山神祭만 간략하게 치루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市民慰安의 行事 위주로 대부분 日程을 사용하고 있어서 地域的 特性을 살리지 못하는 実情이다.

例를 들면 山岳文化圈에서는 山神祭를 통하여, 海洋海洋文化圈에서는 龍王祭, 自然部落文化圈에서는 城隍祭를 지냄으로써 一切感과 祭典의 神聖性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多幸히도 東草市는 三者의 特性을 고루 갖춘 天惠의 고장으로 大同和合의 市民的 求心点을 構築할 수 있는 地域인 것이다. 失鄕民의 亡鄕의 恨을 풀어주고 海難과 山災의 禍를 豫防하며 豊農漁와 地方의 安寧을 祈願하므로써 지역사회의 無窮한 發展을 모색하는 계기가 鄕土部落祭를 통하여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問題点은 改善方向案에서 논하기로 한다.

## Ⅲ. 雪嶽祭의 歷史的 背景 및 民俗学的 考察

雪嶽祭는 지금부터 20年前에 始作되어 그동안 山神祭 性格을 지니고 행해지고 있으나 山川에 祭祀하고 地方安寧과 行路安全을 기원하던 行事는 이미 오래 전부터 山岳地方에서는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雪嶽祭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보이는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 雜志 第一 祭祀條에 "三山五岳已下名山川分為大中小祀… 小祀霜岳(高城郡), 雪嶽(迊城郡…」이라 하여 삼산 오악이하 명산대천은 나누어 대사, 중사, 소사를 만들었는데 소사의 명산대천에서 제사지내는 곳에 설악산이 들어 있으니 신라때 부터 이미 雪岳祭는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雪嶽山은 옛기록에 雪山 또는 雪華山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神山으로서 聖域視하였던 것인데, 그 위치가 太白山脈의 북쪽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金剛山, 남쪽으로는 五台山을 거쳐 車嶺, 小白山脈으로 통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 국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李重煥(1670~1752)은 「擇里志」에서 강원도를 언급하며 雪岳을 예로 들고 산과 바다 사이에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많고 老人들이 술과 고기를 싣고 호수나 산사이에서 흥겹게 노는 등 놀이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盧思愼(1417~1498)의 「東國輿地勝覽」에는 지금의 永郎湖에서 國仙 즉 花郎徒의 名山과 湖水를 찾아 娛遊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 이때의 名山은 雪嶽山이었고 湖水는 永郎湖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花郎徒들은 天靈과 名山大川 龍神 등에게 祭祀를 지냈던 것이다.

鄭澈(1536-1593)의 〈関東別曲〉을 보면 「…高域을란 더만 두고 三日浦를 추자 가니 丹書는 宛然ᄒᆞ되 四仙은 어듸가니 예 사홀 머믄 後의 어듸가 또 머믄고 仙遊潭 永郎湖 거긔나 가 잇는가"라며 노래하고 있으며, 安軸(1287-1348)의 同名 〈関東別曲〉에는 八章에서 이미 "仙游潭 永郎湖 神清洞裏 緑荷洲 青瑤 風煙十里" "雪嶽東 洛山西 裏陽風景 降仙湖와 雪嶽의 絶景을 읊고 있다.

**山岳文化圈에서는 산신제, 海洋文化圈에서는 용왕제, 자연부락문화권에서는 성황제를 지냄으로써 체감과 祭典의 神聖性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속초는 3者의 특성을 고루갖춘 천혜의 고장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權金城의 由来를 적고 있는데 權金二家의 피난처로서 洛山寺記의 雪嶽山築城守禦를 의심하고 있으나 고려 顯宗(1009-1031) 2年에 거란병이 침입하므로 설악산 東麓에 築城守禦하였다가 3年에 山域이 몰락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權金城에 築城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현재의 조사로는 築城形態나 方法, 봉화대, 제단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山神祭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各種 土俗的인 속초일대의 城隍祭나 돌무덤 형태의 累石壇, 외옹치부락의 장승제, 岩石崇拜, 樹木信仰 등의 精灵信仰(Totemism)과 家庭의 家神形態, 대포동이나 青湖洞의 龍王祭 등을 고찰할 때 山岳의 行路安全, 虎患이나 猛獸로 부터의 安全, 部落의 安寧 등의 의미를 가진 行事는 海洋文化圈의 豊漁祭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民俗學的 측면에서 보면, 部落祭의 형태로 분류하여 雪嶽祭는 山神祭이다. 그러나 行政区域의 변화와 生活文化의 변천으로 束草市의 境域에 속하므로 龍王祭와 結託을 통한 定成된 部落祭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우리 나라의 部落祭는 종류가 洞祭·城隍祭, 山神祭, 堂山祭, 山川祭. 天祭, 壟祭, 堂祭 등의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부분 2분류하여 하나는 남성중심의 유교식 축문을 읽는 洞祭型이 있고 다른 하나는 女性中心의 巫堂이 주제하는 都堂굿 계열이 된다. 그밖에도 보다 原初的인 형태로는 祝文도 없이

**雪嶽祭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보이는 金富軾의 三國史記에 "三山五岳巳下 名山大川分為大中小祀…雪嶽迚城郡" 이라하여 신라때부터 이미 설악제는 행해졌음을 알수 있다.**




祭主가 조용히 念하고 정성드리는 秘儀型의 山祭가 있다.

대부분 部落祭는 제례뒤 飮酒時나 洞祭, 都堂굿의 娛神절차에서 巫樂, 農樂이 함께 어울려 全住民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部落祭의 대상이 되는 祭神은 山神, 山川神, 洞神, 城隍神, 龍王神, 土地神, 塵疫神, 堂神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나 그 과정에 있어서 迎神으로 나뉜다. 이에 앞서서 신이 降臨하는 降神행사는 필수적이다. 降神의 경우는 山神祭에서 神竿木이나 神樹 또는 대를 통하여 下降하는 것이며, 바다의 龍王祭 경우는 龍船이나 기타 표류물을 이용하여 水平移動하는 것이다.

雪嶽祭는 고유한 山神祭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秘儀의 山祭에서 출발하여 儒教式의 祝文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소박하고 경건한 행사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祭壇은 設置되어 있으나 降神木이나 神木이 빠져 있으므로 節次上 問題가 있는 것이다.

雪嶽祭의 山神祭는 山神을 맞이하는 仰神祭와 降臨굿이 겸해지고 위폐와 神木이 설치되어야 한다. 단군신화에도 神樹를 통하여 下降하며 거기에다가 빌어서 人間을 創造하는 神話內容이 있음은 周知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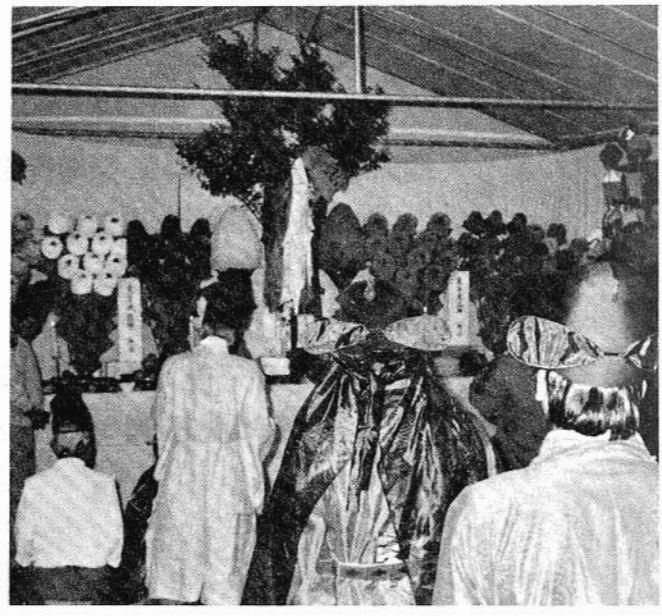
山神이 神木(신이 내린 나무)을 통하여 하강하는 降神祭와 산신굿이 행해지고 강신한 山神을 맞이하는 燈불이나 제등행사 그리고 神木行次가 이루어 지며, 일정한 제단에 山神을 奉安하고 巫祝을 통하여 娛神하며 祭礼를 통하여 格式을 갖추며 神을 즐겁게 하므로 神과 人間이 和合하는 場을 만들어 풍요를 기원하게 되며 送神節次를 통하여 燒祭를 올림으로 神을 본래의 위치에 拜送하는 것이다.

束草市는 水産都市로서 어업을 主業으로 삼는 주민이 많으므로 豊漁祭를 겸하는 龍王祭를 빠뜨릴 수 없으며 오래전 부터 東海岸의 수산기지로 성대한 풍어제와 용왕굿을 치루어 왔던 곳이다.

따라서 雪嶽祭는 이른바 雪岳大祭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다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어민을 위한 龍王祭를 포함시켜야 하겠다. 대부분의 어민들이 뱃고사나 풍어굿을 통해서 水路安全을 빌고 滿船을 希願하기 때문인 것이다. 東海龍王神을 위하는 행사는 험난한 파도와 싸우는 어민들에게 心理的 慰安과 安定感을 주어 조업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였다. 고기가 많이 잡히거나 적게 잡히는 것은 어부의 노력에 달려있으나 요는 고기떼를 만나야 하며 풍랑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自然現象으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神의 加護가 필요하기에 신을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바라는 信仰이 싹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三面이 바다이므로 龍王祭를 지내며, 「沈清伝」에서 보이는 것 처럼 龍宮思想이 싹텄으며, 바다를 신비한 대상으로 여기는 信仰과 生活意識을 가져왔던 것임을 알수 있다.

城隍祭는 部落內의 土地神을 제사하여 마을의 災害을 없게 하고 平安과 祝福을 비는 것으로 束草自然部落에서는 골맥이 당산성황신을 모시고 있다. 疾病豫防과 豊饒祈願, 悪鬼消滅등의 祝文을 외고 祭礼와 무굿, 濃楽등을 행하는데 大浦洞 城隍祭는 12가지 굿을 하고 있으며 長沙洞 城隍祭는 祭를 올린 뒤에 무당이 마을 평안과 풍년풍어굿을 하고 농악놀이를 곁들인다. 그밖의 各洞에서는 城隍祭를 主神으로 모시고 있는데 城隍神位를 中心 神格으로 奉安하여 束草自然部落의 鄕土的 性格을 갖추게 된다.

**山神祭를 지냄으로써 산악인과 지방민의 安寧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축제분위기를 유도하며, 龍正祭를 통하여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고 각계의 관심을 모을수 있도록 하며 城隆祭를 통하여 정신적 구심점을 확립할 수 있도록하여 공동체 의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鄕土部落祭의 성격을 具現하기 위해서는 城隍神을 중심으로 山神, 龍王神을 봉안하고 祭礼를 통하여 神聖性을 부여하고 巫굿을 통하여 神과 人間이 함께 즐길 수 있는 祭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城隍神의 象徵의 호개燈을 달고 神木을 통하여 山神이 下降하며 龍船을 통해서 龍王神이 来到하면 위패를 모시고 祭典을 거행하고, 아울러 지역의 民俗資料를 발굴 수집하고 기존의 민속놀이 등을 계속적으로 支援 育成하므로써 全市民이 共感하고 同參하는 한마당을 만들고 体育과 其他 文化行事를 부수적으로 실시하여 향토부락제로서의 雪嶽祭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 Ⅳ. 雪嶽祭 行事內容(案)

### 1. 祭典行事

1) 山神祭

- 일시 : 9. 30. 10-18시
- 장소 : 설악동 제단(cf 권금성이나 소공원)
- 참가 : 제관, 무격, 등반인, 시민
- 행사 : 산신제례, 산신굿, 신목행차, 제등행렬, 공설운동장 봉안

※山神굿 행사는 青湖洞 빈순애巫女中心 活用-홍부자, 빈순애, 이순덕, 김명익,( 김명대(巫覡) 等

- 祭礼는 儒教式 復元

※위패는 雪嶽山 山神 神位

2) 龍王祭

- 일시 : 9. 30. 10-18시
- 장소 : 속초시 제단(cf 어판장, 바닷가)
- 참가 : 제관, 무격, 어민, 시민
- 행사 : 용왕신제례, 용왕굿(풍어굿) 해상선박불꽃놀이, 공설운동장 봉안

※龍王굿 행사는 大浦洞 정춘자巫女中心 活用-김옥순, 윤영란, 진차연(巫覡 等

- 위패는 東海龍王神 神位

3) 城隍祭 및 奉安祭

- 일시 : 9. 30. 20-22시
- 장소 : 속초시 공설운동장
- 참가 : 제관, 무격, 시민
- 행사 : 성황신제례, 봉안제, 위패봉안
- 기타 : 무굿행사는 청호동, 대포동 연합
- 위패 : 束草 城隍神 近位 神位

4) 朝尊祭

- 일시 : 10. 1. 9시-10시
- 장소 : 속초시 공설운동장 제단
- 참가 : 제관, 각급기관장, 무격, 시민
- 행사 : 雪嶽大祭典

5) 무굿

- 일시 : 10. 1~3, 17~22시
- 장소 : 공설운동장 제단
- 참가 : 시민
- 행사 : 무굿 12거리

6) 送神祭

- 일시 : 10. 3, 18시~19시
- 장소 : 공설운동장 제단 서편
- 참가 : 제관, 무격, 시민

"

**雪嶽祭는 무엇보다도 祭典行事를 활성화하여**
**향토축제로서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또 충분한 홍보로 다양한 계층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雪嶽祭典을**
**완벽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

● 행사 : 燒祭

2. 民俗行事

1) 民俗놀이 한마당(경연)

● 각13동 참여

● 일시 : 10. 1, 10 : 00(개회식) ~16 : 00

● 행사 : 시가 행진, 경연, 공개행사

● 최우수팀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권 부여

• 사전 고증 및 심사후 출연

(今年의 경우 고증·구성·연희능력 미흡-"울돌목 해전놀이"는 고증상 문제점이 있었으며, "동명동 상여놀이"는 喪礼가 놀이가 아님에도 놀이형식을 취했으며, 교동의 광대놀이는 탈의 문제가 지적되고, 기타 농악놀이에 '88호돌이'가 등장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대포동과 청호동의 경우는 풍어제와 성황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제 무당과 무격들이 출연하여 현장감과 무굿의 속초지방 성격을 잘 나타냈으나 무대 소품 등이 엉성하여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체적으로 좋은 印象을 준 것은 소박하고 꾸밈없는 民俗놀이를 열심히 선보였다는 것이다. 계속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밖에 응원단을 동원하여 체육복 등의 유니폼을 입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민속의 현장감을 상실케 하였으며 난장이나 음식점 등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겠다.)

● 기타 : 씨름, 그네, 줄다리기, 궁도대회

3. 體育文化行事

1) 축구, 배구, 육상

2) 각종 전시회 : 사진, 미술, 서예, 수석 등

3) 등산대회 : 설악동의 산신제가 끝난 후 실시

4) 기타 : 노래자랑, 시민위안잔치, 경노효친의 마당, 실향민 단합의 밤 등 개최

## V. 結言

雪嶽祭는 무엇보다도 祭典行事를 活性化하여 鄕土祝祭로서의 機能을 되살려야 하겠다.

따라서 山神祭를 지냄으로써 山岳人과 地方民의 安寧, 一切感을 助成하고 祝祭雰圍気를 誘導하며, 龍王祭를 통하여 豊漁와 安全操業을 祈願하고 東海岸의 有名한 豊漁굿을 復活시켜 漁民의 所望을 빌고 各界의 觀心을 모을 수 있도록 하며, 城隍祭를 통하여 束草隣近地域民의 단합과 精神的 求心点을 確立할 수 있도록 하여 共同体 意識으로 結束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祭典行事를 치룸에 따라 雪嶽祭의 品格을 높이고 部落의 風俗을 바르게 하며 地域民에게 神聖性을 認識케 하므로 精神的인 紐帶와 支柱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 各種의 民俗놀이와 体育文化行事를 시행하여 文化的 疏外圈에서 脫皮하는 한마당 鄕土祝祭를 만들어야 한다.

雪嶽祭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多様한 계층과 各界의 觀心이 集中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悠久한 歷史를 가진 雪嶽祭典이 보다 活性化되고 完璧하게 定着될 수 있도록 智慧과 努力을 모아야 한다.

本稿는 제20회 설악제(1985년)의 現況을 기준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편집자 註】

# 특집

# 대포
# 대포항
# 대포인

## 대포동 吳氏일가

내천구 오강환은 동해 어로 한계선 근처에서 명태 잡다 납북되어 귀환된 후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술만 퍼 마시다 간이 부어 스물아홉에 꺾였는데 그래서 대포동 오씨 일가는 절손이 되었다.

그의 드장날 밤 바다바람에 꼬질대 휘청거리는 차일 밑에서 화로를 끼고 앉은 나는 한 튼튼한 어부가 바지가랭이 부여잡는 홀어머니를 버리며 술과 패배로 부터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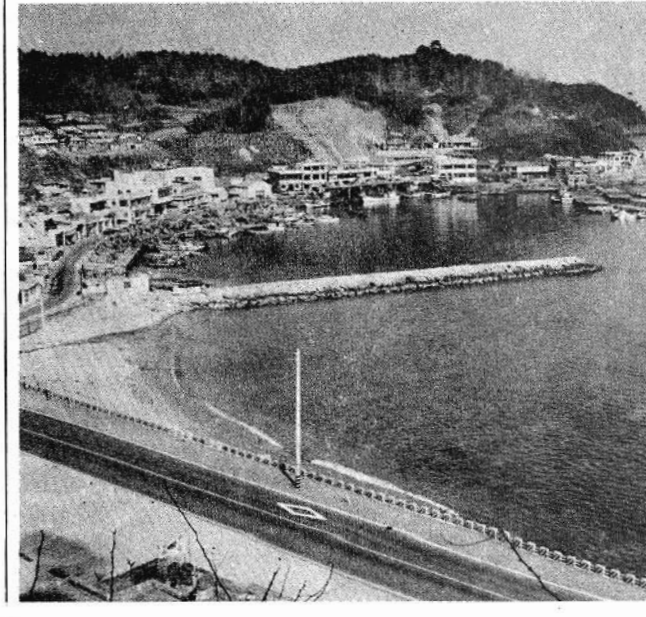
이 마당에 그의 형 오국환은 어디 있는가. 전쟁나던 해 유월, 말 타고 바람처럼 들렸다가 38선으로 몰려간 인민군 장교 그의 형 오국환은 어느 족보에 있는가. 그길로 남쪽 어느 샛강 풀이 되었는가, 살아 북쪽 돌아가 우리의 적일 오씨의 씨를 계속 낳고 있는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탄광에서 징용살다 물간 생선되어 돌아와 쓰러진 선친 오상근과 그의 나라 다른 두 아들의 멸실을 위해 어느 큰 무당이 하늘 땅 뒤섞이는 굿 한판 벌릴 것이냐.

우리가 땅을 선택하여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해도 그 형이 말 타고 유월 밤 새 풀을 밟으며 오거나 그 아우가 바다의 덫을 피해 배를 타고 속초바다에 다시 올리 없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계속하여 완전하게 씨를 묻는 해방의 땅은 어디 있는가.

적이 적을 몹시 그리워하는 반도, 바다바람에 큰 꼬질대 휘청거리는 하늘밑에서 나라의 어미니가 슬피 우는데 나는 피 가득한 장화를 끌며 한 튼튼한 어부가 침묵과 도피로부터 그렇게 해방되는 것을 보았다.

李相國／詩人



# 大浦港



윤 홍렬/文人協会속초지부장

이 대포항이란 밀물이 드나드는 큰 포구라는 뜻일진대 우리의 옛말로는 "한개"였으리라.

이 고장을 다녀간 사람들이라면, 특히 요몇년 사이에 속초 또는 설악산엘 다녀간 사람으로서 대포항엘 들러보지 못한 나그네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 대포항을 스쳐가기만 하였다면 그런 분은 대체적으로 후회할 것이다. 그 싱싱하고 깨끗하고 입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감돌기까지 하는 생선회를 못먹어 보았으니 말이다.

오늘날 남쪽에서 속초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랄 수 있는 곳이 대포동이며, 또한 설악산엘 다녀가는 관광객의 부수적인노선에대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항구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생선횟집에서 미각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6.25사변의 결과로 유명해진 곳이 속초라면, 국토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두드러진 곳이 설악산이며, 설악산 기슭의 깨끗한 바닷가에 있기에, 그리고 고급 생선의 집산지이기에 대포항은 유명해진 곳이라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속초가 개항되기 이전에도 설악산은 있었던 것처럼, 속초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 이미 대포항은 온세계에 소개 되었던 곳이다. 일제때는 물론이고, 6.25사변을 전후하는 시기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지도에 속초는 안보이는데 대포항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 지도를 펼쳐 놓고 부산항에서부터 동해안을 더듬으며 원산쪽으로 가면서 살펴 보면 포항 다음에 묵호항, 그리고 분명히 대포항이 있고 장전항이 있으며 다음에 원산항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드문드문 항구가 표시되어 있건만도 속초항은 없는 것이다.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1937년 7 월 1 일자로 속초리로 옮겨갔고 이어 청초호 주변을 다듬어 속초항이 태어나면서는 대부분의 화물선과 어선들이 여기엘 들르게 되었고 더불어 1942년 10월 1일자부터 속초읍이 탄생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 근년에 나온 지도에는 속초시는 있는데 대포항은 없다.

속초항의 발달로 대포항은 한낱 어선 몇척이 드나드는 한적한 포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의 급성장은 동시에 교통수단의 큰 발달을 가져왔으며 한편 지난날의 그 진저리나는 가난을 훌쩍 벗어나




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생활관은 삶을 즐기자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강따라 골따라 몰려다니는 행락객의 수효는 해마다 계절따라 늘어나 이제는 연휴가 있을때면 1천여만명의 선남선녀들이 관광나들이를 나서는 정도가 되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런 현상이 1년에도 여러차례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럴때마다 명산 설악과 알칼리성인 척산온천 게다가 낭만과 정열이 일렁거리고 굽이치는 바다와 청초호,영랑호등을 지고 업고 끼고 안고 있는 대포동의 횟집으로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것쯤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대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바닷물이 청정,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망에 걸려드는 고급생선들은 반드시 대포항을 통하여 처리된다. 계절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광어 넙치 방어 도자리 청어 등의 고급 생선들은 이 대포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조금도 산업공해에 오염되지 않은 동해안의 생선들은 바다건너 일본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있어서랴, 티 없이 깨끗하고 싱싱한 회인데야 말이다.

그런데 이 대포동의 생선회가 좀더 많은 사람들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형식적으로는 해안통로와 마을복판을 동서로 가르는 뒷길등으로 두 줄기의 길은 있지만 해안통로는 원래 항구로 드나드는 길이 이마을의 교통로인데 현재 두 길이 모두 차량과 인마의 교통로로 쓰이고는 있지만 모두가 좁다. 그래서 대형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막고있다. 그렇다고 주변 가까운곳에 마땅한 주차장이 있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포동 뒷산도 활용되어야 한다. 별장지대로든 숙박시설 단지로든 아니면 그밖의 위락시설 구역으로 라도 개발하였으면 좋겠다. 이래 저래 대포동은 혁신적인 정비로 구조를 재구성해야 되지않을까.

# 대포성황제



이 태근／대포동개발위원장

내고장 대포는 예로부터 항상 맑고 푸른 물빛과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고장으로서 지나는 여러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하는 천혜의 어촌인 동시에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문으로서 일제시대인 1912년에 현재의 도문동인 도문면과 대포동인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이라 칭하고 그 면사무소를 현재의 대포국민학교 뒷편에 건립하였다. 당시에는 명실공히 이 지방의 행정 및 교육·교통·수산의 중심지로 그 명성이 쟁쟁하였던 고장이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지리적 여건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그 명성을 되찾을 길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옛날 수많은 외국 무역선이 앞바다에 정박교류하던 시절이 있어 세인들로부터 동해안의 홍콩이라 불리워 왔다.

대포는 영북지역 최고의 어업 전진기지인 대포항을 중심으로 내물치와 대포, 외옹치리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중 극소수의 농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주 생업으로하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며 주민 대다수가 이 고장에서 출생한 주민들로서 가업인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관례로 이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출어시의 무사한 조업과 풍어와 또한 풍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부락마다 산천이 수려한 곳에 성황당을 짓고 해마다 부락별로 성황제를 올리는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우리 대포지역의 성황제는 마을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대소사를 협의하며 지난 한해의 애환을 돌이키고 명년의 풍어와 풍년을 기약하며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왔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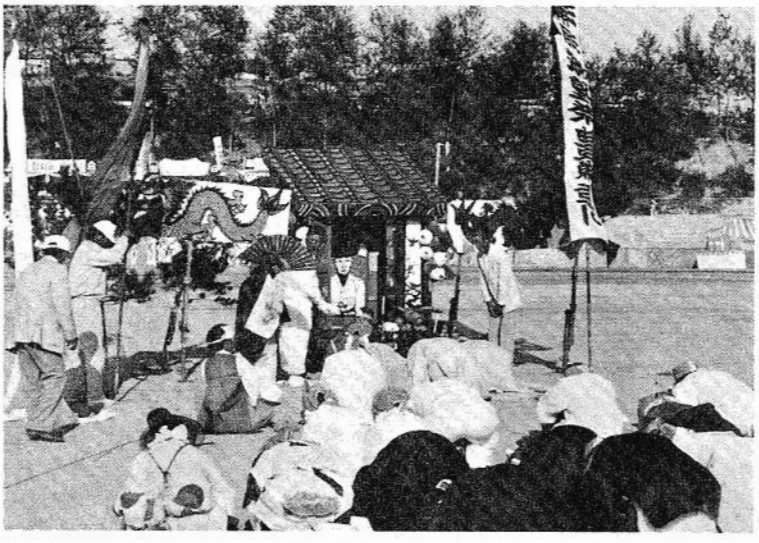
각 부락별로 성황제를 올리는 시기와장소는 다소 다르다. 먼저 "외옹치"(外甕峙) 부락에 대한 유래와 성황제 행사내용을 소개한다. 원래 외옹치란 지명은 부락의 형태가 항아리(독)를 엎어놓은 형상을한 옹치산(甕峙山)에서 유래되었다한다.

성황제를 올리는 시기는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음력 3월3일과 제비가 돌아간다는 음력 9월9일 년2회 성황제를 올리고 있는데 통상 3일간에 걸쳐 제를 올리게 된다. 이때에는 모든 주민이 가사를 중단하고 성황당에 모여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기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내물치"(內勿緇)부락을 소개한다.

이조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어 부득이 물치부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온 비로 인하여 온마을과 현재의 쌍천이 홍수로 두절되어 할 수 없이 며칠을 더 머물다가 가게 되었는데 떠나실때 선생께서 물치(勿緇)라는 지명을 붙여 주셨다는 구전이 전하여 오고 있다. 물치 부락의 성황제 역시 제비가 돌아온다는 음력 3월3일과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여 년2회 올리고 있는데 이때에도 전주민이 생업을 중단하고 성황당에 모여 풍어와 풍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대포"부락은 큰 포구이며 큰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여 대포(大浦)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대포부락의 성황제는, 중심부락인 관례로 할아버지 성황당과 할머니 성황당이 각각 마련되어 있어 성황제의 규모가 타부락에 비하여 웅대하다. 제는 3일간 올리게 되는데 10월초순 길일을 택하여 1년에 한번 올리며 첫해는 큰 무당을 불러 무당굿을 중심으로 풍어제 풍년제 용왕제를 올리고 이듬해에는 복수리 중심의 성황제를 올린다. 대포부락의 성황당은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애환을 기원하는 장소로 가정의 안녕을 기원할 뿐만아니라 풍어시에는 감사제를 올리고 새로운 어종이 잡힐 때는 꼭 성황당에 먼저 제를 올리는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 오고 있다. 또한 복수리 중심의 성황제는 제사당일 동이 트기 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제를 올리게 되는데 대포부락의 성황당이 2곳인 관계로 2곳의 성황당에서 상호 횃불로 원을 그려 신호를 보내 제의 시간을 엄수하는데 지역의 고령자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제주를 삼고 제



관은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제를 올리기 위한 모든 제물의 준비는, 집안이 안정되고 자손이 번창하며 이웃과 화목한 가정을 선정하여 모든 제물의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도가집"이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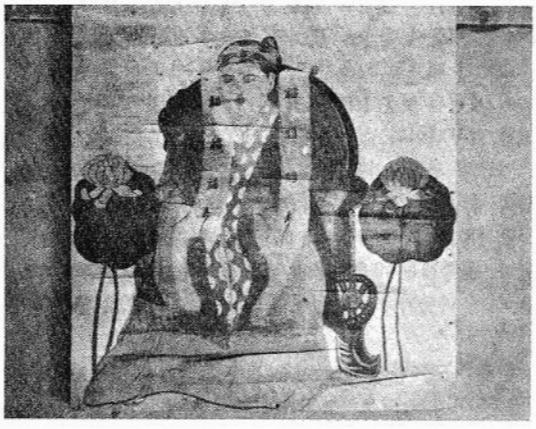
이와같이 이 고장 주민들은 성황제를 신성시하는 것을 천명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성심성의만이 부락의 안녕과 안전조업, 그리고 풍어와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본복수리중심의 성황제는 부락전체의 안녕을 복수리를 통하여 기원하며 제사가 끝나면 제주와 제관들이 도가집에 모여 지역주민들을 모두 초청하고 제사음식을 나누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풍어·풍년 한마당놀이가 흥겹게 진행된다.

또한 무당굿 중심의 성황제는 인적이 드문 깨끗한 바닷가에 굿당을 마련하고 성황을 모신 다음 제관들은 제사를 지내고 무당은 마을의 안녕과 무사한 출어조업 및 풍어를 기원하면서 각 가정의 안녕을 차례로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본부락의 성황제를 올릴 때는 반드시 소를잡아 올리며 소머리를 소라하지 않고 말이라 칭하는데 이는 성황님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고 무당의 기원이 끝나면 12가지 굿이 2일 내지 3일간 계속된다. 지역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구경을 하게되며 무당은 지역주민들의 개별요청에 의하여 마을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축원을 주는데 이를 가리켜 "지신을 울린다"라고 한다. 제사와 굿이 중반에 이르면 마을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풍어놀이가 절정에 달하며 성황제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상과 같은 대포성황제는 우리조상님들의 희노애락이 서린 정신적 유산이며 또한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인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생활의 길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85년도 속초시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시킬 의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넓고 큰 성황제의 진수를 후손들에게 맥맥이 이어줄 각오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지면서 내고장 민속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 대포외옹치고풀이

金 永琪 / 강원일보 논설위원



왕방울 같이 불거져 나온 눈망울, 우람하게 솟은 주먹코, 귀밑까지 찢어진 입술, 온갖 풍상에도 벗겨지지 않을 한 관모, 권위와 위엄, 부드럽고 익살스럽고 어수룩하고 괴기하기까지한 얼굴, 동구밖에 우두커니 서있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이들 장승은 우리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닮은 마음의 수호신(守護神)이기도 했다. 이 장승을 세우는 풍속이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곳은 東草시 大浦동 외옹치 마을과 춘성군 東山면 조양리 전치곡 마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일명 밧독재 마을의「고풀이」민속이 재현된 것은 1983년6월 제1회 강원민속경원대회에 출연한 때부터이다.

지금의 외옹치마을은 76가구 394명의 주민이 반농 반어업에 종사하는 자연 부락이다.

조선왕조 초기부터 부락제인 성황제(城隍祭)가 거행되어 왔다. 성황제는 마을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성황당에서 굿을 하며 바닷가에서 용왕에게 굿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포동 5통4반에 살고 이는 전영문(全永文 91세) 서원순(徐元順) 옹이 외옹치고풀이의 체험한 생존고증자들이다.

속초시 대포동은 원래 동해의 관문이었다. 독재(翁峙)밑에 나루가 있었으므로 옹진(翁津) 또는 웅진(雄津)이라 불렀다. 독재는 독바우 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대포 북쪽에 말처럼 생긴 산을 마산재라 한다. 여기에 조선왕조 제9대 성종 21년 서기 1490년대 성을 쌓았다. 이름하여 대포성(大浦城). 강릉 안인포(安仁浦)에서 대포영(大浦營)을 옮겼으며 수군만호군을 관장했다. 대포영의 성을 완전하게 쌓은 것은 제11대 중종15년 서기 1520년이었다. 높이 12척 둘레가 1천4백69척이었다. 대포영이 주둔했으므로 대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대포리는 양양군 도문면(道門面)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짝말, 산두꾸미, 새말짝, 청룡을 합하여 대포리라 했다.

외옹치리는 옹치(독재)의 바깥쪽이라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재, 새짝말, 아랫말을 병합하여 외옹치리라 했다. 안으로 내옹치가있고 덕산(德山)에 봉수대가 있었다.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설치되어 북쪽으로 간성의 죽도,. 남쪽의 수산에 응하게 되어 군사의 요지가 되었다. 대포동 외옹치마을은 역사적으로 해상을 지키는 수군 본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번창했다.

**외옹치의 성황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에 時祭를 올리며
부락제는 3년마다 한번씩 가을에 올린다.
지난해의 祭主가 택일하는 사람을 찾아가
제일을 정하면 그해의 제주가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을 도가로 정한다.**

풍어를 기원하고 해난사고를 당한 어민의 혼을 위로해온 성황굿이 마을이 번창하면서 부터 거행되었다. 외옹치「고풀이」는 이 성황제 풍어제의 마을행사를 재현한 것이다.

외옹치의 성황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에 시제(時祭)를 올리며 부락제는 3년마다 한번씩 가을에 올린다. 지난해의 제주(祭主)가 택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일을 정하면 그해의 제주가 부정을 타지않은 사람을 도가로 정한다. 이 도가에서 제사제행사자와 마을 어른들이 모여 제사비용을 결정한다. 도가에서는 목욕재계하고 쌀 3되로 신주(神酒)를 담가 성황당 가까이 묻고 금(禁)줄을 쳐서 청결하게 준비한다. 사방네곳과 도가앞 +자형으로 황토를 뿌린다. 이때부터 제주 제관 도가에서는 외출을 삼가하며 잡인의 출입을 막고 근신한다.

한편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기 위해 마을의 장정들을 뽑아 산으로 보내 알맞은 나무를 베어 도가까지 옮겨온다. 도가까지 나무를 메고 올때는 신가(神歌)를 부르며 잡귀를 쫓고 흥을 돋군다. 도가에서 숫장승 암장승을 정성들여 조각하였다.

부락제가 베풀어지는 하루전날, 마을 북쪽 어귀에 장승을 세운다. 부락제가 시작되는 아침에 대장이를 선두로 제주와 제관이 앞장서고 무당이 뒤따라 숫장승으로 지신(地神)을 밟으며 가서 제사를 올리고 굿을 한다. 대에 골메기 성황님을 외치면 신내림을 받게되고 다시 암장승으로 몰려가서 숫장승 앞에서와 똑같은 제사를 올리고 굿을 한다. 암장승의 신내림을 받게 되면 장승제는 모두 끝난다.

암수두장승을 모시고 산위에 있는 성황당으로 올라간다. 외옹치의 성황당은 숫성황이기 때문에 암장승의 신(神)만을 안치한다. 그때 지신 밟기로 흥을 돋군다.

성황당에서 굿판이 벌어진다. 마을의 안녕과 질병의 예방, 풍어와 부귀영화를 기원한다. 성황제는 사흘 밤낮으로 베풀어진다. 제물로는 황소 한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바친다. 암소와 감은소 그리고 돼지는 쓰지 않는다.

시루떡 한말과 삼색 과일과 기타 제물을 차린다. 쌀 한말 중에서 3되는 신주(神酒)를 담그고 6되는 시루 떡을 하고, 1되로 메를 짓게 된다.

부정굿, 천왕국(성황굿), 조상굿, 칠성산신굿, 세존굿, 장군군웅굿, 성주굿, 손님굿, 제변굿, 꽃굿, 등놀이굿 뱃놀이굿등 열두거리의 굿으로 성황제를 마친다.

나흘째 되는 날 오시(午時)부터 용왕제가 베풀어진다. 이때 제물은 새로 마련한 굿을 차린다. 무당이 방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소지(燒紙)를 올리고 집집마다 복을 빌어준다.

동네의 소지를 올리는 것이 끝나면 바닷가로 나가서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굿을 한다.

위령굿으로 할때 무당은 바닷가로 나와 큰 원을 그리며 죽은자의 혼을 부르면서 춤을 춘다. 흰 천으로 죽은자의 혼길을 낸다. 이때 왕무당이 손에 연꽃을 들고 흰 천을 가르면서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른다. 초혼의 노래와 춤이 절정에 이르면서 사자(死者)의 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용왕굿, 거리굿, 오구굿 등으로 이어지는 용신제(龍神祭)는 이때 마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

고풀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서 외옹치 마을에는 석양이 비친다.

「외옹치고풀이」 민속은 장승세우기와 성황제 용신제로 구성되어 부락제의 고유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장승은 長牲, 長生, 長承, 將亟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실로 韓國的인 풍물이 되었다.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의 장승과 이정표로서의 장승으로 나눌수 있는데 외옹치의 것은 전자의 기능을 가졌다.

번개와 천둥, 홍수와 지진, 역병과 재앙, 풍랑과 해일로부터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장승을 깎아 세웠다. 그 모습이 괴엄(魁嚴)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얼굴로, 그 모습이 괴자(魁慈)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얼굴처럼 보인다. 장승의 표정은 그러나 자유롭다.

장승을 만드는 마을사람이 기예(技藝)나 예술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명(無名)의 손길이 닿아 신명나게 양각되고 음각되어 하나의 신상(神像)이 되는 것이다.

망망한 동해바다를 내다보면서, 장엄하게 연이은 태백산맥을 쳐다보면서 외옹치 마을의 장승은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다독여 주고 있다. 밧독재 마을의 안녕과 풍어와 평화의 수호신이 되었다.

이 글은 1986년 2월 10일자 강원일보에서 전재한 것임.
-편집자 注-

# 대포의 어제와 오늘

대포는 속초시의 관문이며 영북지구 제일의 어업 전진기지이다. 총면적 371ha(약12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622가구, 2566명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외옹치 내물치, 대포의 3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은 즐비한 횟집들로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오늘의 대포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포는 우리 고장의 뿌리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 대포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本誌 池一權 편집주간이 대포를 지키는 몇몇 人士들을 만나 대포에 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 軍事의 요충지 대포

*대포라는 地名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인근에서는 제일 큰 갯벌이고 큰고기가 많이 잡히니 그렇게 불리웠겠지요.

-어떤 사람은 조선조때 수군만호군인 대포영이 들어섰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수군만호군이란, 제가 알기론, 지금의 민방위 체제와 같은 민관합동 방위 기구로 임진왜란 전까지 존속했었읍니다. 그 기구를 관장하던 곳이 영(營)인데 영 이름은 지명을 따서 붙였읍니다. 대포영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포라 불리웠던 것이 아니라 그반대지요.

*그렇다면 대포가 군사 요새지였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옛부터 대포는 군항(軍港)이었읍니다.

-기록에 보면, 15세기 말엽 대포북쪽에 높이 약 3.6m, 길이 약445m의 대포성을 쌓았다고 하니 군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던 지역인 듯 합니다.

-대포 북서쪽에 있는 언덕위엔 봉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터는 남아 있지요. 이 봉화가 위로는 간성의 죽도, 아래로는 양양의 수산에 응했었읍니다.

-대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 군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대포는 실질적으로 이 인근지역의 중심지였겠군요?

-구한말인 1908년 행정개편때, 靑大山을 중심으로 이남은 도문면, 이북은 소천면으로 나뉘었읍니다. 도문면은 도문, 대포등 6개 里를, 소천면은 속초 논산등 5개 里를 관할했었읍니다. 한일합방이 되고 난 1912년 이 두 면이 도천면으로 병합되면서 그 면사무소를 대포리에 두었읍니다. 따라서 우편소, 주재소, 보통학교등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어 명실공히 이 고장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대포의 어제와 오늘"에 관하여 대담하고 있는 池一權주간과 지역유지들

## 항일운동의 본산지 대포

*일정때는 대포가 항일운동의 본산지였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는 雪樵 이석범을 들 수 있겠지요.

이석범은 어린 시절을 도천면 도문리에 보낸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고종 임금때 軍部主事 및 中樞院 議官을 지낸 분입니다. 한일합방후 낙향하여 있다가 3.1운동 직전까지 도천면장을 잠시 역임하기도 했었지요.

1927년엔 李商在등과 新幹會라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을 창설하고 강원도 지회장에 취임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면서 이 고장 사람들에게 항일 정신을 고취시켰었지요.

그러던 중 고종 임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마침 그를 계기로 불붙은 3.1운동을 목격하게 되지요. 3월 하순경 내려올 때 독립선언서 등의 문헌을 버선속에 숨겨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李能烈을 내세워 도천면 도문리의 시위운동을 주도하게 하고 자신은 양양군의 행정중심지인 양양면으로 자리를 옮겨 행동하지요. 그러나 불행히 이 지역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4월3일 일경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읍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은 여전히 격렬했읍니다.

양양읍에선 만세시위를 하다 피살된 金學九열사의 장례식을 계기로 도천면, 강현면, 서면 일대에서 불붙은 항일 시위는 당시 일경들이 이 대포항을 통해 피신해 갈 정도였읍니다.

—4월4일부터 5일간 계속된 그대의 만세운동엔 모두 12명이 피살되고 50여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왜경들에게 잡혀가 고초를 당한 사람은 수도 없구요.

—그후 윤선을 타고 많은 항일 투사들이 이곳을 떠났지요.

## 소외당하는 대포

*面소재지가 이곳 대포에 있었을 만큼 이곳은 東草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겠군요.

—부산에서 원산까지 항행(航行)하던 윤선이 포항과 이곳 대포를 경유했었으니까요.

—동란때 군사작전지도에는 대포항, 대포비행장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정도지요.

—포항제철이 서기 전까지만 해도 양양 광석이 이 대포항을 통해 이동되었지요.

*하지만 동란직후, 대포는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았읍니까?

—속초리로 면사무소가 옮겨가고 그후 읍으로,市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대포는 점차 소외되어 왔지요.

—여기에 수도나 전기가 들어온 것도 불과 10년 정도입니다.

—제가 피난와서 정착할 무렵만해도, 이곳엔 2—3톤 규모의 무동력 목선이 30여척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엔 주로 청어, 정어리, 도루묵, 명태, 오징어 등의 어족들이 주생산품이었지요.

## 횟집가로 부활한 대포

*이제 대포하면 곧 횟집을 연상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곳에 횟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읍니까?

—지금 횟집들이 즐비한 그곳은 20년 전만해도 판자집이나 창고들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는 공유수면이었는데 자연매립되어 모래사장이 되었죠. 그후 市가 이곳에 횟집을 짓고 불하한 것입니다.



*이곳에 횟집가가 형성된 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이 일대 활선어들은 모두 이곳 대포에서 위판됩니다. 고성 가진(加津)에서부터 양양 수산(水山)에 이르는 인근 해역의 정치망어선들이 모두 여기를 통하지요.
*정치망 정박지가 속초항이 아닌 이곳 대포항이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천연항구로서 정치망의 적격지라는 것이 그 첫째 이유겠지요.
—이곳에서 정치망이 시작된 것은 20여년전 남규철(삼해수산 대표)씨가 처음입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활선어의 개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횟집가를 형성하게 된 사실상의 공로자죠.
*현재 횟집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에서 으뜸간다고 자부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청청해역의 싱싱한 회라 맛도 그만입니다.
—아침엔 인근의 콘도미니움, 여관 등에서 생선구입을 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오후엔 모여드는 외지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횟집수가 모두 17개입니다.
*숙박시설은 어떻습니까?
—여관은 없고 민박 지정 가옥이 다수 있지요

## 자립하는 대포

*대포 위판장의 어획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85년에 25억원에 달했읍니다. 그중 정치망 어획고가 14억원인데 노임만 2억8천만이 풀릴 정도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소득증대엔, 어촌계의 역할도 크다고 하던데
—법인 어촌계 중에서 전국 최고입니다. 위판고, 여신고, 예금고 등이 단연 앞서지요. 대출액만 7—8억에 달하니까요. 정부지원 없이 완전 자립해 있읍니다.
—최근에 전복양식 등으로 새로운 소득에도 눈을 돌리고 있읍니다.

## 대포를 보살피는 성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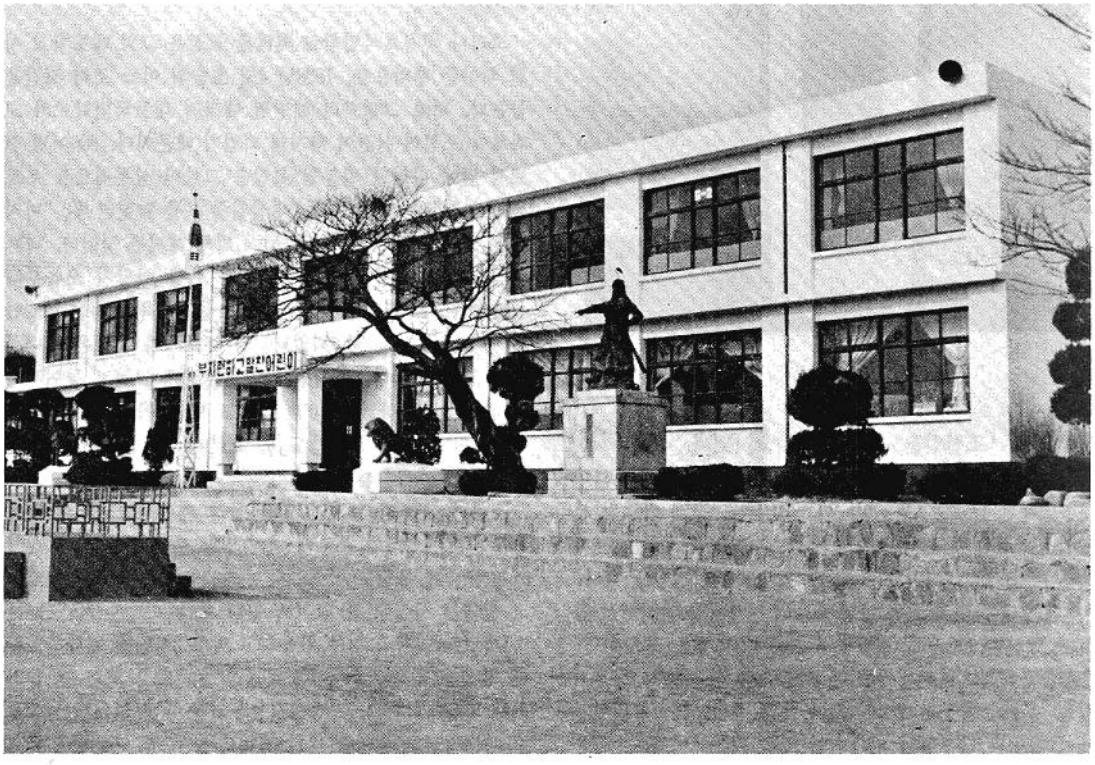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탓으로 옛부터 성황제, 풍어제 등 독특한 민속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 조업과 풍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또 부락전체의 안녕을 위해 많은 제례행사가 있지요.
형태와 시기는 부락마다 조금씩 달라서 외옹치 부락의 경우는 제비가 오고 가는 음력 3월3일과 9월9일에 대포부락은 보통 10월초순, 내물치부락은 3월3일과 10월 초순에 각기 성황제를 올립니다. 또 3년에 한번씩은 부락제도 올립니다.
—대포부락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성황당과 할머니성황당이 각기 따로 있어, 규모가 다른 부락에 비해 큰 편이지요. 대포성황신은 마을과 바다가 동시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따로따로 모시고 있지요.
—외옹치 부락제의 경우도 숫장승과 암장승을 따로 세워 지신밟기를 하며 마을의 액운을 쫓지요.
—제주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고령자 중에서, 제관은 지역 유지들로 구성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집은 "도가" 라 하는데 특히 화목한 가정을 택합니다.
—제1회 강원민속예술경연때(83년)에 외옹치 "고풀이" 풍어제가 출품되기도 했고, 지난 설악제 민속예술경연때는 대포부락의 성황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감사합니다. 대포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주시는 덕분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포의 앞날도 밝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랜시간 수고하셨읍니다.

---

취재 : 池一權(본지편집주간)
도움말 주신분 : 南圭哲(삼해수산대표), 金三吉(노인회장) 李泰根(개발위원장), 全光秀(대포횟집) 李建錫(지방행정동우회장), 오정기(대포동사무장)
정리 : 최재도

# 수난의 70년 대포 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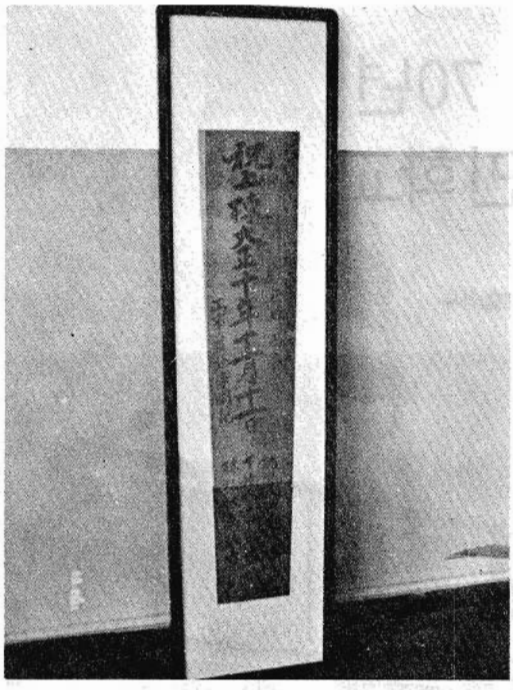
최 재 도／本誌편집간사



한일 합방이 되고 9년째 되던 해 4월은 襄江之風이라 불리던 거친 봄바람과 더불어 한일운동의 바람 또한 거세게 이 마을을 휩쓸고 있던 때였다. 저 유명한 李錫範장군이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왜경들에게 체포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고 도천면과 강현면 일대의 주민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본격적인 항일시위를 벌이던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즈음 이 마을 양지바른 언덕에 교실 4칸의 아담한 학교가 세워져 새로이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개교행사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그 다음다음 날 애국투사 金學九장례식을 계기로 시작된 항일시위에 가담, 십수명이 현장에서 피살되고 50여명이 부상했으며 그외의 많은 사람들이 왜경들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도천면의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민족운동으로 기록되어 진다.

굴곡 심한 한 시대의 격동기를 가로질러 오면서, 그러나 70여년간 무수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잠시도 소홀함이 없었던 양양군 도천면 대포리의 「대포공립 보통학교」는, 출발부터 이런 시대적 아픔을 함께 지켜 보아야만 했던 것이다. 개교 당시 학교 규모는 4년제 2학급과 강습소 1학급. 입학금은 1원, 월사금은 50전씩이었다. 보통 열살이 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20—30리 길을 걸어 통학을 했다. 공책은 구경도 못하고 한 장에 3전하는 백한지를 칼로 잘라서 만든 이른바 「잡기장」을 썼다. 이 학교 3회 졸업생인 이인영옹은 당시 쑥대연필이 1본에 2전, 도화지가 두장에 1전씩했다고 기억한다. 李옹의 기억에 의하자면, 金馬莊平이라는 초대 일본인 교장과 김직익, 남필순, 서재선, 경



**대포국민학교는 70년동안 우리고장의 보통교육을 담당해 왔다. (사진은 건립당시 대들보)**

종구 등의「조선인훈도」가 그당시 교사였다.

4년제로 개교되긴 했으나 1923년 다시 6년제로 승격되어 첫졸업생은 1926년 3월20일에야 배출된다. 현재 확인된 첫 졸업생은 어명덕(고성군 토성면 작야리, 농업)옹을 비롯하여 60여명 정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20여명이나 된다.

1920년대에 이 학교를 다닌 분들의 대부분은 현역에서 물러나 있지만, 모교의 지난달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하다. 金鍾權옹(7회·현서울거주)은 복골에서 대포까지 시오리 길을 여덟살 때부터 걸어 다녔는데 칠십이 넘는 할머니가 오리 넘어나 나오셔서 기다리던 일을 회상해낸다. 金옹은 또, 2학년 때 학교위로 떠가는 비행기를 처음 보던 일, 3학년 때 활동사진(무성영화)을 처음 구경한 일, 4학년때 무한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연구하면 달나라나 별나라도 잘 알 수 있겠다고 대답하던 일, 5학년 때 산을 헐어 바다를 메우면 강토를 일본까지 넓힐 수 있겠다고 설명한 일등을 특히 기억한다.

1930년대에도 대포국민학교는 여러차례의 변혁을 맞는다. 1936년「대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며 3년간의 소학교 시절을 거친 후, 1939년 조선총독부 국민학교 교육령에 의해 오늘의 대포국민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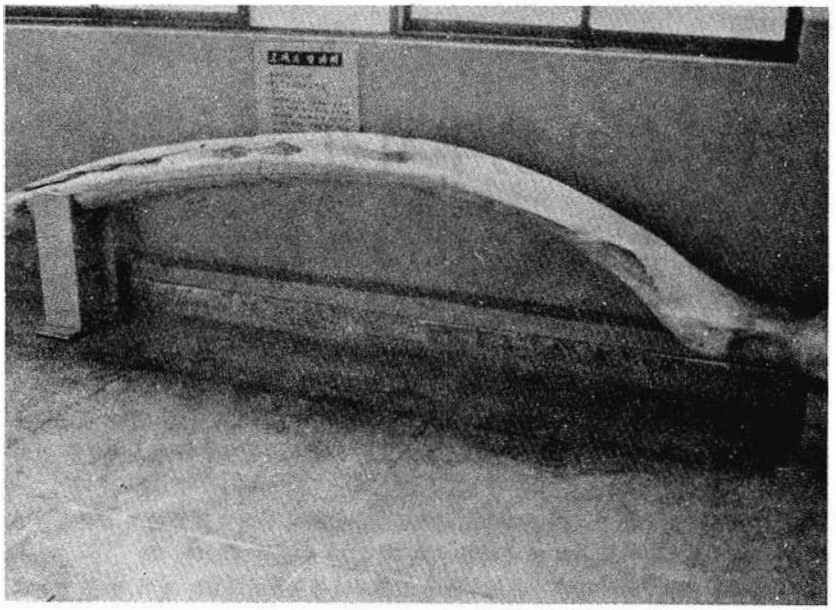
1930년대에 이 학교를 다닌 김동수(12회)씨는「금야」라는 일본인 교장을 기억해 낸다. 학덕을 겸비한 인격자였단다. 남녀공학이긴하였지만 여자는 불과 5-6명 정도였다 한다.

그러나 現청호국민학교 吳世夏 교장은 그의 대포학교 시절 뼈아픈 추억으로, 1938년 4월 초순의 어느 조회 시간을 꼽는다. 바로 그날부터 해방될 때까지 대포국민학교의 교과목에 조선어 시간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00여명 전교생 앞에 나타난 일본인 교장은 그들이 상투적으로 부르짖던 성전완수, 정의필승, 내선일체 등을 역설한 후,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어 교육은 법에 의해 폐지될 것이다. 나는 선견지명이 있는 고로 우리학교는 이를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했다.(실제로 조선어교육 폐지는 193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오세하 교장은 열다섯살로 5학년이었다. 담임인 박대원선생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방성통탄하였고 70명 급우도 따라 목놓아 울었다한다. 하지만「훈도」도「생도」도 조선어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선어 교육은 일본인 교장 몰래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급장인 오세하씨는 통로에 나가 망을 보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글을 후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격해 왔다 한다.

1학년 국어책을 전부 암송하고 바로 2학년에 입학하였다는 장동환(10회), 현속초문화원장 金容龜(12회), 전 국회의원 박영록(14회), 지방행정동우회장 李建錫(14회), 속초시장을 역임한 金明漢(14회)씨등도 모두 이 시절에 수학했던 분들이다.

1940년대에도 대포국민학교의 시련은 계속된다. 이 나라 허리, 위도상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탓으로 분단의 비극마저 최일선에서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해방과 함께 이른바 인민공화국 시절을 맞아 이 학교도 "대포인민학교"로 개칭되면서 학제도 5년제로 변경된다. 이후 이 학교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장으로 활용된다. 학교운동장에 모여앉아 인민군가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포학교는 가슴아파한다. 이 시절엔 기록조차 부실해서, 교장이 吳泳文이었다는 것과 부설로 있었던 주봉간이 학교(도문동 소재, 전 외설악국민학교)가 본교로 승격되었다는 것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시절이 대포학교 최대의 암흑기였으리라. 소년단이 조직되고, 자아비판과 인민재판의 광장으로 활용되었을 테니 말이다.



**대포앞바다에서 포획된 고래의 갈비뼈. 대포국민학교 중앙통로에 보관되어 있다.**

이 상처는 1950년대에 가서야 치유된다. 5년간의 적치에서 신음하던 대포국민학교는 1950년 10월10일 아군 진주로 그 광경을 되찾는다. 이때 교장은 李時行. 이 학교 7회 졸업생이고 학교가 개교되던 무렵 왜경들에게 끌려갔던 李錫範장군의 손자이다.

비록 학교는 전란으로 소실되었지만 천막수업으로 버티어 나갔다. 1954년 대민원조(AFKA)로 교실 6칸이 신축되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교육령에 의해 운영된다.

50년대에 이 학교를 다닌 김자동(35회, 공무원)씨는, 그래서 그 시절의 봄을 유난히 기억하고 있다. 校誌 "추억의 샘"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삼라만상이 생동하는 계절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동산의 푸르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굳은 의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로 오늘의 대포국민학교를 의미한다. 그 숱한 역경을 이겨냈기에 오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한다. 지금의 평온하고 아담한 모습은, 그 시련 속에서도 배움의 터전만은 잃지 않으려는 이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일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979년 4월, 이 학교 동문들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추억의 샘"이라는 교지를 펴내며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60년간 세월이 온통 시련으로만 점철되었기에 동문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전직국회의원, 市長, 각급학교장, 각종사회단체장, 학자, 은행가, 실업가등 경향각지에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모두 얼굴을 나타내자 이 모임을 추진했던 김용기(3회)옹은 "철부지 아이였던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 변해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동창회장 안태순씨도 "내가 다니던 학교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다닌 학교를 내 손자가, 내 손자가 다닌 학교를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다닐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에도 대포국민학교는 12학급 414명의 조촐한 모습 그대로이다. 운동장의 놀이 기구라곤 철봉과 평행봉 하나뿐이다. 교직경력 41년째인 金珣卿 현 교장은 연 26대. 84년에 이 학교로 부임해 왔다.

교직원 수는 17명. 현재까지 총졸업생수는 3,700여명. 농악시범학교로, 80명의 농악대원들이 우리고장 축제에는 빠짐없이 참가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대포국민학교는 이 마을, 나아가 이 나라 最近世史 바로 그 자체이다.

우리가 대포국민학교를 아끼는 이유도 우리고장의 유력인사 대부분이 이 학교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그가 대신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내가 記憶하는 大浦學校時節

# 가난속의 幼年시절

金 容基 / 노인회장

67年前으로 거슬러 올라가 為先 母校의 沒蕖을 大略 적어야겠다. 1919年 4月 1日에 大浦公立普通学教로서 初代 田中半次郎校長이 金振翼先生님 南必淳先生님 등과 함께 開校한 것으로 生覺이 된다. 當時는 行政區域이 襄陽郡 道川面 大浦里였다. 大浦는 東海岸에서 元山港 버금가는 항구로서 嶺東地域 一帶의 모든 日常生活 必需物資가 大浦港을 거쳐 交流되는 関門 役割을 하던 곳이다.

母校는 大浦港을 形成한 圭峰중턱에 南向으로 雪岳靈峰이 굽어보고 東海 푸른물결이 넘실거리는 山紫水麗한 無限히 뻗어 나갈 大地(明堂)에 位置한 学校다.

64年前 우리在学時節의 校舍는 捨餘年前에 改築되어 옛모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데 늙어가는 벗나무 세그루가 過去를 속삭여줄 뿐이다.

回顧하니 나도 母校 校廷에 발을 들여 놓았던 것이 於焉 64年前 일이다. 3학년이 되던 해 당시 담임 선생님은 나를 유달리 사랑해 주시던 南必淳先生님이시었다. 進級하여 4, 5일후인듯 기억도 희미하지만,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4학년에 약간명을 충원키위한 시험을 치르겠으니 희망자는 손을 들어 보라했다. 나는 비위가 얼마나 없었던지 전후좌우를 살펴본즉 나보다 성적이 못한 사람들도 손을 들었었더구만 나는 머뭇거리고 손을 안들었더니 선생님께서 호통을 치시기에 하는 수 없이 손을 들었었다. 그랬더니 손을 든 중에서 6명을 지명하는데 나도 그중의 일원으로 끼었었다. 운동장에 나가놀다가 다시 종을 치거든 이 자리로 모이라는 주의를 듣고 나갔는데 어떤 친구는 그까짓것 문제가 어렵거든 작떼기나 썩썩 그어놓고 말자고 축죽거리는 순간에 종소리가 나기에 몰려 들어갔었다.

시험문제를 두루 살펴보니 그리 어려워보이지 않아서 친구의 충동도 아랑곳없이 정신을 바짝차려 답안을 정성껏 써내었다. 선생님께서 다시 또 교정에 나갔다가 부르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 잠시후 3명을 부르는 중에 나도 끼었었다.

껑충껑충 뛰어들어 갔더니 내일부터는 4학년교실로 가라는 말씀이었다. 이 기쁨을 부모님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 치솟았다. 학교서 釘岩里까지 십리길이 넘는데 유달리 발걸음도 가벼웠었다.

집에 도착하니 春季清潔検査준비에 흙질하시느라고 바쁘신 아버지 어머님께 내일부터는 4학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입학식때 참여후 다시 가보신 일이 없는 촌양반들 기쁨을 감출 줄 모르시든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다음해 3月 하순경(당시 4년제 졸업이었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道에서 5, 6学年연장승인이 났으니 학업을 계속할 사람은 내일 다시 등교하여 재시험을 치라는 광고였다. 기쁜 마음을 감출 바 없어 집에 돌아오자 그 소식을 아버지 어머님께 고하였으나 가정형편상 계속시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배움의 희망이 좌절되자 답답한 심회를 무엇으로 달랠 길이 없었다. 당시 우편국 통장에 1원이라는 잔고가 남아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것도 찾을겸 학교에 가서 담임이시던 정종구선생님께 그 뜻을 전하였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가정형편이 그렇다니 하는 수 없지 하시면서 퍽 섭섭히 여기셨다. 그리던 순간 진학시험치를 시간은 다가와 동료들은 정들었던 4학년 교실로 4학년 교실로 줄지어 들어가는 데 나는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이런 슬픈 정을 나누었다. 정선생님께서는 "하는수 없지, 너의

**교정은 고요한데 한 구석에서 마냥 울었다.
얼마후 눈물을 거두고 우편국에서 1원을 찾아서
홧김에 다 쓴다는 속셈이었는데 그렇게도
먹고싶던 "모찌떡" 몇개를 사먹어 보니까
또 아까운 생각이 앞섰다.
학교에 못다니게됨도 돈때문이라는 생각에…**

형편이 풀리는대로 학교에 다시오면 언제든지 편리를 보아 진학의 길을 인도해주겠다"는 굳은 약속의 언지를 주었다. 동료들은 교무실에 서있는 나를 자꾸 힐끔힐끔 보면서 지나간다. 선생님도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순간이다. 작별인사를 고하고 나오는데 몇몇 친구는 문턱에서 기다리다가 교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야!" 소리치며 빨리 들어오라고부른다. 나는 달려가서 집 형편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먹이자 친구들도 천만뜻밖의 일인듯 어리둥절한 모습들이었다.

거기서부터 그 시험장을 들여다 보려니 왜 그다지도 부끄러운 생각이 앞을 가로막던지 울음보를 터뜨렸다. 교정은 고요한데 한 구석에서 마냥 울었다. 얼마후 눈물을 거두고 우편국에서 1원을 찾아서 홧김에 다 쓴다는 속셈이었는데 그렇게도 먹고싶던 "모찌떡" 몇개를 사먹다 보니까 또 아까운 생각이 앞섰다. 학교에 못다니게됨도 돈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따라 그렇게도 가볍던 다리가 왜 그다지도 무겁고 둔하던지 허둥지둥 집에 들어서자 먹는 것도 잊은 채 방 한구석에 늘어졌다. 이튿날 아침 이웃친구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니 타오르는 애성이 억제가 안된다. 사방벽을 차고 탕란질을 치며 울고울고 울어도 신통한 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해돋자마자 들에 나갔다가 저물녘에야 돌아오셨다. 퉁퉁부은 눈모습을 보시더니 타이르기 시작하셨다. "집 형편이 이러니 1년만 소먹이며 서당에나 다니다가 명년쯤 심폭이 펴이면 다시 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씀이었다. 철없을 적 일이었지만 칠남매를 두신 부모님 마음인들 오죽하시려니하고 말씀대로 순응하였다. 다음해 봄돼서야 학교를 계속하라는 반가운 승락이었다.

4월에 5학년에 편입 교우들의 반김은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도 반가와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른다. 6학년 졸업하던 해도 졸업을 1주일 앞두고 양양모범원으로 가게 되어 그 경위를 정종구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지사상을 네가 타게 되었으니 졸업식날만은 꼭 참석하라"는 당부였다.

이렇듯 재학시절 가난의 역경 속에서 허덕이며 천신만고끝에 겨우 보통학교과정을 이수했던 것이다. 나의 初年시절 배움의 의욕은 가정환경에 사로잡혀 채 피기도전에 시들어지게된 것에 너무나 恨도 많았다.

이제 斜陽길에 접어 들어 過去를 회상하니 當時思師님들 母校의 守護神役을 하시던 金振翼先生님 鄭鍾龜先生님들은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욕도 모르고 오직 국민학교에만 전념하시던, 忠 孝 禮에 투철하시고 인자하시며 민족주체의식을 심어주시던 老스승님들은 이미 몇해전에 이 世上을 떠나셨고 共中에 孫鎔甲先生님만은 生存해 계시다는데 連絡이 끊어져 無限히 궁금하다.

나는 思師님들에게 욕이나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왔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을 금치 못하며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 내가 記憶하는 大浦學校時節

# 푸른 가을하늘 아래의 운동회



李 建錫 / 지방행정 동우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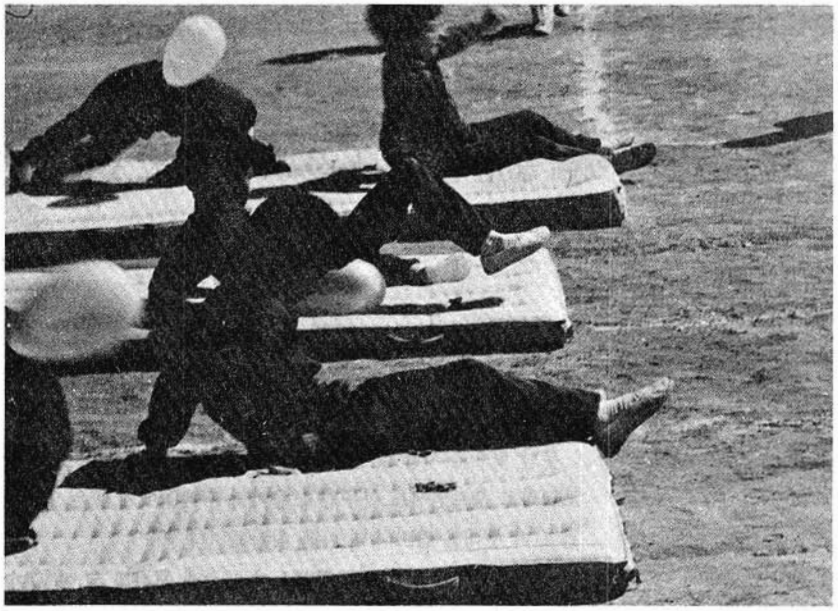
설악산기슭 道門 한 촌의 가난한 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문서당에 두서너해 다니다가 철부지 어린시절 6년간을 몸담았던 국민학교생활을 회고해본다.

그리운 과거의 추억보다 가난에서 오는 괴롭고 찌들었던 어린시절의 범백사가 흘러간 주마등처럼 눈앞에 아물거리니 그때가 어언 반백년전 일이다. 요즈음 국민학교 아동들의 발랄하고 기름기 흐르는 풍성한 모습들 위에 나의 메마르고 초라했던 그 옛날 그 시절을 가끔 맞비추어 본다. 지금도 간혹 학교옆을 지나는 기회가 있으면 한참동안 멍청히 서서 학교전경을 바라보고 뛰노는 아동들을 훑어보며 그 옛날 어린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상념에 잠기고는 한다. 그러나 철부지에 순진하고 소박하나마 희망에 꿈도많던 그 시절 그 추억 속에서 그리움과 함께 천만금을 주고도 다시 살 수 없는, 잊혀지지 않은 일들이야 어찌 한두가지랴만은 지면의 제약으로 이번 기회는 푸른 가을하늘아래 펼쳐지던 가을 대운동회를 회고하여 흘러나오는대로 이 지면에 남기려 한다.

옛날 그 당시엔, 어느 지역이나 학교를 막론하고 1년에 단한번의 그 지역 국민학교 가을대운동회가 가장 크고 화려한 지방대행사였기에 학교자체의 큰 잔치라기보다는 통학구내 온주민들의 들뜬 축제일이었다. 원래 타고나기를 운동신경이 둔하고 예나 지금이나 운동경기하고는 별로 소질과 인연이 없는 나로서는 재학 6년의 6회의 운동대회에 그 흔한 1, 2, 3등의 상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남들의 상타는데 들러리 노릇이나 하고, 상타는 학우들을 부럽게 바라보던 쑥쓰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참여였지만 그래도 손꼽아 기다리고 즐거워 들뜨기만 했던 것이다. 지금도 눈앞에 아물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짜릿하도록 그립고 그리운 추억이다. 운동장사방에 흰 선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솔문을 틀어 개선문을 세우고 만국기를 사방에 높이 드려 놓은 아래에 축제분위기 일색의 운동장에서 푸른 가을 하늘과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중추호시절의 하루해를 학부모를 비롯한 남녀노소함께 어울려 목이 터지도록 응원가를 부르며, 신바람나게 즐기던 그 시절 그 광경 그 추억을 그 누구인들 잊으랴. 상복마저없는 나로서는 상타는 경기보다는 홍백전이나 단체경기가 오히려 초조하지 않고 부담감없이 마음편해서 더 즐겁고 신나기만 했다.

1학년에 입학하던 날 함께 학교에 단 한번 간 후로는 얼굴한번 내 비치는 일이 없던 부친께서도 운동회날만은 나오셔서 유일한 후원자 또는 후견인이 되어 주셨다. 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서도 냉면이나 엿, 과자류를 훌쭉한 담배쌈지주머니 속의 몇푼동전까지 털어 사주시는 바람에 원래 둔한데에다 식성만은 왕성하였던 탓에 과식만복으로 인하여 경기에 더욱 큰 부담을 준 일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미련하고 쑥쓰럽고 어리석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늘에 비하면 그때의 교사나 운동장이나 시설이 너무 초라하고 협소하였지만 그때의 어린 눈에는 그렇게 학교가 크고 운동장이 넓기만하고 선생님들 또한 훌륭하게 돋보이고 우러러 보이기만 했다. 다양한 여러가지 경기를 위하여 개선문인 솔문을 출입하면서 비록 경기에 패하고 나오면서도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양 운동모를 제쳐쓰고 목에 힘주어 가슴을 제치며 팔을 휘둘러 우쭐거리는 것이었으니 악의없고 가식없는 그 시절의 동심에 고소를 금할 길 없다.



한가지 운동회와 곁들여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매년 운동회 때만 되면 부친은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1호로 우등생이 되면 운동회날 운동장 한복판에 뛰어들어 춤을 덩실덩실 추겠다. 그러면 장내 많은 사람들은 "저사람 왜 저러느냐"고 물을 것이고, 그러면 내아들이 1호우등생이라서 그런다고 크게 외칠 것이다."를 6년간이나 판에 박은듯이 매년 되풀이 하셨건만 타고난 재주도 신통치않고 노력형도 못되서 우등생은 고사하고 그 부근에도 접근치 못했으니, 아들이 우등생이 되면 운동장을 돌면서 경기에 방해가 되더라도 춤한번 크게 추는 것이 유일한 꿈이요 바램이던 어버이의 염원과 한과 간절한 소망을 영영 풀어 드리지 못한 채 정든 교문을 떠난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다.

근래 한동안 사라졌던 각국민학교 가을운동회가 다시 부활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 운동회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극복 타개하여 꼭 성대하고 화려하게 존속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학교당국이나 모든 학부모에게 간절히 조언 드리고 싶다.

운동회로 인하여 아동의 지능발전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단체정신을 기른다는 교육목적도 중하려니와, 젊어서는 꿈을 안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더듬고 산다는 말처럼 먼훗날 모든 사람들의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거리를 간직하도록하는 바램에서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이런 심정은 비단 나 한사람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약 력
○속초시 재무 사회 새마을 산업과장
○양양군 감사 내무과장
○82년 서기관으로 명예퇴임
○현재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속초시 사회정화추진협의회 부회장
총무처 행정상담위원
강원체신청 협력위원

■ 내가 記憶하는 大浦學校時節

# 애국충절을 위한 산교육 학 예 회



金 正 祐

글을 쓰려고하니 반세기전 나의 대포학교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내 마음 속에서 피어 오른다. 머리를 든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해 보게한다.

못난 탓으로 지금껏 떳떳하게 모교라고 한번 찾아가 보지 못하는 나의심정 얄미웁고, 모교라고 부르면서도 아무런 도움이나 후배들에게 좋은 일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이 부끄럽고 이 붓대를 잡으니 내 마음 착잡해진다.

또한 아직까지 선후배 동창생들이 생존해 계신데 혹 이 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바로잡아 주면 고맙겠다.

내가 학교다닐 때 학교행사로는, 매년 가을에「운동회」가 베풀어졌고, 농산물「품평회」가 열렸으며, 봄에 한번 전교생들이「소풍」(당시는 '遠足'이라고 하였음)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단지 6 학년만은 소풍대신 가을에「수학여행」이라고하여 명산이나 고적지 등을 탐방하였다.

필자도 6 학년때 수학여행으로 서울 구경을 갔다 왔다. 그때 눈으로 보고 느낀 것 중에서「창경궁」을 구경한 것과 서울 야시장관람 극장에 가서 선생님 몰래 본 영화 화면, 그리고 和信 백화점 4 층 위에 올라가 서울 거리를 전망하던 것이 특히 추억으로 남는다. 4 층짜리 和信 상점을 높은 건물로 쳐다 보던 나의 어린 시절, 60층 30층 건물들이 줄비한 오늘의 서울과 비교해보면 한낮 옛 꿈을 꾼 것 같아진다. 서울의 南山에도 올라가 보았고 京元線과 東海北部線 (元山 – 양양간) 기차를 타고 여행함이란 참으로 즐거웠던 추억담이 된다.

"大浦"하면 이 고장(강현면 토성면 도천면) 지방 문화의 중심지였다. 은행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당시 우편소) 경찰 파출소가 있고 소방소가 있고 면사무소(면사무소는 바로 대포학교 뒤 높은 지대에 자리했음)가 위치해 있었다. 특히 6 학년까지 배울수 있는 학교는 大浦公立普通學校 밖에 없었다. 강현면에 4 년제, 토성면 天津에 4 년제 학교가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강현, 천진 학생들이 4 년을 졸업하고 대포 학교로 전학해 오곤하였다.

당시 속초에서 대포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오늘의 도선장(갯배)를 타고 속초시 청호동 ( 당시 청호동은 모래밭이었고 조양동쪽 언덕바지에 소나무밭이 있었음) 길을 책보를 둘러 메고「갯배」머리서부터 대포「성황당」고개(지금 조양동 주유소에서 남쪽 까스저장 주유소가 있는 곳) 까지 단숨에 달려 마라톤 연습을 한답시고 등하교를 하였다. 속초가 개발될 초기는 지금 제일극장에서 바다쪽으로 청호동「방파제」토목 공사를 하기 위한 밀(손수레) 다니는 철길 다리가 있었는데 연중 한두번 폭우가 쏟아져



내려 갯배가 못건너 다닐때는 그 철길다리를 보행자들이 이용하였다.

(평상시는 공사관계로 그 다리 이용이 안됨)지금 금호동, 교동을 거쳐 쌍다리를 지나 조양동을 순례하는 교통망이 설치되기전 옛 이야기이다. 당시 도선장을 운영하는 운영권은 3 년마다 면사무소에서 입찰을 보았으며 그 권리를 얻은 사람은 그 기간동안 모든이용자와 차량(뻐-스, 화물트럭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았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집에서는 1 년에 한번씩 쌀이면 한되, 잡곡일 경우 3 되씩 걷어 갔다. 그후 1930년 중반 高城에서 襄陽까지 汽車 노선이 연장 운행되자 통학을 기차로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필자도 상급반때 궂은날이면 기차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당시만 하여도 속초는 어항 부락으로 영세민 자녀들이 많아 기차 통학은 못하고 특별한 때만 이용하였다.

大浦학교「학예회」는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고 3,4 년만에 한번씩 개최되어 졸업할때까지 잘하면 두차례 아니면 한번 돌아오는 학교 행사였다.

가을운동회때 여학생들이 지금은 무용체조(당시는「유희」라고함) 보고는 학부형들 말이 기생만들려고 저런 춤 가르친다고 비웃고 언잖게 여기던 때라 학예회도 역시 큰 인기물이 못되었지만 학생들의 善惡에 대한 의식교육과 애국충절을 위한 산 교육으로서 꼭 학예회는 열었었다.

필자가 3 학년때 당시 가을 농산물 품평회를 겸한 학예회가 개최되었는데 4 학년 형들이 연극으로「도깨비 방망이」이야기, 착하고 가난한 혹부리 영감이 갑자기 부자가된 것을 시기질투하여 부자로 잘사는 혹부리가 혹떼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혔다는 줄거리의 연극을 본 기억이 있다. 그때 주연 배우로 등장한 강현면에 사는 이용구 형은 참으로 착한 혹부리 영감 역을 아주 잘하였었다.

그때 학예회에 사용된 무대 幕은 까만색 비로드 천에 중간 부분에 학교의 마크가 수(繡)놓여있었고(지구를 떠받은 양손모양의 나뭇잎!) 幕 밑줄에는 贈 大浦公立普通學校第二面 卒業生一同 이란 글자가 역시 수로 새겨져 있었다.

"딱! 딱!" 木鐘을 두번치면 幕은 上手에서 下手로 열렸고 "딱!" 한번치면 下手로부터 천천히 幕은 닫혔다. 바로 그 幕은, 시간과 공간, 등장 인물들을 감싸주며 묵묵히 학예회마다 지켜본 그무대 그 幕은, 우리들의 애환을 안은 채 아마도 6.25때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대 졸업생들 학적부가 (6,25전 졸업생)사변때 불타버렸다고 하

**"딱! 딱! 木鐘을 두번치면 막이 열렸고 한번치면 천천히 닫혔다." 바로 그 막은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들을 감싸주며 묵묵히 학예회마다 지켜본 그 무대, 그 막은 우리들의 애환을 안은채 아마도 6.25때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니까 말이다. 이끼 앉은바위에는 돌꽃이 피는 법이다. 모교의 옛 추억담긴 물품들이 한 시대의 참화로 사라져 버린 것, 우리네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어준다.

우리 반에서는 개가 주인을 자기몸을 희생하면서 화재에서 구출한 국어 낭송을 한 것같다.

공연장은 3,4학년 교실 중간 칸 막이를 뜯어내면 큰 강당이 되는데 학예회 때도 이런식의 소극장이 마련되고 무대는 선생님들이 서는 교단을 모아 만들었으며 이러한 소극장 무대는 학예회 말고도 일본 천황 생일 때와 6학년 형님들 졸업식 거행 때도 꾸며졌다.

졸업때 부르던 노래를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돈다.

다 반 세기가 흘러간 옛 이야기들이다. 필자도 이 세상 다하기전에 이마의 주름때가 벗겨진다면 모교를 돕고 세상을 갔으면 하면서도 그렇지못한 오늘의 처지가 부끄러울 뿐이다.

끝으로 大浦국민학교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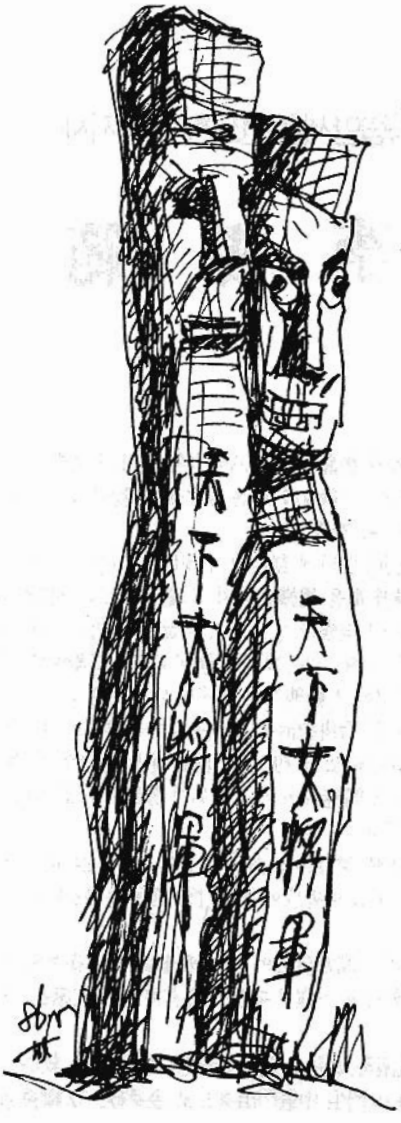
남북으로 운동장을 감돌며 달리던 汽車가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오고가면 운동장에서 놀던 모든학생들이 손을 흔들어 환호하든 옛날의 어린시절이 그립다.

언제 또다시 그런 시절이 되돌아 올까! 칙칙! 폭폭! 칙칙폭폭! 통일 조국을 전망하면서 —.


약 력

- 서울 중앙방송국 방송과 근무
- 한국주둔 미국 문화공보원 문화과지배인
- 청년 방위대 제七단 정훈과장
- 국민방위군 제26교육대 정훈과장
- 보덕보육원 교사
- 경향신문사 속초지구 주재기자
- 건설산업신문사 강원도주재 특파원
- 속초시 행정자문위원
- 日政때 신극운동 극단 현대극장에서 수년간 활동
-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내고장 사람들



내고장 선각자 李錫範
내고장 인 물 徐昌河
내고장 얼 굴 金忠鎬
出鄕人士 黃金燦

● 내고장 선각자 ●



李 錫 範 /字士一 號雪燃

## 독립만세를 선도한 애국지사

# 李 錫 範

公은 咸平人으로 明宗때 양양府使 李春齡의 後裔로서 一八五九年 儒林의 家門인 양양 朴泉里에서 태어났다. 世稱 雪岳山이 생기고 그 精氣를 받은 唯一한 人物이라 하였으며 豪蕩한 性格에 不屈의 鬪志를 가지고 愛國心이 透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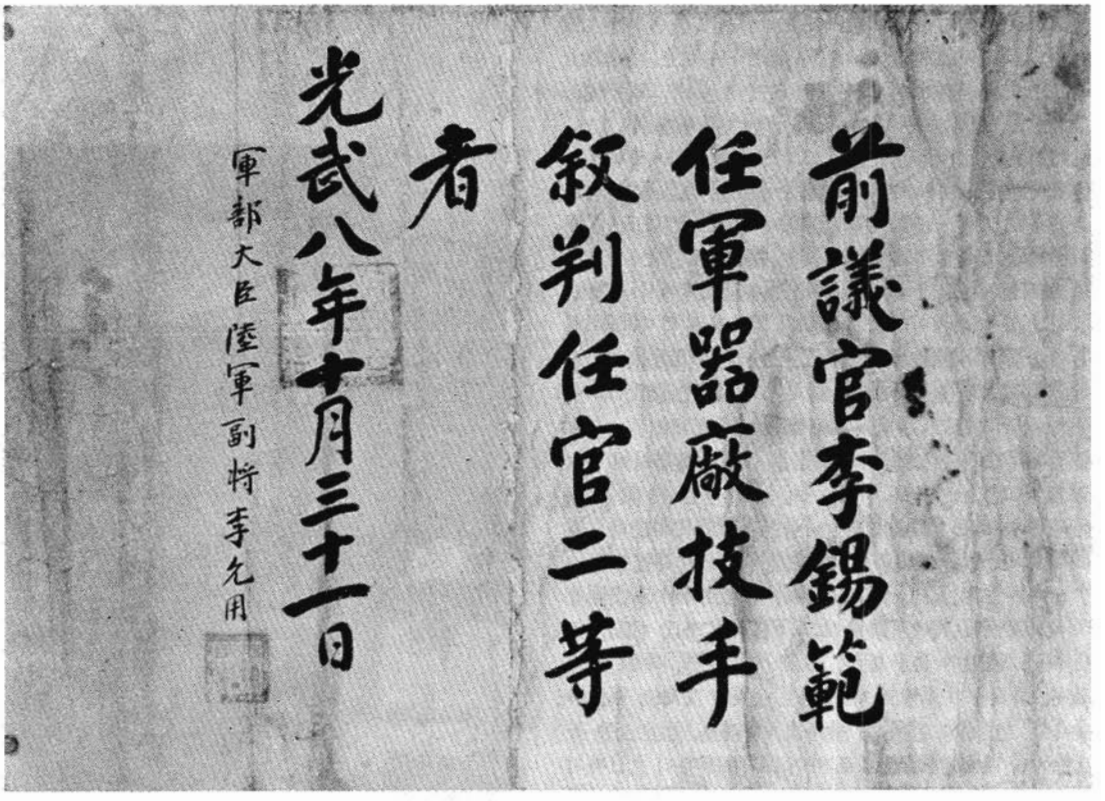
일찌기 父母를 따라 道川面 中道門里(現 道門洞)에 移居하여 學問을 닦아 一八八四年 高宗甲申에 初試 及第하고 東學乱때는 反東學軍을 組織하여 甲午義兵将으로 活躍한 傳統的인 儒學의 人物이다. 主로 漢學을 工夫하여 漢學의 大家로서 名聲을 날리고 패기만만한 壯年時節인 一八九九年에 中枢院議官을 거쳐 一九〇五年 軍部主事兼軍器廠技手에 任命되어 國政의 審議에 參與하여 土匪를 平定하고 神興寺를 破産에서 復古하였다.

그러나 公은 1910年 日帝의 残惡無道한 合併統治에 痛憤을 禁지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落鄕하여 隱忍 自重하여 오던중 뜻하는 바 있어 初代道門面長에 暫定的으로 歷任하고 開化의 文物에 눈을 돌리어 大浦港을 크게 開港하여 物物交易의 経濟港으로 發展시키는데 献身하였으니 참으로 先見之明이 있었다.

그리고 一九〇八年 및 一九一三年에는 當時 양양郡守 南宮檍 또는 道川面民과 더불어 양양峴山學校와 道門雙川書塾을 設立하고 後進의 養成에 힘써 抗日精神을 敦吹하는데 盡力하였다.

一九一九年 三月一日 亡國의 쓰라림 속에서 高宗皇帝의 國葬에 參禮하여 孫秉熙등 三十三人이 唱導한 巳未 独立萬歲運動을 目見하고 下襄할때 独立宣言書등의 文献을 버선속에 숨겨 가져왔다.

이에 그의 동생 前宮内部主事 國範과 謀議하고 長子 能烈(載勳) 次子 東烈(載炯) 그리고 族孫이되는 教完 教員등을 主動者로 하고 門生 中道門出身으로 金英経, 李鍾國등 五




十余名을 各面動員責任者로 定하고 四月四日 蜂起하여 九日까지 連六日간에 걸쳐 양양邑內 大浦, 沙溜, 旺道, 基士門등地에서 太極旗를 높이 들고 大韓独立萬歲를 絶呼한 四四独立萬歲運動을 領導하였다.

이 萬歲運動으로 倭警에게 或鴻基등 十二義士를 잃고 國範등 八十余名과 함께 投獄되어 酷甚한 苦楚를 치렀으나 日帝에 屈하지 않고 一九二六年 六月十日 純宗의 國葬에 參禮하고 一九二七年에는 李商在先生 등과 民族主義者의 統合体인 新幹會를 組織하고 活躍하던중 一九三二年 九月一日 享年 七十四歲로 逝去하였다.

公은 中道門里出身으로 양양人의 愛國心과 抗日 意識을 높이 떨치게 하였으며 양양의 三·一萬歲運動은 韓國独立史에 記錄되어 燦然히 빛남도 偉大한 先導者이신 李錫範公의 至大한 功勞이며 또한 民族의 횃불으로 追仰하여 永遠히 우리의 腦裡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 雪樵 李錫範公 抗日獨立運動 紀實碑文

謹按컨대 金石併用期의 箕子 東明帝 韓檀君이 西紀前 一二三一年 庚寅에 朝鮮國을 開立하고 中國殷朝와 通交함으로부터 東箕天子인 해님을 箕子 새밝간을 東明帝 한밝간을 韓檀君 國號인 새밝을 歲百濊貊 東明 鳥明朝鮮 또는 鳥辰 粟辰肅愼息愼 稷愼벌내를 平壤 불내를 樂浪이라 翻譯하고 國祖箕子 韓檀君의 教示한 禮義田蠶軍事 政治및 八閔教를 崇尙하는 東方文明國으로 發展하였을뿐더러 이 四十三代 一千三十八年의 韓氏朝鮮國統이(◎ 後朝鮮인)九代 二百二年의 韓氏馬韓朝와(◎後馬韓인)三十一代 六百七十八年의 夫餘氏 百濟朝를 거쳐 朴昔金氏의 統一新羅朝에 이르렀으므로 古朝鮮記에 檀君壽 一九一八歲라 하고 다시 王氏 高麗朝에 이르렀으므로 革新憲法인 洪

範十四條를 制定한 高宗帝가 西紀一八九七年 丁酉에 國號를 大韓이라 改稱하였고 이와 前後하여 많은 愛國志士가 나왔는데 雪樵公도 그中의 一人이다. 公은 咸平後人 高麗忠肅王朝佐命功臣壁上 三韓 三重大匡 輔國崇 大夫 或 豊府院君 三司使 李光逢의 二十四世 孫이며 李朝壬辰倭乱때 襄陽戰에서 殉國한 執義公 継先의 九世孫인 啓潭의 長男으로서 一八五九年 己未陰十一月二十五日 江陵鏡浦里 進士宅에서 誕生하니 諱는 錫範이오 字는 士一이며 일찍이 雪岳山下 襄陽郡 道川面 中道門里에서 漢學者로서 名聲을 떨치시다가 高宗朝의 軍部主事 및 中枢院 議官에 任命되어 國政審議土匪平定및 神興寺 破産復古 大浦港 開設등에 貢献하였다. 特히 残悪無道한 倭氏日本이 一九一〇年 庚戌八月에 純宗帝를 幽廃하고 韓國을 合併統治하니 公은 이 曽有의 亡國恨을 풀고자 落郷하여 雪樵라 號하고(◎一九〇八年 및 一九一二年에는(◎ 郡守 南宮檍 또는 또는 道川面民)과 더불어 襄陽峴山學校와 道門雙川學校를 設立하고 抗日独立精神을 鼓吹하였으며 一九一九年 己未 三月一日 高宗 國葬에 參礼하여 孫秉熙등의 唱道한 独立萬歳運動을 보고 下襄하여 李氏 前宮内部主事 蓮東國範과 長子 能烈, 載勲 次子 東烈, 載炯 族孫 教完, 教貞을 主動者로 하고 門生 金英經 文命亥 張世煥 金斗榮, 崔寅植, 趙英淳, 金學九, 或鴻基, 呉世玉등 五十餘人을 各面動員責任者로 하여 四月四日부터 九日까지 連六日간 邑内 大浦洞 旺道 其土門에서 太極旗를 듣고 大韓独立萬歳를 絶叫하는 四四独立運動을 領導하다가 倭警에게 或鴻基등 十二義士를 잃고 蓮東등 八十餘人과 함께 投獄되어 三年 以下의 懲役型 또는 執行猶豫刑을 받음으로서 襄陽人의 愛國心과 抗日意識이 더욱 高揚되었으며 公이 倭警監視網을 뚫고 一九二六年 六月十日 純宗國葬에 參礼하고 一九二七年에 李商在 등과 民族 主義者 統合体인 新幹會를 組織하고 江原道 支會長에 就任하였다가 一九三二年 壬申 九月一日 襄陽面 林泉里 自宅에서 享年 七十四歳로 逝去하니 十一日 同志門生 数百人이 葬礼式을 擧行하고 그 冥福과 祖國光復을 祈願하였다. 當時 四十五人의 祭文輓章을 실은 雪樵先生 襄礼式輓詞録에보이는 延日 鄭錫和翁 祭文中에 嗚呼 惟 雪樵 李議官公 襄之豪傑士也 孝友仁勇其性也 詩礼文章其學也 接人也 見善則若己有之見不善則 侃侃切切引 古諭今推之以腹心 而要使惟正之歸是信也 處事也 或如春風 或如急雨 明辨慎敏直路是行 不以恩怨而貳之雖盤根錯節 必用以 利器能處 人所不能處春 赤有之是忠也, 土匪起而誓衆以討之義也, 楚囚泣而 與弟及 二子 諸姪俱就縲紲節也, 天既賦與之 富如是其修于身見于行 又如是 庶幾其需世之用 而居家也 顔瓢屡空為官也馮 郎己老其宏才令德 一末施報而年 七十四卒,公歸之日襄之人 不分識與不識畢往哭 倀倀, 然如有先焉 非平日之及 於人者 宿有素焉則 安有是也라하여 公의 高邁한 人格과 德化를 길이 追慕케 하거니와 長男 載勲 次男 載炯 三男 載南 四男 載丙 長婿 全州 李鍾曄 次婿 江陵 崔懿洙 三婿 安東 金定漢은 遺訓에따라 倭政官祿을 排斥하고 民族精気의 維持에 힘쓰다가 天道好還으로 八一五解放을 거쳐 一九四八年 八月拾五日에 大韓民國 政府를 樹立하는 感激의 光復을 보았으나 이와 前後하여 모두 他界하고 不肖 載丙만이 在烈로 行世하니 痛隕罔極일 뿐이다. 때문에 公의 誕生 壹百貳拾周年을 맞이하여 그 抗日独立運動의 眞相을 적고 새겨서 後世의 亀鑑으로 삼고자 하는 次女 八十参歳 世烈의 念願과 族譜 金亀岩 和尚證言 襄陽郡 三·一運動略史 其他資料에 依하여 四男 佛化居士 在烈 撰하고 外孫婿 原州 元鍾極書하여 이곳에 碑碣을 세우다.



李 錫範公 기념비와 필자

●내고장 인물●

## 收復地区 英才育成의 代父

# 徐 昌 河

徐昌河교장선생님에 대한 원고를 쓰기에 앞서 선생님께서 이 고장 敎育의 先覺者로서 남기신 功勞와 業績에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선생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弟子의 처지로서 恩師님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獨白하지 않을 수가 없다.

徐昌河선생님께서는 1904년 11월 30일咸鏡南道 高原郡 郡內面 上泗昌里에서 태어 나셨다. 선생님께서도 日帝의 식민지가 된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는, 자라나는 후진들을 敎育으로 文明을 일깨우는 길이 祖國獨立의 最善의 길이라고 깨닫고 당시 咸興 高普에 병설돼있던 附設學校인 咸南道立師範學校를 졸업하시고 직접 교육의 일선에 몸을 던지셨다.

선생님께서는 故鄕인 高原公立普通學校에 부임하여 수년간 제자들을 길러낸 다음 咸興으로 전근하여 여학생들만을 교육하는 黃金町여자국민학교에서 校監으로 교편을 잡으시다 다시 고향인 高原으로 돌아와 雲谷公立普通學校의 校長事務取級代理(현재의 교장직무대리)로 봉직하던 중에 8·15解放을 맞았다. 북한 땅에 蘇聯軍進駐하고 共產黨의 강압통치가 시작되자 너무나도 期待가 빗나감을 깨달은 선생님은 필생의 업으로 생각했던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1950년 북괴의 6·25남침이 감행되고 낙동강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던 북괴군이 궤멸당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仁川上陸作戰의 대승으로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던 北韓地域이 收復되자 선생님께서는 즉시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북괴에 짓밟힌 교육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의 일로 얼마안돼 뜻하지않던 유엔군의 1·4후퇴로 선생님께서는 장남載卿시(서울工大전신인 鑛山專州졸업·수복직후 양양중학교감재직중 발병 사망함)를 대동하고 사모님과 두아들은 북한에 남겨둔 채 월남이라는 예측하지 못하는 길고도 먼길에 오르게 됐다.

선생님께서는 고향땅에 돌아가 後學들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北進하는 국군을 따라 북으로 가던 중 이곳 속초땅에 발을 디디게 됐다. 파죽지세같이 밀고 올라가던 국군이 高城南江을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본 선생님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꼭 고향땅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收復地域의 敎育을 우선 再建해야 한다는 使命感에 불타 전란통에 배움을 잃고 곳곳에서 방황하는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한편 당시만해도 부족함이 이를데 없는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군원物資를 구해다 學校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밤낮으로 포성이 귓전을 찢으며 전후기 편대가 전선으로 쉴새없이 출격하는 어수선한 전쟁터에서 어느 누가 이같은 敎育을 펼치기를 감히 생각이나 했었겠는가?

수복후 襄陽上坪국민학교에서 잠시 몸을 담은 바 있는 선생님은 수복지구의 교육재건 계획을 구상한 끝에 그의 天品인 끈질긴 노력과 탁월한 수완으로 당시 수복지구 행정을 관장하고 있던 국군 제1군단에 중학교설립인가를 신청, 52년 3월5일에 東光중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어내고 3월 20일에는 이 학교를 개교시 교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이 학교는 수복지구에서 최초의 중학교요 우리나라 최북단의 학교였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식인가에 의한 최초의 중학교가 된 것이다. 선생님의 교육을 향한 정열과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생님의 교육을 향한 노력은 계속돼 같은해 5월 25일에는 또 다시 제1군단장으로부터 東草 高等學校의 인가를 받아 6월2일 개교의 타종을 이곳에 울림으로서 선생님께서는 수복지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동시에 설립한 創設者가 되신 것이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현재 속초국민학교 서쪽교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에 목조본관 1동과 4개교실의 교사가 최초의 속고교사가 세워졌던 곳이었고 이곳을 모체로하여 襄陽高等學校가 분리독립됐던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당시의 재학생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새로 짓는데 名手였는지 1군단 군정당국과 교섭끝에 그 어려운 物資難 속에서도 軍援資材를 지원받아 속초시 영랑동에 10개교실의 당시로서는 멋진 2층교사를 짓고 그곳으로 속고는 첫 이사를 했다. 그 교사도 벌써 노후건물로 헐리어 없어진지 오래며 東高는 현재의 雪中校舍를 거쳐 지금의 교사에 이르기까지 東草高等學校는 선생님께서 創學以來 실로 4번째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선생님께서 東高校長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실로

## 선생님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 전란으로 황폐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한 일이며, 많은 제자들……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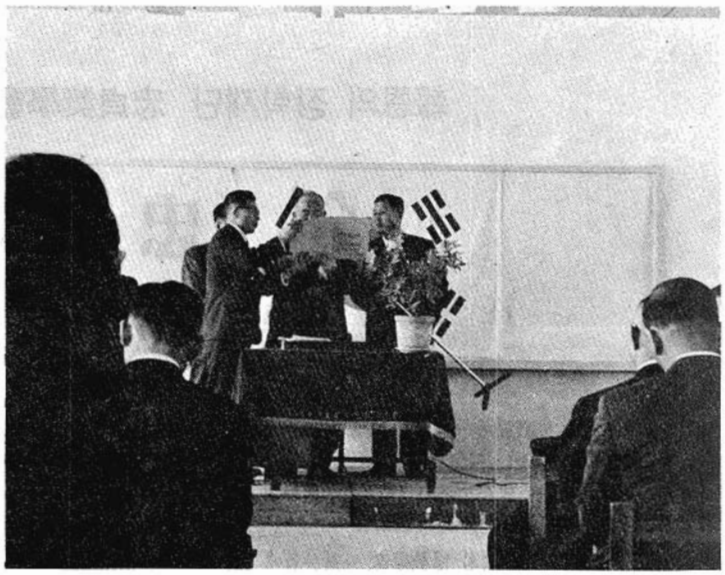
그 첫째가 전란으로 황폐화된 이땅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교육환경을 조성한 일이고 둘째는 東高에 開校초기부터 勉學風土를 조성하여 많은 제자들을 명문대학에 합격시킨 일이었고 세째는 개교초부터 배구부를 창설하여 재임기간 고교배구에서 수년간을 전국 준우승에 석권케하여 배구명문고교로서 자리를 굳힌 일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敎師진영에 모든 신경을 경주하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만 있어도 그를 찾아가 반드시 그들을 속고 敎師로 초빙하는 열성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면학의 길을 찾아 애쓰는 젊은이들에게는 속고에서 1년간을 사환으로 근무시키고 월급으로 주었고 1년간의 근무를 끝낸뒤에는 3개년의 고교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시키는등 실로 다른 敎育者들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데까지 세심한 配慮를 아끼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렇게 졸업한 弟子들이 여러곳에서 자기소임을 다하는 중견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속고에서 10년간의 봉직생활을 마친 선생님께서는 61년9월4일 정든 東高를 떠났다. 葛末中學校長및 新鐵原濃校長으로 전임한 것이다. 63년 2월27일에는 선생님께서는 그가 포연속에서 創設한 東光中學校長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왔다. 선생님께서는 동광중학교장으로 부임하여 오신 무렵 革命政府의 조치로 東光濃高도 한때 학생모집이 중단되고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됐다. 선생님께서는 革命政府에 이 학교존속의 필요성을 호소함으로서 이 학교를 부활시키고 64년3월20일에는 동광농고교장에 겸임발령을 받아 이 학교의 발전과 중흥에 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후 선생님께서는 68년5월1일 東草女子中學校와 東草女子高等學校長으로 겸임전보발령을 배명하고 다시 그가 씨뿌리고 다져놓은 속초교육의 일선으로 돌아오셨다.

선생님께서는 노령임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절충하는등 오로지 교육자적 사명에서 동분서주하시며 속초여고를 신축했고 이 학교를 속여중과 분리독립시키는 한편 속초여고교장으로서만 봉직하시다가 70년2월23일 忍苦로 점철된 그의 교육자로서의 큰길에 막을 내리고 정년퇴임을 맞았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교단에 섰으면서도 제자들이 설혹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른 것을 직접 목격하셔도 회초리 한번 들어본 일이 없었고 호되게 야단은 치시면서도 직원회의 등에서 가혹한 책벌이 결정될때면 늘 이를 번복시켜 교직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것은 아마도 선생님께서 평소에 간직하고 계셨던 仁慈함과 교육에 대한 信條이며 價値觀이 아니셨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북에 남겨두고온 부인과 두아들에 대해서도 쓰라린 마음을 가누실 길이 없으셨겠지만 교직원이나 제자들께 입밖에 내는 일이 결코 없었다. 북에 두고온 두아들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6·25전에 체포돼 투옥되었기 때문에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선생님께서 속초여고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 69년9월 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영동지방의 벼농사 냉습해피해 상황을 돌아보기위해 속초에 온 당시의 朴東昜 농림부장관은 朴敬遠 강원도 지사를 통해 서창하교장 선생님을 속초시청에 모셔오도록 지시했다. 당시 속초시장실에는 박장관을 영접하기 위해 속초시청의 관계공무원들과 관내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유지급 인사들이 운집해 있었다. 농림부장관의 부름을 받고 시장실에 들어온 선생님께서는 박장관에 대한 예의를 올리려 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박장관께서는 선생님께서 시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선생님을 정중히 영접하면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 하도록 각별히 부탁했다. 장남인 載卿씨와 韓信장군등 세사람은 咸南高普의 동기동창생이었고 선생님이 日帝末期에 高原雲谷공립보통학교에 재직하고 계실 때 日本에서 學兵을 피해온 박장관을 상급기관에 간청하여 교원으로 채용함으로서 일제의 징병을 면케하는 남모르는 인연을 갖고 있다. 載卿씨가 사망한 후에도 朴장관과 韓信장군은 선생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생존시까지 이곳에 오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문안을 드렸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정년퇴직 즈음에 들린 중풍을 앓아 6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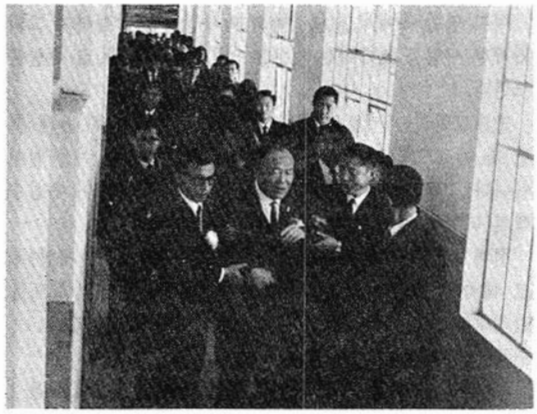


속초여고 정년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면서 흐느끼는
徐昌河교장

의 끈질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76년10월23일 그의 빛나는 師道의 一生에 종지부를 찍고 他界하셨다. 유족으로는, 월남하여 결혼한 부인 金玉蓮여사와의 사이에 아들 3형제를 두고있다. 장남 咸俊씨(31), 차남 咸晩(29), 3남 咸俊씨(25)등 3형제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님의 유덕을 간직하고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착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은 현재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속초중앙교회 묘지 유택에 영민하고 계신데 지난 79년 8월에 東草高校의 제자들이 성금을 모아 「東草高等學校 初代校長 徐昌河先生幽宅」이라는 公德碑를 세웠다. 그의 碑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反日과 反共의 투사이시였으며 1·4후퇴로 東草에 오시어서는 砲煙이 자욱하고 銃聲이 빗발치는 잿더미위에 우리의 모교를 창설하시고 헌신적인 教育을 하신 至誠은 저희들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읍니다. 이에 恩師 徐昌河 교장선생님의 그 고결한 인품과 유덕을 길이 추모하기 위한 충정으로 여기에 돌을 세우니 다함없는 명복을 누리시기 축원하오며 분양재배 하옵니다. 고히 잠드소서. 속초고등학교동창회원일동 謹拜』



정년퇴임식을 마치고
교직원들의 부축을 받고
복도로 걸어나오는 徐昌河 교장


필자 董 文 星

- 속초고등학교 졸업(3회)
- 중앙대 법대 행정학과 졸
- 조선일보 기자

現 재단법인 裕岩文化財團 전무이사




● 내고장 얼굴 ●

## 報恩의 장학재단 忠貞獎學會理事長

# 金 忠 鎬

속초시 금호동 東濟약국 주인 金忠鎬씨(49)—재단법인 忠貞장학회 설립자겸 이사장. 평통자문위원. 법무부갱생보호위원, 속초지청청소년선도협의회회장, 속초지원가사 및 소액조정위원, 강원도제5선거구선관위원, 국제라이온스협회309—L지구 부총재등 그의 명함대로 사회사업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여기 명함 속에서 忠貞장학회 이사장직만 발췌하여 그의 거룩한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고장의 얼굴」로 족함을 느낀다.

忠貞장학회는 보은(報恩)의 장학회이다. 흔히 은혜(恩惠)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하여 그 보은이 은혜를 준 당사자에 이어 수십수백의 타인에 주어 진다면 더더욱 그러하겠다.

현재 기금 1억1천6백22만3천원(문교부등록기본재산)으로 대학생 10명에게 졸업까지의 등록금을 주어 동량으로 길러내고 있다. 앞으로 매년 현재의 2명에서 3명씩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리고 있다.

무릇 20년가까운 세월 허리띠를 졸라 매어가면서 모은 1억여원의 거금을 장학사업에 바치게된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여 그가 우리모두에게 귀감이 됨과 그 높은 뜻을 기리려 함이다.

金이사장은 襄場두메의 빈농에서 태어났다. 간신히 襄場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이 중학교졸업으로 면학은 끝이고 집안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처지였다.

1955년 3월10일 졸업식장에서 한 도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행로는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이날의 졸업식장에서는 3년개근에 우등상을 탄 金군이였으나 남과 같이 고등학교에 진학못하는 동안(童眼)에는 눈물만이 괴었을 뿐이었다. 천근같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막 나서려는데 교무실옥상 마이크에서「김충호 군 교무실에 급히 오라」는 외침이었다.「혹시 상장이 잘못되었나—」金이사장은 당시를 생각하면서 파안대소다. 교무실에 허겁지겁 들어서니 모든 선생님들이 환히 웃으시면서「야, 김군. 너 고등학교에 가고싶지. 이제 됐어—」유달리 초롱초롱했던 홍안의 눈망울이 놀란 토끼인양 더욱 커지면서 선생님들이 더 웃어댔다.

중년신사 朴泰松씨를 소개 받은 것이다. 1·4후퇴시 부모처자를 모두 咸北茂山에 두고 단신월남, 襄場에서 양조장을 차려 얼마의 재산을 모은 朴씨가 金군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朴씨는 고향에 두고온 같은 나이의 아들을 생각했단다.

金군은 그날로 朴씨집에 양아들처럼 옮겨가 학교(襄場고등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조장일을 거들고, 틈만나면 책을 손에서 떼지않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부지런함이였다.

이러한 근면과 향학열이 朴씨를 동하게 했다. 朴씨는 당초의 고교졸업만의 약속을 넘어서 대학졸업을 언약한 것이다. 59년 동양의대(경희대약대전신)에 입학, 오늘의 약사가 된 것이다.

金이사장이 대학수학때 양아버지 朴씨가 두번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 가산이 탕진되었다. 그런데도 양아들의 학비만은 제때에 차려주었다고 그 훌륭함에 다시 고개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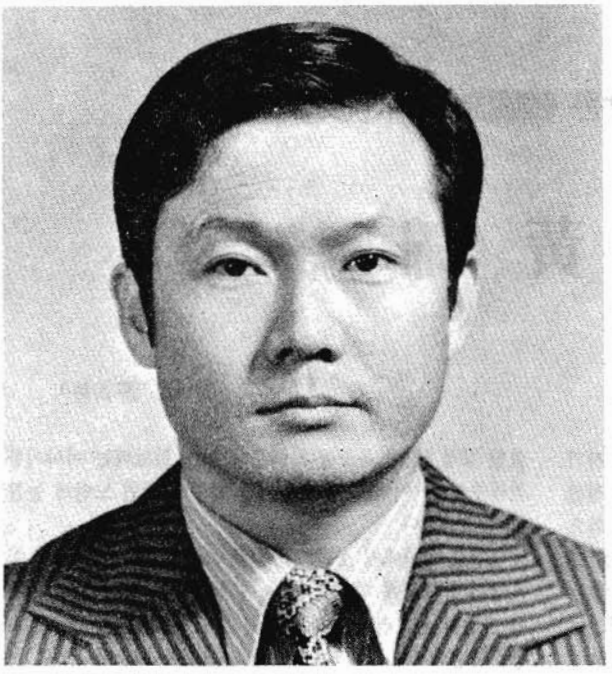
군복무를 마치고 朴貞琅씨와 결혼, 양아버지집에서 나와 현재의 자리에다 약국을 차렸다. 물론 빚으로 낸 약국이다. 홍안의 소년이 약국을 키워가면서 중년이 되어 얼마의 재산도 모았다.

1남2녀의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중산층생활이었다. 그러나 자식들을 앞에 놓고보면 자신의 어릴때의 가난과 또 양부의 고마움이 뇌리를 두드리곤했다.

양부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82년 봄의 어느날이었다. 서울에 계시는 양부에게 장문의 서한을 올렸다.「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할까요——」라는 주문이었다.

양부 朴씨에게서 곧 회신이 왔다.「너같이 불우한 애들을 더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내 한이니 네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줌이 어떨까——」였다. 이같은 양부의 뜻은 金이사장부부가 연애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요, 꿈이기도 한 것이었다.



## "貧者가 켜는 한 燈은 長者의 만등과 같다"
## 충정중학교 이사장 金忠鎬氏

그해 7월5일 金이사장의 생일날이었다. 부부는 아이들을 밥상머리에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연 것이다.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대찬성이었다.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사람이 가락지 하나 손에 제대로 끼어보지 못하고 애들에게도 꿰맨옷을 입혀가면서 모은 5천만원이었읍니다.」 金이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듯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다. 성불(聖佛)이 따로 있으랴 싶게 실로 우러러보였다. 그리하여 당해 11월17일부로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忠貞장학회를 인가받았다.

부부의 첫이름자를 딴 「忠貞」이다.

매년 東草 襄場고교졸업생중에서 1명씩을 선정, 대학4년간의 등록금전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수혜자는 서울대약학과2년 金東晤군(東草고졸)등 10명(3명군입대)이다.

그런데 기금 5천만원으로는 매년 2명씩밖에 도움을 주지 못함이 안타까왔다. 그래서 올해 서울에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 뒀던 땅을 팔았다. 이래서 기금이 현재의 1억1천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고장대학인 東宇전문대학(이사장 全在旭) 재학생 1명을 추가키로 해 수혜자는 년에 3명씩으로 늘은 것이다.

金이사장은 당초에는 떠들썩하게 장학재단을 만들기보다 조용하게,어쩌면 남모르게 도우려한 것이었는데 재단으로 등록하면 은행이식에서 세금등공제금 혜택때문에 한푼이라도 학생들에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라고 그리 큰일도 아닌 것을 갖고 부끄럽다면서 겸손해 했다.

金이사장은 이왕 세상에 알려진바에는 한말씀 하겠다고 나섰다.

자기 아들도 東草고교에 보냈다한다. 이 고장에서는 인재가 될만하면 타지고교에 유학시키는 그런 풍토를 없애야 하고 또한 본보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장학사업을 펼쳐 가난한 수재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역설이다.

金이사장 부부는 오늘의 장학사업을 하게 만든 양부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수혜자인 학생들이 공부에 열심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밤11시 약국문을 닫고는 곧장 서울에서 8순의 고령에도 茂山명예군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양부 朴泰松씨에게 「아버님, 아버님의 자식과 손자들은 오늘도 별탈없이 잘자라고 훌륭히 살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 아버님의 하해같으신 은공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님의 뜻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게 훌륭히 살아 가겠읍니다——.」고 글월을 보낸다.

실로 훌륭한 삶이다.

朴군수는 「빈자(貧者)가 켜는 한등(燈)은 장자(長者)의 만등과 같다」는 불가의 말을 들려주었단다.

우리 모두의 으뜸가는 얼굴들이다.

崔龍文／(본지편집위원)

● 出鄕人士 ●

## 우리고장이 낳은 韓國詩壇의 元老

# "보리고개"의 詩人 黃 錦 燦

李 聖 善 / 詩人

지금부터 15년전, 그러니까 1970년도의 일이다. 필자가 (갓 문단에 등단하여) 黃錦燦先生님을 모시고 서울의 청진동 골목에 가서 소주 몇 잔과 순두부백반을 청하여 막 먹으려는 순간에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와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米堂 서정주 선생과 이원섭 선생이셨다. 필자는 물론 두 분 높은 시인을 흠모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직접 뵙기는 처음이었는데, 그러나 함부로 인사를 드릴 수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 필자를 황선생님은 그분들께 소개시켜주면서 어느새 합석하게 되었다. 그때 未堂 선생께서는 필자에게도 몇마디 건네주셨지만 黃先生님을 향하여

「黃錦燦 詩人은 大器晩成의 詩人이오, 우리나라에는 大器晩成의 文人이 별로 없는데 黃詩人이야 말로 바로 그런 분이구료.」

하셨다. 필자가 알기로는 大器晩成이란 老子에 나오는 말로 위대한 인물은 나이 들수록 더욱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한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의 문인들이 대개 조루증에 걸려서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몇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도 黃錦燦선생님을 생각하면 未堂 先生의 그「大器晩成」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너무나도 적확함에 감탄한다.

선생님은 젊어서도 눈부신 활동을 하셨지만 연세가 더하여 가면서 더욱 창작에 몰두하셔 칠순에 가까운 오늘에 이르러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왕성한 작품 발표와 활동으로 文名을 날리고 계시다.

이런 황선생님께서는 이 글 끝에 자세한 연보가 나오겠지만 1918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논산리에서 태어나셨다. 가정이 빈한하여 어려서 함경도 성진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꽁꽁 언 청초호의 얼음 위를 다니며 놀던 기억이라든가, 조부께서 힘이 장사이시어(선생님께서도 그 후손이라 기골이 장대하신 편이다) 산에서 나무짐을 크게 한 짐 지고 오시다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 마침 뜰에 놓기 알맞은 좋은 돌이 있어 짐지신 채로 그걸 그냥 두팔로 안고 오셔 안마당에 내려 놓았는데, 후에 실한 장정 6인이 목도를 하여도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이런 고향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노안에 눈물이 글썽하신다.

함경도 성진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선생님은 일본에서 유학중에 해방을 맞아 귀국 후에는 잠시 고향 가까이 양양에서 교편을 잡다가 강릉으로 내려가시어 강릉농고 강릉사범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비로소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동인지「청포도」를 주재하시며 문예지에 추천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70년대 말까지 동성고등학교에 계시며 눈부신 작품활동을 하셨다. 지금은 대학에 출강하시면서 자주 TV에도 출연하시어 멀리서도 쉽게 얼굴을 뵐 수 있는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고독과 허무와 사랑 속에 시와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러기에 또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하시어 신문에 글 쓰실 기회만 있으면 강원도 자랑 속초 자랑을 그치지 않으신다.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시기에 시에 반하여 인간에 반하여 황선생님 주변에는 항시 사람들이 많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황선생님 전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단하나 시에 대해서만은 아주 엄격하시다. 선생님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도 엄격하지만 남의 시에 대하여도 함부로 좋다하지 않으신다. 다만 일단 마음에 들기만하면 반대로 끝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필자가 알기로 이 나라에서 가장 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 선생님을 꼽게 되리라. 그러하시기에 이 나라 단 하나밖에 없는 父子詩人이시다. 아드님 중의 한 분인 황도제씨가 지금 젊은 시인으로 한창 활약중에 있다.

한과 고독과 허무와 사랑 속에 시와 싸우면서 한평생을 살아 오늘에 한국문단의 원로가 되신 황금찬 선생님. 선생님 文名과는 달리 몇년 전에는 대학졸업(이대)을 6일 앞두고 세상을 떠난 딸의 죽음과 근년에 오랜 병고 끝의 사모님까지 하늘로 먼저 보내셔야 했던 아픔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던 선생님. 한국문단의 큰 별이신 선생님을 속초가 낳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속초로서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 황금찬 詩人은 고독과 허무와 사랑속에 詩와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훌륭하신 선배 시인을 갖게된 필자와 같은 후배들도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지면 관계로 선생님의 여러 면모를 좀더 자세히 적지 못함이 유감이지만 그것은 훗날로 미루기로 한다.

**年 譜**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남
1948년 〈새 사람〉지에 시발표 시작
48년 〈기독교 가정〉에도 발표
1951년 동인지 〈청포도〉간행—최 인희, 이 인수, 김 유진, 함 혜려, 황 금찬
1953년 〈문예〉지에 첫번째 추천받음
1954년 〈문예〉지에 두 번째 작품이 추천되어 조판되었으나 폐간
1955 〈현대문학〉에서 천료
1965년 시집, 〈현장〉 출간
65년 산문집, 〈실용문작법〉 발간
1969년 시집, 〈오월의 나〉 발간
1970년~72년 서울신문사 문화대상 심사위원 역임
1971년 시집, 〈분수와 나비〉 발간
1973년 시집, 〈오후의 한강〉 발간
73년 월탄문학상 수상
1975년 시집, 〈산새〉발간
75년 산문집, 〈고독이 남긴 그림자〉 발간
1977년 시집, 〈구름과 바위〉 발간
77년 산문집, 〈모르는 여인의 편지〉 발간
1979년 장시집, 〈한강〉 발간
79년 산문집, 〈원고지에 그린 고향〉 발간
79년 산문집,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발간
1980년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80년 시집, 〈한복을 입을 때〉 발간
1981년 시집, 〈기도의 마음자리〉 발간
81년 한국기독교 문학상 수상
81년 시집, 〈보리고개〉 발간
81년 산문집, 〈그래도 별은 빛나고 있다〉 발간
1982년 3인시집, 〈영혼은 잠들지 않고〉—이 성교, 유 안진, 황 금찬
1983년 연작시집, 〈나비제〉 발간
83년 시집, 〈별이 있는 밤〉 발간
83년 시론집, 〈정신으로 승리한 문학〉 발간
83년 산문집, 〈창가에 꽃잎이 지고〉 발간
1984년 시집, 〈언덕 위에 작은집〉 발간
84년 시·산문집, 〈기다림도 아픔도 이제는〉 발간
1985년 시집, 〈조국의 흙한줌과 아름다운 주검〉 발간
1986년 산문집, 〈사랑과 주검을 바라보며〉 발간
86년 시집, 〈고독과, 허무와, 사랑과〉 발간
76~78년 한국기독교문학가협회회장 역임 한국시인협회심의위원장 역임
현재 한국문인협회이사. 추계예술대와 숭의여대 강사

# 설악프라쟈페밀리타운



# 現場을 찾아서

푸른 동해바다와 신비로운 설악영봉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설악프라자콘도밀리타운은 속초시장사동 24-1에 위치, 약 190만㎡(약 58만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펼쳐진 국내 최대규모의 가족호텔단지이다.

설악프라자콘도밀리타운은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척산온천지구를 바로 옆에 끼고 있으며 또한 오색약수, 낙산사, 청간정, 화진포, 송지호, 속초해수욕장과 통일전망대등 명소들을 한아름 곁에 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제일의 관광휴양지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빠짐없이 산과 바다와 호수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설악콘도휴양지는 KAL의 속초-일본간의 운항(부정기)과 미시령확포장으로 국내·외교통이 보다 편리해져 관광객들의 환호가 대단하다.

국내 제일을 자랑하는 시설을 간추려 소개하면 제1콘도(768실), 제2콘도(786실), 어린이놀이 동산 프라자랜드(18기종), 칸트리크럽(18홀), 호텔(125실), 전통민속촌(34동)등인데 현재 제1콘도, 칸트리크럽, 프라자랜드가 기완공되어 성황중이며, 제2콘도등 나머지 시설들도 년내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설악프라자콘도밀리타운 경영진은 1990년대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서 도약을 목표로 1차적으로 콘도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확장 및 보수관리는 물론 서비스 개선등 全任·職員이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자연속의 제2의 가정인 콘도를 국내·외관광객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 이용토록 전국네트워크 및 세계굴지의 관광업체들과의 체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설악프라자콘도밀리타운은 1990년대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이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부각됨이 확실하다.

***제1콘도미니엄**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
- 면　적 : 117,302㎡(35,546평)
- 객 실 수 : 768실(18평형 726실, 36평형 42실)
- 이용요금 :

| 구　분 | 18평형 | 36평형 | 비　고 |
|---|---|---|---|
| 회　원 | 8,800 | 13,200 | |
| 비 회 원 | 38,500 | 60,500 | |

- 부대시설 :
  그릴, 커피숍, 슈퍼마켙, 토산품점, 이용실, 미용실, 당구장, 탁구장, 전자오락실, 관광안내소, 어린이 놀이터, 로라스케이트장

***프라쟈랜드(어린이 놀이동산)**

- 규　모 : 18기종, 기타 6종
- 면　적 : 90,363㎡(27,362평)
- 이용요금 :

| 구　분 | 소　인 | 대　인 | 단　체 | 비　고 |
|---|---|---|---|---|
| 입 장 요 금 | 200 | 300 | 200 | 부가세 포함 |
| 기종이용요금 | 200-600 | 250-700 | 좌 동 | 〃 |

- 부대시설 : 테니스장, 인공호수, 싸이클 보트장

***칸트리크럽**

- 규　모 : 18홀(7,060야드)
- 면　적 : 785,800㎡(239,941평)
- 입장요금 :

| 구　분 | 평　일 | 주　말 | 비　고 |
|---|---|---|---|
| 회　원 | 13,000 | 17,000 | |
| 비 회 원 | 24,000 | 35,000 | |
| 특별회원 | 6,000 | 6,000 | |
| 준 회 원 | 17,000 | 24,000 | |

- 부대시설 : 6T하우스, 14T하우스

***제2콘도**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1층
- 면　적 : 117,302㎡(35,546평형)
- 객 실 수 : 786실(23평형 715실, 46평형 71실)
- 현 상 태 : 건축중

***호　텔**

- 규　모 : 지상 8층, 지하 2층
- 면　적 : 19,993㎡(6,054평)
- 객 실 수 : 125실
- 현 상 태 : 건축중

***전통민속촌**

- 규　모 : 한옥 34동
- 현 상 태 : 건축중

## 現場을 찾아서

# 국립공원 설악산 (3)

## 울산바위



朴 益 勳 / 노인학교장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東草文化" 제2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추수한 뒤 낙수(落穗)를 줍는 농부의 심정에서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만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울산바위 名稱에 있어 3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울타리같이 생겼다하여 울산(籬山)이라는 설(說)과, "蔚山"이라는 경남에 있는 地名을 딴 전설적인 이름이고 또하나는 "울산(鬱山) 즉 우는 산이라는 뜻의 우리말을 漢字化한 것이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칠 때면 山전체가 뇌성(雷聲) 에 울리어 흡사 山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으므로 一名"天吼山"(천후산)이라고까지 한다는 기록이 新興寺誌에 실려 있었다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흥사지"는 이 고장 수복당시 신흥사에 있던 모 스님이 原州로 가져간 것을 崔九鉉 氏가 찾아와 李達永氏에게 빌려 주었는데 紛失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寺誌는 純漢文으로 되어 있었다.

"籬山", "蔚山"에 대한 名稱考에 있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襄陽都護府 山川條에 "籬山在北六十三里 雙成湖西 即大嶺東支也 有奇峯縱橫如設籬藩故名 俗云蔚山"이라 記錄되어 있다. 알기쉽게 풀이해 보면 "양양부 북쪽 63里, 쌍성호(지금 青草湖) 서쪽에 있는 곧 대관령 동쪽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마치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울산(籬山)이라 이름하였다. 항간에서는 울산(蔚山)이라고도 한다"는 뜻이다. 울산암은 명칭상으로도 다양성을 지닌 岩山이라 할 수 있다.

울산암은 海拔650m나 되는 큰 岩山으로 四方이 絶壁이고 岩壁이 險難하여 보통사람은 등반하기 어려웠지만 近年에 道門里 오수영씨가 私財를 들여 갖은 고생끝에 쇠다리를 가설하였으므로 지금은 누구나 다 頂上까지 오를 수 있다.

岩上에서 南쪽을 바라보면 土旺城 폭포가 흰 비단천을 드리워 놓은 것 같이 보이는가 하면 비 개인 날에는 七色무지개가 황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하여 이 폭포를 "神光瀑布"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신흥사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 東쪽을 바라보면 永郎湖와 青草湖가 푸른 숲 속에 싸여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한 폭의 東洋画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이 山그림자가 永郎湖에 投影될 때는 마치 水中金剛같이 느껴지고 거기다가 달이 비치면 "江心月一舟"라는 浪漫的인 詩情을 이르켜 人生살이의 괴로움을 잊게한다.

1. 自然의 寶庫

울산암은 雪岳山 어느 곳보다 稀貴한 動植物이 많이 生長棲息하는 곳이어서 山蔘, 버섯을 비롯하여 많은 약초와 山羊, 범, 사슴, 반달곰, 노루,

白蛇, 點蛇등 뱀도 많아 심마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入山하는 臘師들도 많았지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한다. 不淨한 사람이 이 산에 들어가기만하면 때아닌 안개가 끼여 咫尺을 분간하기 어렵고 뜻하지않은 청천벽력이 일어나고 不意의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靈山이라고 불렀다 한다.

2. 목탁바위

"계조암"이라는 이름이 생길정도로 得道에 效驗이 있어 全國各處에서 많은 高僧들이 修道하러 왔다 갔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수도가 잘되는 이유를 알려고 무척 애를 썼다. 하루는 불상앞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탁소리를 들었다. "나 혼자만이 있는데 목탁은 누가 치는 것일까?"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굴안으로 들어가 낮잠을 청하였는데 조금전에 듣던 목탁소리가 또 들려옴으로 또다시 굴 밖으로 나와보았으나 사람은 역시 보이지않고 四方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그후부터는 하는 수없이 수도에만 열중하여 得道한 뒤 이 암자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꿈에 老僧 한 분이 나타나 "그대는 왜 목탁속에 있으면서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고민하느냐. 내일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에 있는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탁이 보일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 바위가 큰 목탁같고 그옆으로 뻗은 山줄기는 마치 방망이같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옳지, 목탁 속에서 불도(佛道)를 닦으니 得道가 빠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 그후부터는 이 바위를 "목탁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3. 매미의 낙원

울산암 골자기에 闊葉樹가 우거진 탓인지 매미가 많기로 유명하다. 한여름철 이곳에서 며칠밤 지내본 사람이면 요란한 매미소리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매미소리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다음과 같은 傳說까지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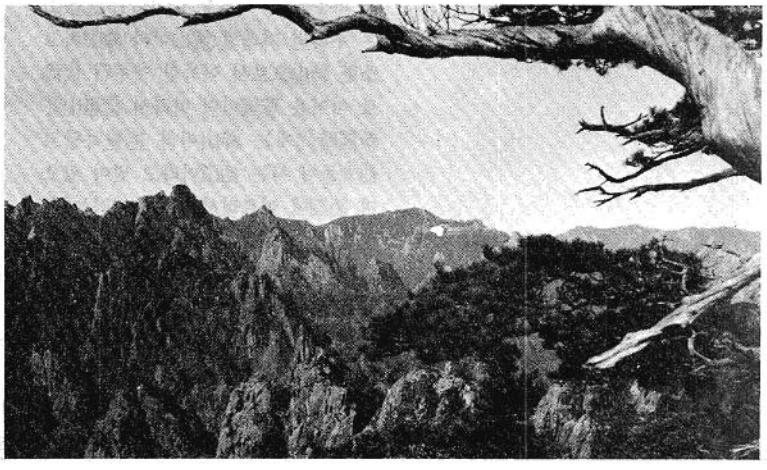
옛날 경상도 울산지방에 한 道士가 있었는데 낮잠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낮으로 잠자는것이 그에게는 큰 일과의 하나였다. 겨울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좋았지만 여름철에는 개구리 소리와 매미등살에 통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해 여름, 도사는 道術로 부적(符籍)을 만들어 들판에 던졌더니 그렇게 요란하던 개구리들은 울지못하게되어 밤잠은 마음놓고 잘 수 있었으나 낮이면 숲속에서 우는 매미소리가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사는 하는 수없어 매미마저 벙어리로 만들 작정으로 부적을 써서 공중에 날렸다.

눈치 빠른 매미들은 이 낌새를 미리 알고 道術에 걸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동작이 느려 미처 떠나지 못한 매미들은 울지못하는 벙어리 매미가 되고 말았다 한다.

도술에 걸리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된 매미들은 정처없이 날아 가다가 이왕이면 人心좋고 경치좋은 강원도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정들고 낯익은 울산바위를 만나게 되어 울산에서 같이 살 때의 옛情談을 서로 나누어가며 이곳에서 살기좋은 매미의 樂園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前職教育者)

(다음호 계속)



## 現場을 찾아서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3)



金 慧 法
／神興寺 住持

우선 雪嶽이란 이름부터 生覺해 보기로 한다. 雪嶽은 우리겨레들이 神山으로 生覺하고 聖域으로 믿어 왔던 곳이다. 雪嶽山을 雪山·雪華山이라고 불렀다. 이런 名稱은 오랜 옛부터 쓰인 것으로 三國史記에 나타난 雪岳이 가장 오래인 것이다. 雪嶽은 높은 山 險峻한 嶺마루에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雪嶽에 눈이 많이 내리고 積雪한다고 해서 雪嶽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것만의 까닭은 아니고 다른 뜻이 內包되어 있는듯 싶다. 名山峻嶺에 雪字를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옛말(古語)에 『술』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神聖을 뜻하는 것이며 雪이란 것은 結局 神聖을 뜻하는 『술』의 音譯인 것이다. 이 神聖에 內包되어 있는 根本的인 뜻에는 生命을 中心으로 한 모든 것 即 神聖, 崇高, 潔白함을 나타낼 神山 聖域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金剛山의 옛 이름을 "서리뫼"(霜嶽)이라 한 것으로 보아 雪嶽山은 『술뫼』(雪嶽)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술뫼』인 雪嶽山은 우리의 겨레의 靈山이며 鎭山이고 또한 神山으로서 아득한 옛부터 代代로 이어온 聖域이며 따라서 雪嶽山은 新羅時代에는 神山이라 生覺하였고 仙人들이 사는 仙山이라고 믿어 왔으며 後期에 이르러서는 佛山이라는 別稱을 붙여 부르니 가히 靈山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부처님 釋迦世尊이 修道하신 山이 雪山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껴본다. 지금 峰마다 佛敎的인 이름이 붙은 것은 新羅佛敎 全盛時代에 命名한 것으로 推測된다. 이렇듯 雪嶽山의 名稱에는 深奧(심오)한 뜻이 있으며 더욱 哲理的이고 佛敎的 思想이 스며있는 것이다.

이러한 名山이며 雪山인 雪嶽山에 자리하고 있는 大韓佛敎曹溪宗 25個 敎區本寺中 第3敎區本寺인 神興寺의 敎區管轄은 江原道 春川市, 束草市, 襄陽郡, 高城郡, 麟蹄郡, 楊口郡, 春城郡, 鐵原郡, 華川郡等으로 2個市와 7個郡이다. 22個의 寺菴이 있고 서울特別市에 1個 甘露菴이란 布敎堂을, 都合 23個 寺菴을 管掌하고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以後 38線이 생기고 끔찍스러운 6.25動亂을 거쳐 休戰이 되어 寺菴들이 民統線에 묶이지만 않았던들 지금보다 더 많은 地域과 寺菴을 가졌을 것이며 現民統線 作戰地區에 屬해 있는 乾鳳寺(옛날엔 敎區本寺임)도 雄大한 모습으로 重創復元 되었을 것이라 生覺해 보면 피비린내 나는 6·25가 심히 한스럽기만 한하다.

그러면 지난 "東草文化" 第二號에 이어 雪嶽山의 名所를 紹介키로 한다.

⑤ 飛龍瀑布

나의 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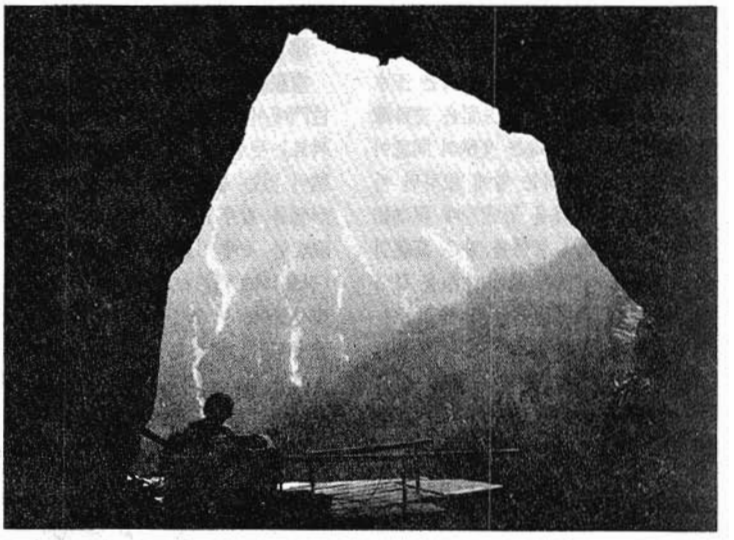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종교이시여!

미쁘다 南無大自燃!

이는 나의 임이니이다.

鷺山 李殷相居士의 南無國土大自燃編의 한 詩句이다.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만 내리 쏟아지는 거센 물줄기가 瀑布를 이루었다. 이름지어 飛龍瀑布라 한다. 물이 흐르는 根源에서부터 아무런 장식도 수식도 없이 골짝을 흘러내리는 여울물이



한곳에 모여 神妙한 音曲을 내면서 落下하는 그 관경은 사람들이 저마다 自然을 信奉하지 않을 수 없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좁고 險한 골짝에서 한가닥의 물줄기 길이가 150餘尺이나 되니, 보는 이로 하여금 龍이 물줄기를 타고 오르는듯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 瀑布를 飛龍瀑布라 한다. 이것은 外雪嶽의 溪流를 代表하는 險峻한 嚴石左右 岩壁에 銀河를 누비는듯 一大白水帶를 이루어 落下하니 壯觀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崇高無限이라는 말 以外 아무런 말이 없어지는 곳이다. 飛龍瀑布는 龍飛昇天이라는 風景으로 雪嶽山 八景中 하나이다.

⑥ 土旺城瀑布

土旺城瀑布는 一名 神光瀑布라고도 부르며 神興寺에서 東便을 쳐다보면 奇石怪峰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무슨 城壁처럼 보인다. 飛龍瀑布위에서 두단으로 이루어서 連結되어 있는 이 瀑布는 一種의 連瀑이기도 하다. 土旺城瀑布가 다른 瀑布보다 빼어나게 보이는 까닭은 큰 봉우리가 瀑布의 背景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土氣가 旺盛하지 않으면 奇岩怪峰이 發生하지 않는다는 五行說에서 瀑布이름이 緣由된 것 같다. 釋迦峰, 文珠峰(文殊峰) 普賢峰, 翌滴峰, 露積峰, 文筆峰等이 城壁처럼 둘러 싸고 있으니 土旺城瀑布라고 이름 지을 만하다.

이 瀑布는 外雪嶽에서 首位를 차지하는 瀑布이며 城壁처럼 깎아진 곳으로 飛流直下하는 그야말로 奇觀이다. 멀리서 보면 深深山峽 暗灰色 바위에 하늘의 織女가 한 필의 명주천을 늘어뜨린 것같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에서 밀려내리는 흰 溪流는 淸涼의 世界를 열고 떨어지는 물소리는 永遠히 그치지 않는 無休止妙의 大曲같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千萬音 念佛소리가 들리는 것같으며 더욱 장하고 符하다.

外雪嶽의 深勝가운데 水聲山色으로 으뜸가는 絶勝의 名所이다.

⑦ 臥仙臺

臥仙臺는 옛날 神仙이 놀던 곳이다. 神仙이란 것은 急한 여울의 湍(단)의 이름이다. 이 臥仙臺의 盤石은 높이가 約 3尺 그 幅이 10餘間이 되므로 여기서 7·80名의 사람들이 앉아 놀 수 있다. 옛날 이 바위 위에 痲姑仙이란 것은 손톱이 긴 늙은 仙女를 말함이며 臥仙臺는 千佛洞溪谷을 찾아드는 入口에 位置한다.

⑧ 飛仙臺

臥仙臺에서 溪流를 따라 約 300m 올라가면 飛仙臺에 이른다. 飛仙臺는 景致가 매우 아름답고 비가 많이 내리면 飛仙臺 盤石 위로 흘러 몇번이나 꺾이는 瀑布를 이루며, 連續된 바위에 瀑布를 이루는 觀景은 흡사 羽衣 자락이 펄럭인 것과 같으며 痲姑仙女가 이곳에서 昇天하였다는 說에 依해 飛仙臺라 하였다 한다. 痲姑仙女가 飛天한 盤石위에는 數많은 詩人墨客들과 나그네들이 이곳을 찾았던 痕迹(흔적)을 바위돌에 이름을 數없이 새겨 놓았다.

飛仙臺를 한층 더럽힌 이 이름들은 數千萬代에 飛仙臺의 景致를 흐려놓은 이름들이 아닐 수 없다. 봄이 오면 山花의 냄새가 골짝을 메우고 여름이면 綠陰芳草에 鮮味를 느끼며 가을이 오면 丹楓에 물들이고 눈 내리는 겨울이면 雪花가 골짝을 粧飾하니 勝景이며 開花雪景은 유달리 빼어난 雪嶽山 八景 가운데의 하나이다.

# 現場을 찾아서

⑨ 文珠潭

飛仙臺에서 千佛洞溪谷을 따라서 올라가면 約 1000m 地点에 맑은 玉水가 고인 곳이 있다. 文珠潭은 文殊潭이라고도 한다. 文珠는 文殊의 同意이며 別稱이다. 傳하는 말에 依하면 아득한 옛날 文殊峰을 形成할때 釋迦如來의 左補處로서 智慧를 맡은 菩薩인 文殊菩薩이 이 맑은 물에 沐浴을 하셨다 하여 文殊潭이라 하였다 하고 또는 世宗大王때 文殊菩薩이 이 연못에서 沐浴하시어 緣由되었다는 說도 있으며 이 潭의 形狀이 둥글게 보이면서 모나고 모나게 보이면서 둥글게 보임으로 아담 하다.

⑩ 權金山城

雪嶽洞에서 神興寺로 들어가는 一柱門에서 西쪽으로 바라보면 하늘을 찌르는듯한 굉장한 봉우리가 權金山城이 있는 돌산이다. 이 城은 山城의 形態를 갖추고 있으며 海拔 860m의 險峻한 곳에 山城을 쌓은 것은 執拗(집요)하게 달려드는 外敵을 막기 爲해서였다. 이 돌산의 위에 오르면 옛날에 둘레가 1,112尺의 城壁을 쌓고 높이가 約 4尺이나 되었다 한다. 이 權金城의 築造年代는 確實히 모르지만 高麗 高宗 41年(西紀 1254年)이라고 傳해 지고 있으며 이때에는 나라에서 여러 山城에 防護別監을 派遣하였으며 高宗40年에는 蒙古兵이 全州, 忠州, 春州(春川)等地까지 攻擊하여 南下하였으므로 나라에서는 여러道에 使臣을 보내어 山城이나 海島에 百姓들을 避難케 하였다. 이 權金城도 이때 急히 쌓은 것으로 보이며 權氏 金氏 두 將軍이 百姓들을 이 城에 避難시켜 그들의 生靈을 救했으므로 그후부터 權金城이라 傳해진다.



⑪ 金剛窟

飛仙臺앞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돌봉우리가 있다. 이 봉우리를 彌勒縫이라 한다. 彌勒峰 中間 허리에 큰 石窟이 있다. 이것을 金剛窟이라 한다.

깎아지른 듯한 큰 돌산허리에 窟을 팔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金剛窟은 自燃窟이라 하겠다. 窟안 넓이는 四方 20餘尺이나 되고 그안에는 慈悲스러운 觀世音菩薩像이 奉安되었고 信心이 敦篤한 佛子들에게는 所願을 成就할 수 있는 기도道場이기도 하다. 오르기 험든 바위 비탈길과 쇠구름다리를 간신히 오르면 지극히 아담하고 빛나는 觀景이 展開된다.

저 멀리 東海의 滄波가 보이고 겹겹이 쌓인 石壁처럼 보이는 千佛洞의 佳景이 향기롭고 거룩하게 보인다. 그 옛날 新羅때 부터 高僧大德들의 발자취. 元曉, 義湘스님의 修行處였던 이곳이야 말로 神山聖域임을 더욱 깨닫게 한다. 이 姿婆의 모든 煩惱를 窟속으로 미치는 夕陽에 띄워 보내고 조용히 一心으로 合掌所願하면 各己 所願이 成就된다는 곳이며 數億劫同安 風雨에 씻기고 깎여도 봉우리는 壯嚴하고 淸秀함이 옛 그대로이니 崇高한 느낌은 佛敎信仰처럼 샘솟는다. 이 金剛窟 亦是 그 形成이 신기하므로 八奇中의 하나이다.

※이外의 名所와 百潭寺, 五歲菴, 鳳頂菴等은 다음號로 미루기로 한다.

# 그리운 내 故鄕



사진 / 전 태극

# 건강한 삶에의 향수

# 건강한 삶에의 향수

李 盤／劇作家

**어판장의 새벽은 생명력이 약동치는 삶의 마당이 된다. 나는 배에서 고기를 부리고 있는 친구를 향해 손짓한다 친구는 나를 보고 별로 반가와 하지도 않으면서 곁으로 온다.**

우리는 슬프게도, 생각하고 사색하는 선비적인 삶을 동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얀 옷을 다려입고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가족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책상에 앉아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생활인이 되려고 한다. 그 생활인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 현실의 조으는 듯한 안일을 위해서 담을 높이 쌓는다. 남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표정을 숨겨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품 속에 비수를 감춰야 할 때도 있다. 슬프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또한 그래왔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또 하나의 생활 방법, 삶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서울에 살면서 비교적 자주 속초 어판장을 찾는 편이다. 속초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보다도 어판장에 더 자주 드나든다.

지금 어판장이 들어선 곳에는 6.25때 판자집들이 여나므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개건너 청호동에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정유공장 건물이 하나 있었을 뿐, 집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온통 모래사장과 해당화와 잔 소나무뿐이었다. 그 소나무 밭에 야전용 미군천막이 두어개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화약고 였는지, 언젠가 불이 났는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흑인들이 도망치고 우리는 개건너에서 그 광경을 신나게 구경한 적이 있다. 그때 청초호는 맑기만 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청초호 바닥을 두손으로 갈라서 조개를 찾았다. 가을 하늬가 터지면 고향을 등지고 나온 어른들은 선창가에 앉아 "이 바람에 돛을 펴면 고향에 단숨에 갈 수 있다."고 혀를 차셨다. 우리는 그분들의 한숨은 아랑곳 않고 작은 전마선의 돛을 펴고 개안을 누볐다. 청초호에는 軍의 징발선외에는 風船들뿐이었다. 장마가 끝나는 날이면 풍선들이 돛을 말렸는데 그것은 그대로 축제의 깃발과 같이 화려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미군 포대에선 하늘을 향해 포를 쏘았다. 푸른 하늘을 검은 점으로 못박던 탄알들. 아픔과 기쁨이 그대로 가슴에 박혀 있는 기억의 선창가. 그래서 나는 속초 어판장을 자주 찾는다.

어판장의 새벽은 생명력이 약동치는 삶의 마당이 된다. 나는 배에서 고기를 부리고 있는 친구를 향해 손짓한다. 친구는 나를 보고 별로 반가와 하지도 않으면서 곁으로 온다.



**오늘도 나는 연구실에 앉아 속초어판장과 내 친구를 그린다.**

"무엇하러 왔어?"

"그냥. 심심해서."

"팔자도 좋군."

친구는 도시 생활에서 내가 권태를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도시에서 헤어날 수 없으면서 되지 못하게 어부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의 심드렁한 표정에 기분이 상해 발길을 돌리려고 한다.

"어디가는 거야?"

"설악동에."

"거긴 왜 가?"

"혼자 온게 아니야."

"얼굴만 보고 가려면 무엇하러 왔어? 해장이라도 하고 가야지."

우악스러운 손이 내 팔을 잡으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짐짓 나는 친구가 그래주길 바라고 있었다.

어판장 해장국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해장국 둘하고, 술 한병 줘요."

"난 아침부터 술을 못해."

"병신같은 소리 집어쳐."

사실 나는 속초에서 술을 마실 입장이 못된다. 지금은 나가는 교파가 달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앙교회에 다녔다. 친자식처럼 가르쳐준 그 어른들이 계신 곳에서 얼굴을 붉히고 다니기란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녁도 아닌 새벽에 술이라니……. 기가찰 노릇이다. 할머니가 이홉들이 소주 한병과 잔을 두개 가져온다. 친구는 이홉들이 소주와 잔을 할머니에게 도로 주고 평상시 대로 달라고 한다. 할머니는 나를 한번 보더니 사홉들이 소주 한병과 대접을 두개 갖다준다. 친구가 대접에 술을 부으니 병은 그대로 비고 만다.

"할머니 한 병 더 줘요. 자, 자 들어."

친구는 단숨에 대접을 비운다. 나는 하얗다 못해 퍼런 술을 들여다 보며 겁에 질린다. 아침에 학생들과 양폭으로 가기로 했는데, 선생이 취해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두째 문제다. 내 몸이 이 술을 이겨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친구는 막무가내다. 내가 마시지 않으니 옷에다 뿌릴 기세다. 나는 죽는 시늉을 하고 몇 모금 마신다. 그는 벌써 두 대접을 마시고 세번째 대접에 술을 붓고 있다.

"이젠 그만 마셔."

"야, 임마. 찾아 올려면 저녁에 와야지. 새벽이 뭐야? 저녁에 와야지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에 가지."

지금 이 소리를, 내가 인솔해온 학생들이 들으면 무엇이라 할까? 나는 실제로 그 여학생들이 듣기라도 한듯이 목을 움추리고 주위를 살핀다.

"다음에는 꼭 저녁에 와!"라는 말을 남기고 친구는 배에 훌쩍 뛰어 올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하던 일을 계속 한다.

룻소는 '사색하는 동물은 타락한 동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아처럼 사는 푸른 삶, 내 친구는 분명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주신 디오니소스적인 삶, 웃고 싶을 때 웃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울 수 있는 삶, 그 자연스러운 삶을 뒤에 두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저무는 도시의 그늘을 배회하는 나의 하얀 삶에 비하면 친구의 삶은 얼마나 푸른 것인가. 그의 삶에는 눈치를 보아야 할 일이 없다.

오늘도 나는 연구실에 앉아 속초 어판장과 내 친구를 그린다.

(숭의여자전문대학 교무처장)

# '86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행사를 치르고



朴 承 禹
/속초시 총무과장

성화는 원래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 행사로서 새로운 성지에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일종의 신앙 행사였다.

오늘의 올림픽에서 성화는 고대올림픽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과 함께 인류의 평화제전에 대한 하늘의 축복으로 기원한다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성화의 점화의식, 채화, 성화봉송은 이제 올림픽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행사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화봉송 행사가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를 여드레 앞둔 9월 12일 유서깊은 문화의도시 경주의 화랑교육원에서 채화되어 아시아인의 영원한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며 동해안, 내륙, 서해안 세코스로 나뉘어 1천4백여 주자의 손과 손을 거쳐 1만여리를 달린 뒤 9월 20일 올림픽 주경기장에 점화될 성스러운 성화가 동해안 제1코스 "화합의 길"로 명명된 대구, 안동, 태백, 강릉을 거쳐서 9월 16일 설악산 소공원에 안치되어 9월 17일 인제로 봉송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본市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성화봉송맞이 행사를 앞두고 1년전부터 주자요원 선발과 봉송로변 환경정비, 문화행사를 보다 특징적이며, 독창적인 행사로 치르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에 임하였다.

먼저, 성화를 봉송할 주자요원 선발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민들이 나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사회 저변층까지 참여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신청이 쇄도하여 본市 34개구간(34km)에 필요한 주자요원 442명을 각계 각층을 망라한 가운데 1,2차에 걸쳐 체력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다. 성화봉송로변에 대한 중점 정비로는 총 사업비 4억 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건물정비 40동, 불량환경정비 17건 주변지역 녹화사업과 28km에 달하는 꽃길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무렵에 뜻하지 않은 태풍(베라호)의 영향으로 성화봉송로 일부가 유실되는등 그동안의 땀흘린 보람도 없이 하루 아침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픔도 있었으나 시민모두의 헌신적인 참여에 힘입어 태풍이 할퀴고 간 뒷자리를 성화봉송에 차질이 없도록 말끔히 정비하였다.

한편, 매년 10월초에 개최하던 설악제 행사를 성화봉송 기간을 맞추어 그 시기를 9월 14일로 앞당겨 실시하도록 조정하는등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을때 성화는 30억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가을의햇살이 내리쬐는 9월 12일 아침 10시 화랑교육원에서 채화된 성화가 대구, 안동을 거쳐 태백에 도착하였을때 본市에서는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제인 제21회 설악제 행사가 성대히 거행되고 있었다.

성화는 9월 15일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9월 16일 오후 4시 54분 양양군 주자에 의해 봉송된 성화가 설악산 입구에서 양양군수로부터 속초 시장에게 인계 되었다.

그순간 이곳에 나와있던 400여명의 시민의 환호와 함성은 하늘을 찌를듯 높았고 대포국민학교의 농악대와 대포동 마을농악이 한층 흥을 돋구는 가운데 첫주자 최인환씨에 의해 출발한 성화는 하얀 연기를 쉼없이 내뿜으며 구간, 구간마다 시민의 열열한 환영속에 최종주자 박난영씨에게 인계되어 당일오후 6시에 설악산 소공원내 자연보호 헌장비앞에



안치 되었다.

안치장소에서는 국내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속초시 청호동 어촌계원50여명이 출연하여 어부들이 힘든일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렀던 뱃소리인 "속초 산대소리"와 큰 냇가를 사이에 두고 양마을이 힘을합해 다리를 놓는 놀이인 "양양패다리놓기"가 각종 마을 민속농악과 한데 어우러져 흥겹게 한마당 잔치가 절정을 이루웠고 이동성화로에 점화된 성화는 마치 수려하고 장엄한 설악산의 기상을 자랑이나 하듯 성스럽게 활활 타오르고 성화안치식은 축제 분위기로 더욱 고조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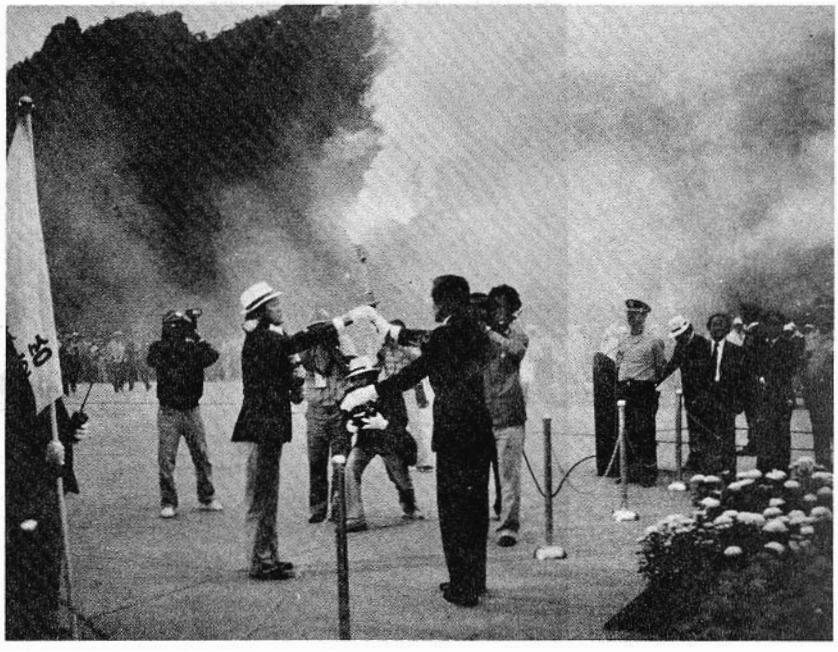
안치된 성화는 다음날인 9 월 17일 오전 10시에 해맑은 동해의 햇살을 받으며 속초사물놀이와 농악놀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출발식을 갖고 양종석 속초시장으로부터 인계되어 다음코스인 시내구간을 향해 힘차게 힘차게 봉송되었다.

성화가 시가지에 접어들자 시민들은 너나 할것없이 연도에 나와 봉송되는 성화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달리는 주자요원들에게 화환을 목에걸어주는가하면, 고층건물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꽃가루를 날리면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들이었다.

이러한 성원속에 봉송된 성화는 설악산 입구에서 다음 성화봉송지역인 인제로 떠날때 시민모두는 아쉬움과 더불어 험한 한계령 구비 구비를 무사히 넘어가 잠실벌 주경기장에 점화되기를 기원했다.

이처럼 1박 2 일 동안 본시에서 성화봉송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시민 모두는 놀랍게 성숙된 문화시민 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주자요원 역시 지역의 명예를 걸고 범국민적 행사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한사람의 낙오와 실수없이 훌륭하고도 완벽하게 성화봉송을 하게 되었음을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민의 열기와 질서있는 성원이 곧 국가의 원동력이 되어 사상처음으로 일본을 누르고 중공까지 위협함으로서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찬연히 떠올랐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간 시민여러분께서는 전국 제1의 선진관광지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손님맞이 환경정비와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보람이 있어 역사적인 성화봉송 행사를 어느 지역보다도 멋지고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이것은 오직 8 만 속초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과 참여의 결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세계속의 선진 국민의 새모습을 보여주고 오랫만에 벅찬 감격과 환호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보람과 자랑을 느끼게한 '86 아시아 경기대회가 16일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그 장엄한 막을 내렸지만 축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의미를 조용히 정리해 보면서 세계인의 스포츠 대제전인 '88 서울 올림픽의 성화가 겨레와 함께 동방에서 불붙기 시작했다는 커다란 의미와 함께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가 성화의 횃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번영이 약속된 밝은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 나의 提言

# 살기좋고
# 인정미 넘친 고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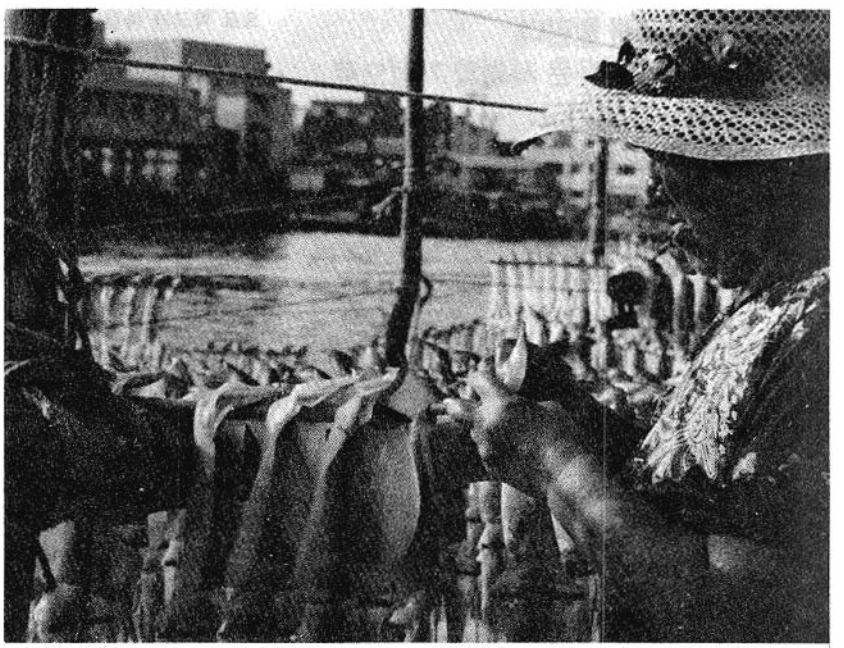


사진 / 金 正日

# 교육의 책무와 향토발전

김 성 기/속초시 교육청 학무과장

**우리는 그 책임을 교육 또는 교육자에게 돌린다. 다시 교육자들은 사회와 가정으로 그 책임을 넘기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책임이야 누가지던……**

급변하는 사회의 삶에 어떻게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끔 당황할 때가 있다. 500年 전통의 유교적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구조가 뿌리내린 우리나라에 서구문화가 접목되어 혼돈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갈등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렵다. 30대 이하는 서구문화에 흡수되어 서구적 스타일의 사고방식으로 핵가족 문화를 이루고, 30대이상 50대 이하는 한국적 뿌리와 서구적 문화와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60대 이상은 한국적 고유전통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문화에의 향수를 갈망하고 있다. 이런 혼돈된 사회 현실은 가치관 문제를 거론시키고 따라서 교육문제도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사회가 각박하여져 폭력배가 날뛰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며 가치관의 변질에 따른 종래의 도덕 관념은 별 가치가 없는 개념으로 버려지게 된다. 우리는 그 책임을 교육 또는 교육자에게 돌린다. 다시 교육자들은 사회나 가정으로 그 책임을 넘기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한다. 그러나 책임이야 누가지던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사회에서 살아 가야만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하고 변질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을 아무 대책없이 비판하는 자들을 본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형성된 것이 국가임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나는 가정의 일원이며 교육의 기본은 가정 문화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하루의 대부분을 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여건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사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모든 책임을 가정이나 사회에 넘겨 버리라는 것은 아니며 사회와 가정을 바탕으로 학교가 바람직 하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고장의 자연적 여건에 자랑과 자부심을 잊지 않는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룻소의 말을 떠 올리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전원 생활에서 자란 순박한 농어촌 사람들의 인정미를 피부로 느껴왔던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대자연의 오묘함을 듬뿍 담고있는 고장에서 살고, 사철 찰싹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넓은 동해를 향하여 소리치며 나아가는 진취력을 평소 익혀왔다. 설악의 웅장함과 오묘함을 함께 하여 왔다.

이제 우리가 가꾸고 다져야 할 것은 문화의 진흥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운 문화를 꽃 피울 때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첫째 조건으로 자연적 조건보다 더 큰 것이 교육여건이다. 몇년 전만해도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는 실정이었으나 이제 차츰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자. 시민들의 학교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타 지역으로 보내는 사례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시민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노력이 기대된다. 둘째는 질 높은 시민정신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관광 인파 속에 얻을 것, 버릴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세째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6.25의 상처속에서 연연이 이룩해온 도시, 새로운 이 고장을 이룩할 원동력은 교육이다. 가정·사회·학교가 3위 일체가 되어 이 고장 문화를 창조해 갈 때 우리 문화의 꽃은 활짝필 것이다.

## 인간의 가치를 재는 척도

# "孝", "禮",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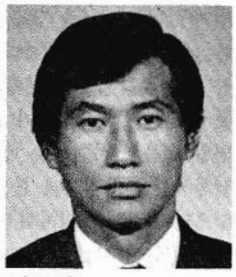


박 용 권/속초시 도문동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물론,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가치만은 공통된 척도로 재어야 한다고 본다. 이 기본가치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孝", "禮", "義"라고 외치고 싶다. 물론,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孝"를 삶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효자나 또는 열녀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사회는 어떤가?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메우고 있는 폭력배들의 집단살인 난동사건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각과 슬픔을 안겨다 주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사회상의 단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다른 나라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모두 이런 일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일수록 저학력자가 아닌 고학력자가 많다고 한다. 이번 집단살인 난동사건의 범인들중 4명은 대한 유도대학에 재학했던 자들이라 한다. 오늘날 우리가정과 학교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학력고사 점수에만 모든 것을 쏟고 있다. 올바른 인간을 형성한 후에 판·검사도 되고 의사나 선생님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본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과목인 인성교육이 부재 중이다. 산업화 사회의 추세와 인구의 증가가 가져다 주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孝", "禮", "義"의 수요는 더욱 급증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일대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사회의 변화추세에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孝"요 둘째도 "孝"다. 즉, 경로효친 사상앙양 교육뿐이다. 효의 사상이 충만한 사람은 "禮"와 "義"는 자연히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도 "孝", "禮", "義"가 지켜지는 사회일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모든 기업체와 직장, 모든 교육기관을 통하여 孝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참된 문화는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 위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효, 예, 의"가 충만한 우리 향토 위에 속초의 문화가 꽃피기를 기원한다.

> "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 **고취시키는 일이다.**
>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는**
> **孝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켜**
> **나가야 한다.**
> "

# 살기좋고 인정미넘친 고장으로



최무일
／속초라이온스클럽회장

> 아름다운 山, 잔잔한 호수,
> 짙푸른 바다, 다정한 이웃,
> 정다운 친구…
> 이젠 내고향이 된
> 속초에 깊은 애착을 느낀다.

산높고 물맑은 이 고장 속초에서 생활한 지도 어언 십수년이 지났다. 내가 처음 이 고장에 왔을 때를 지금도 가끔 돌이켜 본다. 밤새 야간열차를 타고오던 일이며, 38경계표지를 뒤로하고 섬뜩한 긴장감을 느꼈던 일이며, 밤새 울어대는 불안한 경적소리며, 이 모든 것이 다 지난날의 기억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이란 물 흐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나 생각하니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렇게 낯설기만 했던 이 고장이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낀다. 아름다운 산, 잔잔한 호수, 짙푸른 바다, 다정한 이웃, 정다운 친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젠 내 고장이 된 속초에 깊은 애착을 느낀다.

이 아름다운 고장에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또 우리고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자기고장을 느끼며 생활하고 또한 그 분위기에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고장을 알뜰히 사랑하고 정성되이 가꾸어서 우리 모습이 참되고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개성과 환경이 다르며 또한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바 직분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직분중에 누가 더 보람되고 더 훌륭한가는 그 다른 직분때문이 아니고 그 직분에 얼마나 애착을 느끼고 충실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직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자기 일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비록 보잘 것 없고 적은 일이지만 이 일은 나 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하느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성경말씀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남과 다른 직분을 타고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뛰는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여 열심히 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보람은 물론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며 우리고장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직분에 긍지를 가지고 충실하여 보다 살기좋고 인정미 넘치는 우리 고장 속초를 가꾸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

# 한국관광의 요람지 설악권



李 炳 連／東宇專門大學

미래세계에 각광을 받는 업종의 하나로 관광사업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도의 지식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文明의 利器가 그것을 대신해 주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있다. 기계에 의한 상품생산, 사무자동화의 관리업무처리, 정보망과 신속한 교통수단에 의한 원활한 유통체계등등이 그 예가 되겠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와 소득의 향상을 가져오게하여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추구하면서 관광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어디가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어느 한 곳에 경치좋은 산이 있다해도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늘 항차 뛰어난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이라면 관심을 끌게 하는 관광대상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 다 하겠다.

속초는 산수가 좋고 생활환경이 좋아 전국에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주변환경 또한 좋은 관광환경으로 온통 둘러 쌓여져 있다.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과,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1982년 5월 UNESCO에 의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될만큼 자연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설악산은 산악관광지로 한국에서 으뜸이요, 맑고 오염되지 않은 황금모래사장을 자랑하는 해안관광지 해수욕장들, 아름다운 청초호와 영랑호는 호수관광지이며, 온천관광지로 척산온천이 하나의 관광권역에 함께 하고 있어 실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또한 명산대찰이라 할 수 있는 신흥사와 주변 암자는 종교문화관광지이며 몇년전 새로이 레저타운이 학사평에 건설되었으니 명실공히 설악산 관광권은 한국에서 제1의 관광지라 하겠다. 인구가 팽창하고 관광이 대중화되어감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이지역을 찾지만 대부분 天惠의 자연자원인 설악산을 구경하는 "보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조류와 환경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취미활동도 변화되고 있듯이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도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 그리고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어 종래의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설악권 관광자원이 이 고장 주민들의 관광지로 남아 있지 않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관광객동향에 대비한 새로운 수용태세를 이 지역주민들이 앞장 서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멀지 않아 88하계 올림픽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91년 제17회 세계 잼보리가 바로 이고장에서 치루어지고 나면 이 지방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한편으로 국민관광을 위한 관광상품개발에 힘써야 함은 물론 또한편으로는 각 나라 국민들의 취향을 정보망을 통해 수집하여 이에 알맞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생산된 상품이 안 팔린다고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구매하도록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관광객의 심리를 유도하는 상품개발을 해야한다. 얼마전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山間에 있는 저수지엘 갔다. 크지 않은 저수지 윗쪽에 송어와 산천어 양식장이 있는데 회집을 겸하고 있었다. 저수지에 오는 낚시객을 위하여 회집을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회집으로 인해 外地人의 流入이 많을 것이 豫想된다. 더우기 양어장은 대개의 양어장이 씨멘트로 축조를 하고 철망을 쳐놓고 있지만 그곳은 자그만하고 구불구불한 다락논에다 울창한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파이프로 연결하여 만들어졌다. 시골 내음이 물씬 나는 정취때문에 도시인들이 많이 찾아 오리라는 一石二鳥의 着想이라 하겠다. 속초지역은 전술한대로 다양한 관광지인만큼 여러類型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내지 상품개발이 용이하다. 한국관광의 요람지 설악권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바램은;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규모가 큰 시설업체에서 작은 토산품판매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사업이라는 면에서 영리추구에만 집착하지말고 시설개선과 새 관광상품개발은 물론 성실한 서어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는 관계로 관광업자에겐 조언을, 행정기관에겐 건전한 건의를, 그리고 외래관광에게는 친절한 관광요원이 되어 모두 이 고장 관광발전에 힘써 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主人精神에의 참여를

윤종구／새마을운동중앙본부강원도지부 속초시지회장



> 지역사회의 主人으로서 맡은 바
>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 그들 지역사회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 사회가 되므로
> 그 구성원들은 모두가
> 아름다운 생활, 풍요로운 삶을
> 누리게 된다.

우리들 世代에 가장 많이 使用되는 말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主人情神이라는 말을 많이 使用하고 있다고 生覺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平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섯가지의 主人精神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본다.

첫째로 自己自身의 人生과 運命에 對한 主人精神으로서 自身의 人生을 남이 살아줄 수 없듯이 남의 人生 또한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人生과 運命에 대하여 자기자신의 主人으로서 責任을 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決定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둘째로는 家庭에서의 主人精神으로, 家庭이란 人間에게 있어서 基本이며 根源이 되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原初的인 人間集團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누린다. 그러므로 가정을 구성하는 各個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自己家庭의 행복과 發展을 위하여 가정의 주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 가정의 행복과 불행 번영과 쇠퇴는 전적으로 가정구성원들의 책임이다.

세째로는 職場에서의 主人精神으로, 人間은 社會生活을 하는 存在이므로 좋든 싫든간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相互作用을 하면서 각자 自己生活 터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職場이다. 自己가 속한 생활터전에서 職責과 織位를 나누어 分担하면서 自己 직장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발전이 곧 자기의 발전이므로 직장에서의 主人精神으로 熱과 誠을 다할 때 스스로 보람있는 人生을 創造하는 것이다.

네째로는 自己가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主人정신으로써,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고장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一員으로 삶을 누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귀속심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가 속한 지역사회가 보다 더 아름답고 밝고 명랑한 社會가 되기를 希求하고 있다. 그리하여 地域社會의 成員들은 各自 地域社會의 主人으로서 役割과 使命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主人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使命을 다할 때 그들 지역사회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社會가 되므로 그 구성원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生活,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다섯째로는 國家의 主人으로 또는 民族의 主人으로서의 主人精神이다. 사람은 누구나 國家, 民族의 한 成員으로써 生存한다. 그리하여 國家, 民族의 발전과 융성을 위하여 透徹한 主人精神을 가지고 살아간다.

上記한 다섯가지의 主人精神 중에서 自身과 가정에서의 主人精神은 누구를 막론하고 훌륭하고 뜻있게 잘 수행하면서도 직장에서 지역에서 또한 국가 民族으로서의 主人정신은 미약하고 허술한 것이 우리들의 실상인듯 싶다.

직장에서 지역에서 나라의 主人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못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남들이 하니까 또한 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思考와 意識이 우리들 사회에 충만되어 있다. 우리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계속 머문다면 우리들 직장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융성은 누가 할 것인가? 우리들은 자기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속해있는 조직과 단체에서 투철한 主人精神을 가지고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자세로서 役割과 기능을 다하자. 우리 世代에 負荷된 막중한 일들인 평화통일, 선진조국 창조, 민주주의의 토착, 경제적 풍요로움, 민족문화의 재창조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일들로 모두가 인식하고 참여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하자. 옛말에 있듯이 不積跬步면 無次至千理라고 한걸음이 쌓이지 아니하면 千理에 到達할 수 없다.

모두가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듯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나라의 主人으로써 자기 주위의 조그마한 일들로부터 참여하자.

# "法과 良心"



金 普 漢 / 일복문화관

나의 提言에 앞서 于先 法曹界에서 貢獻하시는 諸資들에게 敢히 法이란 외람된 말을 쓴다는 것이 大端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글을 쓰고 있 음을 理解하여 주기를 바라며 내용면에서 푸른안경을 쓴채 世上의 斷面을 보고 世上이 모두 푸르다고 보는 나의 誤謬와 偏見이 있다면 詰責하시고 凉解하여 주기 바란다.

요즈음 우리社会는 良心을 떠나서 法을 悪用하는 사람들이 많다. 人間은 社会的 存在이며 社会를 떠나서는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人"字와 같이 서로 依持하고 서로 結合하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며 사람이 社会生活을 維持하고 發展시키기 為하여는 秩序(規範)가 必要한 것이다. 이 秩序가 없으면 動物과 같이 弱肉強食으로 힘있는 者만이 살 수 있어 萬物의 靈長이라고 할 수 있는 人間社会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会있는 곳에 法이 있다"는 法言이 나오게 되었고 이 法言은 人間과 社会 그리고 規範秩序는 서로 密接한 相関 関係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法이란 물과 같이 흐른다는 뜻에서 其 글자가 연유되었다고 한다. 法의 存立에 대한 基礎는 우리가 흔히 法学説上, 法은 全能한 神의 意思를 나타낸다는 神意説, 自然내지 理性을 基礎로 하여 存立한다는 自然法説, 國家는 萬能이며 絶対権을 가지므로 國家가 定한 것만이 法이라는 命令説, 強者가 弱者를 支配하는 実力에 法이 存在한다는 実力説, 民族的 特殊性을 重要視하여 國民의 生活 속에서 自然發生한다는 歷史法説, 国民이 社会生活의 規範으로서 承認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承認説, 社会成長内에 共通된 社会意識이 있어야 하며 其意識 内容이 法이라는 社会意識説, 法이 法으로서 遵守되어야 할 根據는 어떠한 価値내지 一定한 理念을 内在시키기 때문이라는 価値説 等 学者마다 多様하게 説明하고 있고 法의 淵源에 対하여는 其表現方式에 따라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나누어져 進化過程에서 不文法에서 成文法으로 履行되어 옴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社会는 모든 規範 속에서 生活하기때문에 法에 対한 权利와 義務의 対應関係가 存在한다. 法의 目的이 法益을 保護하는데 있고 法益을 享愛하기 為하여 法에 賦与하는 "힘"이 곧 权利인데 対하여 義務는 法益의 侵害를 막기 為하여 法이 支配를 받는 者들에게 一定한 行為를 할 것을 命하거나 또는 禁하게되는 拘束을 받으며 또 他人의 어떠한 行為에 대하여는 그것을 容認할 拘束을 받게되는 法上의 拘束을 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크게는 政治, 経済, 社会, 文化, 教育 面에서부터 작게는 이웃, 家廷, 個人에게까지 対應関係에서 義務보다 权利만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政府에서는 庶民生活의 安定을 為하여 住宅普及政策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데도 내집을 마련치 못하는 사람이 많아 経済的으로 弱者인 賃借人의 保護를 為하여 1981年 住宅賃貸借保護法을 制定 公布 施行하고 있다. 이 法의 目的은 民法에 対한 特例를 規定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함에 있다. 其 主要内容을 살피면, 賃貸借期間을 1年 未満으로 定한 境過에는 期間의 約定이 없는 賃貸借을 한것으로 보고 賃貸借가 終了한 境過에는 賃借人이 保証金 을 返還받을 때 까지는 賃貸借関係가 存續하는 것으로 보고 (同法4條) 賃貸人은 賃貸借契約後 6個月이 지나야만 解止通告를 할 수 있는것으로 하였다. (同法5條) 그런데 期間의 約定이 없는 賃貸借에 있어서 解止를 하면 其 解止의 効力은 6個月이 지난 후에야 發生하므로 事実上 1年의 存續期間이 保障되는 셈이다. 當事者가 이에 違返하는 約定을 하여도 그것이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일 때에는 効力이 없다. (同法7條) 또는 期間의 更新에서도 賃貸人이 期間 満了前 6個月 부터 1個月까지 賃借人에게 更新拒絶通知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契約條件을 変更 하여야만 更新하겠다는 通知를 하지 않을 境過에는 賃貸借期間이 満了된 때에 前賃貸借과 같은 條件으로 契約을 更新한 것으로 본다. 다만 更 新되는 賃貸借는 期間의 約定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동법6조) 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얼마나 賃借人에게 有利하게 保護되는 法인가!

우리가 사는 이 社会의 私法関係中 去来面에서의 長点은 所有权 絶対와 契約自由의 原則이 있다는 점이다. 이 契約이 成立으로 부터 解止에 이르기까지 相互 尊重 되어야 할 契約의 約定(口頭約定危含)을 져버리고 良心을 떠나 金銭去来로 解決되는 境過가 있다.

例를 든다면 어떤 甲이라는 賃貸人은 1年間 住宅賃貸借 契約을 하고 再契約없이 2年이 境過하여 賃貸한 建物을 売買하게 되었다. 買入者는 1個月内에 家屋을 明渡하는 条件으로 買入을 願하고 있고 賃貸人은 私情上 必히 家屋을 売渡하여야 함에도 賃借人 関係를 考慮하여 3個月間의 明渡期間을 提示한 바 買入者가 不応하여 買賣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령집의 법규만도**
**2,797종이나 된다. 公私法間에 이 많은**
**법규를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겠지만, 法은**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사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이리라.**

**"**

立이 不可함을 알고 賃借人의 同意(1個月內賃貸借契約解止 및 明渡)를 求하여 賃貸家屋을 賣渡하였다. 其後 1個月의 期間이 흐르자 賃借人은 前記 說明한 保護法을 主張 約束을 不履行 하므로 임대인은 即히 返還한 保証金以外에 移轉費條로 機拾萬원을 賃借人에게 支佛하고도 1個月이 지나도록 約束履行을 하지 않자 法的爭訟直前에 싸운 다음에야 賃借家屋에서 移舍하여 買賣者間의 家屋이 明渡 되었다는 境過와, 어떤 乙이라는 사람은 営業場拒里関係上 自己가 居處하는 家屋을 賃貸하고 営業場所에서 起居中 営業場의 市場化 計劃에 依拠 不得已 自己家屋으로 復帰 하여야 하나 賃借人의 不応으로 機拾萬 원을 保証金 以外로 追加 支佛하였다는 境過와, 어떤 丙이라는 賃貸人은 賃借者가 主人의 同意없이 賃借家屋을 轉貸하고 行方을 감추었기 轉貸者가 家屋主는 外地에 있어 만나지 못한다 하여 轉借者는 家屋主人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가옥주는 同一 建物三層에 居住하였음)이때 轉借人은 權利金 機百萬원을 轉貸者에게 支佛하고 賃貸權을 讓受하였다. 勿論 法上으로 轉借者는 主人과의 賃貸借関係가 成立하지 않는 것은 堂然하다 하겠다. 그러나 後日 必要에 따라 主人은 家屋明渡를 要求하였으나 亦是불응하므로 權利金으로 支佛된 金額의 半額을 保証金과 더불어 支佛하고 家屋明渡가 이루었다고 한다.

例示의 境過 家屋主는 保証金以外로 進加金額을 賃借人에게 支佛하여야 約定이 履行된다는 共通点이 있다.

句論 이 경우 賃借人 이 金額을 要求 하는 強行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眞情 賃借人이 法의 保護를 받으려면 保証金以外의 金銭去來는 없어야 할 것이며 상기 예시를 볼때 임차인은 同 保護法을 惡用 商行爲를 자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법은 선의의 보호책이지 악의의 보호책이 아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賃貸人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이 共通된 点에서의 問題性은 指摘코자 함이다.

句論 賃借人의 立場도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겠지마는 賃借者의 境遇 모두가 賃貸借 契約 解除 以前에 이미 解止履行環境与件이 造成되었는데도 (例 : 賃借者가 家屋을 事前買入 하였다든가 第三者와 住宅賃貸借契約을 締結하고 移舍할 房을 求하고 移舍를 遅延하는 境遇) 賃貸者의 家屋을 明渡치 않고 契約解除를 遅延하는 故意性이 內在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같은 幣習이 蔓延되면 社会悪이 되어 明朗한 社会가 이룩될 수 없다.

요즈음 흔히들 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法執行이 弱해서인지 法이 受容限界를 벗어나 拘束力이 없어서인지… 우리는 法生存說이든 权利生存說이든 間에 法은 지키되 悪用은 말아야겠다. 그러기에 저 有名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도 悪法도 法이니 하고 毒盃를 마시지 않았는가.

지금부터 2,200余年전 漢高祖가 秦의 苛法을 고쳐 만든 法約三章에도 殺人者死, 3,400年前 600余種의 모세律法 當時에도 殺人者死(逃避域에 入域時除外)로 文献에는 記録되어 있다. 마땅히 生命과 人間의 尊嚴性을 重視하는 今世의 法보다 當然하다고 본다. 聖書에는 法이 없으면 罪가 죽은 것이라 했다. (로마서 7 : 8)

현재 우리나라에서 施行되는 法令集의 法規만도 2,797種이나 된다. 公私法間에 이 많은 法規를 어떻게 알고 지키느냐 하겠지마는 法은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우리 社会가 発展推持 되어가는 것이리라,

事物의 制度와 世俗法은 改廃되나 自然法(自然法則)은 옛과 같다. 집이 있으면 집 지은이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生命과 良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永世토록 変하지 않은 良心의 法을 지키고 갈고 닦아서 正義로운 社会를 만들자!

# 청소년 文化강좌

**文 學** / 현대 아동문학의 추구 ····· 이희갑(아동문학가)
**舞 踊** / 한국무용과 그 분류 ····· 양숙희(한국무용가)
**音 樂** / 음악감상법 ····· 李珍雨(성 악 가)
**美 術** / 회화의 감상 ····· 金光秀(서 양 화 가)

# 현대 아동문학의 추구

## —동화의 모색과 실제—



이 희 갑／아동문학가

우리는 모두 어린이 시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현대의 성인들은 그 연령으로 볼 때 어린이 시절의 경험이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 여름밤에 멍석을 깔고 듣던 옛날 이야기나 눈내리는 날 화롯가에 앉아 할머니로 부터 듣던 전래동화를 아득한 추억의 장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두레박이라든지, 꽃감이 무서워 도망친 호랑이, 도깨비 방망이, 꼬리 아홉개 달린 여우, 콩쥐의 신발 한 짝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 속에 웃고 울고 신나고 무서워 떨던 어린 날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 시절엔 지금 생각해도 허황되기만 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허황되다고 생각하기 보단 밤에 뒷간에 갈때 진짜 나타날까봐 마음 조렸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나간 어린 시절을 아쉬워 하는 일이 많다.

또, 안데르센의 많은 동화는 어린 시절의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교훈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성냥팔이 소녀의 가련함이 승화되어 하늘 나라에 아름답게 오르는 장면, 멸시 속에서도 끝내는 아름다운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 오는 귀중한 동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센 동화를 읽고 그 고운 정신과 풍자적 의미를 아직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전래동화나 읽었던 여러 동화중에서도 어린 그 날들을 지배해 왔고 오늘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동문학이 차지하는 역할은 얼마나 막중한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 또한 서적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게 되지만 그 정신적 기틀이 되는 어린 시기에 있어서의 아동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일생에 거쳐 매우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문학은 순수함과 가장 인간다운 본성 내지는 신의 영역에 까지도 이르는 특수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특이한 본질을 요구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아동문학은 특이한 본질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위협받거나 퇴색되어 가는 하나의 흐름에 강력히 도전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래동화나 안데르센동화 또는 창작동화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아직도 작가나 성인들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최종적으로 아동문학을 소화시켜야 하는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외면당하는 일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요즘 아이들은 전래동화나 일반 창작동화에 식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현대 사회라는 복잡한 사정에서 연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문명 발달,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어릴 때부터 요구되는 교육제도, 한시라도 딴전 피울 수 없게 하여 사고 능력마저 빼앗아 가려는 TV, 어린아이까지도 끄집어 넣어 야단 법석떠는 프로 스포츠,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도시 비대화에 따른 인간 존엄성의 희박, 거기에다가 부유층이라던가 특권층이라던가 하는 따위 등 어른들이 구축해 놓은 울타리 속에 아이들을 꼼짝없이 가두어 놓았다는 점 등은 현대의 어린이의 순수성과 심미감의 시안을 혼돈시키는 필요악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다가 어린이를 하나의 존재와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슴이 멍들고 있는 것.

사랑을 베풀수록 고와지고 통통해지고 색깔이 선명해지기만 하는 어린이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오로지 명령과 작동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 인형같이 되기를 요구하는 어른들의 사고 방식.

길 거리엔 많은 사람이 있고 건물은 자꾸 높아지지만 그 깊은 도시의 계곡 속에 더욱 소외되는 어린이.

배가 고파 우는 어린이가 아니라 사랑과 따스한 인간의 냄새가 그리워 슬퍼하는 어린이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문제화되고 있는 이른바 『무서운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모든 일에 대하여는 당국이나 종교 단체, 기타 유수한 단체에서 개선책과 선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언급되어야 하고 여기서는 아동문학인들에게도 많은 과제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므로써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나 시인들이 좀더 바람직한 인간 추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더하고 아동문학 세계를 어떻게 재 조명하여 그 실태를 여러 방향으로 정확히 파악 처방하느냐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아이들의 취향에 의해 아동문학이 좌지우지 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구태의연한 소재와 구상, 그리고 패턴만 고집말고 어린이들의 생각과 그들의 세계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느냐를 아동문학하는 사람들은 직시하여 아동문학의 본질은 항상 있으되 그 수단과 의도는 새롭게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있는 아동문학 작품이 다시 어린이들과 접근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새로운 모색이 어떤 면에서 추구되어야 하는가를 동화라는 장르에 국한시켜 말하고자 한다.

동화를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우화(Fable), 옛날 이야기(Fairy tale), 전래동화, 민화, 전설(Legends), 신화(Myth), 생활동화등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생활동화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들은 공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소재를 주축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화에 있어 소재별로 다시 분류하면, 공상이나 상징적 또는 환상적인 면의 동화를 환상동화(Fantasy)라고 말할 수 있고 어린이의 일상 생활에서 테에마를 설정하여 보편 타당성을 기조로 스토오리를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인 생활동화(Reality)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알고 있기는 『동화는 리얼리즘과 팬터지의 세계를 통일성 있는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동화를 통하여 현실에서의 기쁨과 슬픔, 또 현실을 초월한 끝없는 상상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객관성과 인간 의식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의 창조를 추구하는 주관성의 능력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길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화에서 소재의 내용을 가지고 동화의 본질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팬터지와 리얼리티에서 오는 차이인데 리얼리티에서는 또 생활동화와 소년소설로 나누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활동화와 소년소설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은 참

으로 모호하고 아리송한 구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왜냐하면 생활동화나 소년소설 모두 다 리얼리티의 입장을 취해 일상 생활에 침투되어 그들의 내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생활동화는 동화라는 특성 즉, 산문보다는 운문에 가까운 문장으로 쓰되 대개 구성과 소재에서 단순하며 국민학교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삼는 것이고 소년소설은 완전히 소설적 형식에 입각하여 구성과 소재의 다양성과 중학교 학생까지 독자층으로 삼는다.』

하지만 요즈음의 동화는 독자층 가지고도 잘 구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동화도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화 -팬터지를 말함-와 소설 -소년소설-의 비교를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조 지훈씨는

『동화(팬터지)는 시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학 형식인 소설(소년소설)에 비해 공상적이요, 상징적인 문학 형식』이라 했고

김 동리씨는

『동화에 나오는 개와 돼지와 곰과 참새는 소년 소녀와 더불어 말하고 노래부르고 춤출 수 있지만 소년소설에 나오는 개와 돼지와 곰과 참새는 사람과 더불어 말을 건넨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출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팬터지가 아니면 동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동화는 어디까지나 팬터지, 우의성(愚意性), 풍자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김문룡씨(아동문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팬터지를 다루는 환상동화가 아니면 동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오만한 평자(評者)와 작가들도 있다. 그런 오만한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려는 작품을 쓰다보니 현실에서 환상 세계로 들어가려면 〈꿈〉을 소설적 장치라고 얼핏 생각하여 전근대적인 창작기법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 작품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다. 동화의 본령(本領)을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무서운 아이들〉에게 있어선 환상이란 하나의 악세사리에 불과할 뿐이다. 환상도 어디까지나 시대정신과 현실에 착안된 환상이어야 하지, 환상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상과 같은 두 주장에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시급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아동들에게 외면당하는 동화의 패턴을 그대로 고수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팬터지의 동화를 통해 상상의 날개를 맘껏 펼친 어린날의 기억은 지금도 황홀하고 신비스럽기만 하다. 리얼리티의 동화를 통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곳에서 용기있는 인간을 만나고 인간 사랑을 배웠던 어린날의 시절 또한 인생의 값진 한 매듭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팬터지 동화가 자칫 누를 범하는 무작정 상상의 세계, 현실이라는 토대가 무시된 허공중의 환상, 과학적 논리가 결핍된 세계, 걸핏하면 꿈이야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애가 특수한 환상의 세계라는 것에 의해 반감된다든지, 허무감 따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겠다. 또한, 일부 리얼리티 동화가 범하는 지나친 현실 참여로 선악이 구별되지 못하고 마구 나열되는 것. 풍자라는 명목으로 현실의 비판, 우월주의, 초인주의탈피 육적(肉的)인 것보다 정신적인면의 추구로 패턴을 바꾸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요즈음 흔히 말하기를,

『피터 팬 같은 동화를 볼 수 없고 재미있고 감동 깃든 동화가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에 제일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동화 작가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진실과 성의로써 글을 써야 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독자가 어린이라는 만의 하나 헤이된 정신을 가진 동화작가가 있다면 붓을 꺾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노작을 하며 그들의 세계를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한껍질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같이 아파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앞에 자기를 내 세우지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권위주의를 버리고 아이들 세계보다 자기 도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질타보다는 용서와 너그러움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정 사랑으로, 인간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질수록 그속에서 나오는 글은 설령 문장의 미숙이나 어떤 시대사류에 걸맞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독자들에게 끝없는 감동과 더없는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주리라 생각한다.

# 한국무용과 그 분류



양 숙 희
/속초무용 학원장

한국무용의 원형은 흥을 어깨에 받아서 절도있게 원심적으로 사지에 발전시켜 〈멋〉을 부리는데 있다.

즉 〈흥〉은 한국춤의 태도이고 〈절도〉는 방법이며, 〈멋〉은 춤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춤의 철학은 우리의 맑은 자연풍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무풍이 경쾌 활달하며, 그 흥겨움이 시간을 초극하는 태평적인 형태를 이룩하게 한 이유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무용의 우위성은 가락(음률, 장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춤은 가락에 맞추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가락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테마성에 있다. 때문에 가락의 체득이 없이 춤을 만들수는 없다. 한국춤의 명수는 모두 鼓手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분 류】

한국무용은 그 형태상 의식무용, 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의식무는 문묘, 종묘의 제향에 하는 일무와, 사찰에서 재를 올릴 때 행하는 법고놀이이며 〈바라춤〉 〈나비춤〉 따위를 말한다.

- 한국무용
  - 궁중무용
    - 일무
      - 문무(보태평지무)
      - 무무(정태업지무)
    - 정재(향악무, 당악무) - 처용무, 가인전목단, 수연장, 헌선도, 포구락, 오양선, 향발무, 아박무 등등 50여종
  - 민속무용
    - 무속무용 - 살풀이, 무당춤, 부채춤, 장고춤
    - 가면무용 - 봉산탈춤, 송파산대, 동래어류, 북청사자놀이, 통영오광대
    - 연희(오락)무용 - 농악
    - 불교무용 - 승무, 범패, 나비춤, 바라춤
  - 민속화된 궁중무용 - 화관무, 칼춤, 북춤

그런데 궁중무용은 예법이나 철리, 그리고 악(樂)의 화려함 때문에 춤가락이 극도로 제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적인 창의등이 거부되어 결국은 음악의 노예처럼 존재하여 왔었다.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의 차이는, 대개 궁중무용은 여기가 춤추고 춤가락이 쉽고 단조하며 템포가 느리고 성가로서의 춤의 내용이 설명하게 되었으며 의상은 철리에 의하여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비해, 민속무용의 경우는 남자가 춤추었고 춤가락이 자재 활달하고 기교가 위주되며 템포가 빠르고 의상의 제약이 없이 흥에 맞게 춤춘 것이 틀린다.

이상 나열한 한국무용 中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추어지는 화관무, 부채춤, 살풀이, 바라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화관무

화관무는 민속화된 궁중무용으로서 머리에는 5 색구슬로 찬란히 꽃을 두른 관을 쓰며 손에는 한삼을 끼고, 의상은 신부의 원삼을 입고 추는 춤이며, 춤사위가 우아하며 처음에는 염불장단에 맞추어 큰절을 올린다음 타령, 허튼타령 장단에 맞추어 한삼을 뿌렸다,

접었다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궁중무용이 있는데 노란 앵삼을 입고 화문석 위에서 추는 춘앵무와 손에 목단꽃을 들고 추는 가인전목단이 있다.

### 2. 부채춤

이 춤은 한국민속무용 中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있는 춤 중의 하나이다. 부채는 무용이나 전통적인 의식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소품의 하나로서 이 부채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학적 구도는 그 우아한 음악과 화려한 의상과 더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취를 자아내게한다.

### 3. 바라춤

불교의 의식무용으로 계금보다 훨씬 큰 〈자바라〉라는 금속타악기를 양손에 들고 작법中에서 천수바라의 비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라를 아래 위로 돌리면서 치거나 발목을 바를 正자로 짚어가며 천수경에 맞추어 춤을 춘다.

절에서 재를 올릴 때에 법당 불전에서 춤을 춘다.

### 4. 살풀이

남도 살풀이 굿에서 파생된 무속무용으로 장단을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등을 사용 "시나위"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춘다.

"시나위"란 "신을 위한다"라는 뜻이다. 춤을 추는지 머물러 있는지 분간 못할 정도로 우뚝 서 있는 것도 같고 다시 가벼운 물결처럼 움직이다가 갑자기 격동하는 춤으로 바뀌기도 하며 또 도는듯 하다가는 머무르고 머무는듯 하다가는 빙그르 돌기도 하는등 즉 정중동, 동중정의 신비스럽고도 환상적인 무작으로 되어 있어 매우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살풀이 춤은 반드시 부드럽고 가벼운 수건을 들고 이를 오른손, 왼손에 옮기고, 또 자리에도 떨어뜨리는데, 이 경우 몸을 굽혀 엎드려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물어 올리는 가락이 매우 인상적이며 매력적인 것이다. 살풀이 굿에서 처럼 삼엄한 귀기가 횡일하는 냉혹한 춤이다. 승무와 더불어 민속무용의 정수라 할 수 있다.

### 5. 무당춤

굿에서 파생되어온 춤으로 한손에는 방울을 그리고 한손에는 삼존불을 그린 부채를 들고 춘다. 재석거리, 당악, 만신창부타령의 장단을 대부분 많이 쓴다.

# 음악감상법



李 珍 雨
/동우전문대 유아교육과교수

## Ⅰ. 음악의 정의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회화나 조각이 공간적인 예술인 데 비해 음악은 시간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우리들의 정신생활의 양식이며 현대인의 상식이고 만인이 공유할 문화재라 할 수 있다. 음악을 분야별로 나누면 창작, 연주, 감상으로 분류되어 진다.

## Ⅱ. 감상(appreciation) 이란?

### 1. 정 의

(1) 예술작품등을 음미하고 그 미적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체험이며, 작품의 제작과 방작이 반대이며, 작품을 자아세계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미의식(美意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감상은 받아들이는 개인의 감정으로 작품을 자아속에 받아들여 맛보는 것이므로, 자아중심적인 주관과 상대적이다.

또 객관적인 작품에 대한 감상이어서 작품의 내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아를 작품에 맡기는 객관적 지향성이 있다.

(2) 감상은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활동만큼 능동성이 없다하더라도 작품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주체험적 작품을 확충하면서 예술적인 의미를 내적으로 발견해 내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의 창조적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 2. 감상하는 태도의 분류

(1) 전문적인 방향

곡 자체를 분석하며 작품의 구조를 객관적, 분석적으로 포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며 감상하는 태도를 말한다.

(2) 느낌으로 감상하는 방향

감정적 주감적(主感的)으로 맛보고 만족하는 태도로 아마츄어의 입장에서 감상하는 것이다.

### 3. 감상의 한계성 및 능력의 발전도

(1) 감상의 능력은 소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성장한다.

(2) 감상에 의하여 음악을 듣는 힘을 개발하고 다시 훈련에 의하여 감상 능력을 늘리는 것이 음악성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 Ⅲ. 감상법의 분류

### 1. 음악회를 통한 직접감상

(1) 음악회에서 쓰이는 말

① 음악회→연주자와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주되는 음악을 감상하는 모임을 말하며 연주회라고도 한다.

〈종류〉 a. 리사이틀(Recital)

단 한사람이 연주하는 음악회이다. 따라서 리사이틀은 독창회(성악가) 또는 독주회가 되며 작품보다 연주자의 예술이 감상의 촛점이 된다.

b. 콘서어트(Concert)

많은 연주가가 출연하는 음악회를 말한다. 콘서어트란 맡은 원래 합주라는 뜻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많은 연주자나 독창자가 동시에 출연하는 음악회를 가리키는 말로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이 즉, 연주되는 작품이 예술적으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음악회를 아벤트(Abend)라고도 하는데 독일말로 오후, 저녁, 밤에서 나온말로 리사이틀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② 프로그램(Programme, Program)

곡목의 순서 또는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하며 곡목 또는 곡목순서라고도한다. 여기에는 곡목 외에 작곡가와 연주자의 이름과 약력을 적는 것이 보통이다.

③ 작품번호

작품번호는 opus 또는 op로 적는다. 작곡가가 자기의 작품순위를 표시한 번호로, 17C 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확정된 뜻을 갖게된 것은 하이든시대 부터다.

다만 모짜르트의 작품은 그의 연구가인 Köchel〈케헬〉에 의해 정리하고 붙혀서 작품번호를 op대신 "K"를 붙힌다. 그외에 악장 속도표어 발상표어등이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을 연주할 때 프로그램에 써진다.

(2) 음악회장의 에티켓

① 시작시간을 엄수할 것.

②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것〈정장〉.

③ 연주중에는 정숙히하며 잡담을 삼가할것.

④ 연주중 출입을 삼가할 것.

⑤ 연주사에게 재언(Encore)을 원할 때에 득히 더많은 박수를 치고 훌륭하고 연륜이 많은 연주자에게는 기립하여 박수하는 것이 감상자의 예의이다.

2. 레코오드를 감상 하는법

실제의 연주를 가급적 실연(實演)을 방불케 하도록 녹음하여 一回性인 연주를 몇번이고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정착시킨 것이 레코오드이다. 악곡을 청취자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음악감상에 있어 이보다 더 훌륭하고 편리한 文明의 이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 繪畵의 감상법



金 光 秀 / 서양화가

(1) 회화의 정의

"회화" 란 人間의 造形行爲의 한 결과로서 平面위에 展開되는 藝術이다.

이 "회화"에는 材料的 차이 즉 종이나 "캔버스"등 物質의 種類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별이 생긴다. 地域的인 차이에서 보면 東洋에서는 종이와 비단같은 것을 주로 쓰고 있다. 勿論 繪畵의 효과는 그 材料에 따라서 造形的인 맛이 다르지만, 위에 實現되는 繪畵性은 共通된 美學 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造形表現의 方法은 畵家마다 달라서 이른바 個性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하는 個人差가 생긴다. 그러기에 美術에는 크게는 時代樣式이 있고, 民族樣式이 있으며 작게는 個人樣式이 성립되는 것이다. 個人樣式이란 畵家의 体質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작품이 다르다.

(2) 미술의 역사

美術의 歷史를 훑어보면 人間의 造形表現은 크게 抽象과 寫實을 양극한으로 하고 있다.

抽象이란 말할 것도 없이 自然形態를 거부하고 순수 形態를 지향하여 가장 근원적인 物質의 원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表現의 方法으로서는 기하학적 문양이나 형상으로 되는데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상상에서 우러나온 산물이다.

그것에 반하여 寫實이라는 것은 눈에 비치는 自然 形態를 긍정하고 되도록 충실하게 自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채택되는 方法은 되도록 자기의 主觀을 억제하고 客觀的인 시각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눈에 비치는 대로 그리고, 보이는대로 재현하는 것이 寫實의 태도이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抽象과 寫實의 두 극한의 사이에서 여러가지 樣式의 繪畵가 성립된다.

(가) 사실주의에 대하여

"비구상" "반추상" "구상" 등등 表現은 달라도 그때 그때마다 시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美術의 歷史다.

그렇게 보면 寫實은 自然形態의 가장 가까운 것이고, 어느 의미에서 모든 美術은 自然에서 出發해서 그 나름대로의 獨自的인 世界를 개척하는 것이므로 美術表現에 있어 사실은 造形의 기본이 되는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寫實의 뜻은 人間의 시각을 통해서 自然을 再現하고 그렇게 再現된 自然을 人間生活속에 연장시키는 이른바 人工的 自然이다. 그렇기에 寫實畵家는 自然의 창조자인 조물주의 추종자이고 모방자이다.

동시에 우주나 세계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행위 속에서 조물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寫實계통 畵家들이 지나치게 기술의 문제 즉 객관적인 고려만을 내세워 작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의 문제가 등한시 되는 수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많은 作品을 대할 때 한가닥의 불안감을 갖게 될 때가 있다. 이는 작가의 精神의 不在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作品이란 원래 人間精神의 造形的인 表現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넘어선 무형의 世界까지 人間을 끌고가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精神

的인 작용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같이 그렸다" "사진같다"는 것은 예리한 관찰력과 훌륭한 기술로서 잘그린 作品을 보고 말하는 감탄사이다. 그러나 그 作品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림을 보는순간 무언가 表現할 수 없는 감동이 솟구치고 無我의 境地에 도달케 하는 그런 作品이 진실한 藝術作品이다.

그만큼 예술의 과업은 어렵기에 畵家는 많아도 美術家는 적고, 더욱 藝術家는 드물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抽象美術에 대하여

抽象은 처음부터 현실을 거부한 미술이며 현실을 상실한 예술이었다. 즉 그것은 개인의 주관을 으뜸으로 하고 순전히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이념으로하고 있다. 『미리 머리속에서 구상을 하여 그린 작품은 하나도 없다. 작품 하나 하나가 새로운 모험이었다』고 한 슈네이데르의 고백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팔렛트 한복판에 개서 쓰고 남은 물감의 찌꺼기에서, 최초의 출저에서 멀리 떨어진 데에서, 필연의 구현으로서 독자적인 세계가 나타난다. 화가와는 무관한 힘의 수수께끼 이므로 갖가지 우연에 의해 규정되고, 창조된 세계이다. 나는 많은 것을 이 우연에 힘입고 있다』칸딘스키의 회상록에서 나온 말인데, 요약하면 첫째 회화는 대상을 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둘째 쓰고난 팔렛트에 묻어 있는 물감들이 자아내는 우연 그런 감명이 『精神生活의 內面의 일』로 일어난다는 것, 셋째 물감은 그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해방시켜 활동케 한다는 것이다.

오랜 傳統으로 이어온 寫實의 壁을 뚫을 수 없으니 必然的으로 抽象이 發生하였으리라 生覺된다.

以上에서 언급한 바로서 抽象과 寫實畵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은 파악 되었으리라믿는다.

### (3) 회화 감상법

本論인 감상법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첫째, 대하는 作品이 어느 部類에 속하느냐 부터 알아두자. 具象계열이냐 아니면 抽象계열이냐?

둘째, 만약 具象계열이라면 安全感, 구도, 색감 全体에서 풍기는 분위기등등 차분하게 하나 하나 음미해 보자.

셋째, 作家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알아보자(팜프렛 이용)

넷째, 作品가격은 얼마나 하느냐?

號當가격을 알아두자.

※ 1號란 그림엽서 한장크기 정도다. 東洋畵에서는 全紙, 半紙, 四切紙로 구분.

다섯째,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자(西洋畵는 5m정도 거리에서 보면 더욱 잘 보인다.)

여섯째, 감상시는 조용히.

일곱째, 평을 하는 것은 自由이나 作家를 모독하는 式이 아닌 自己의 의견을 개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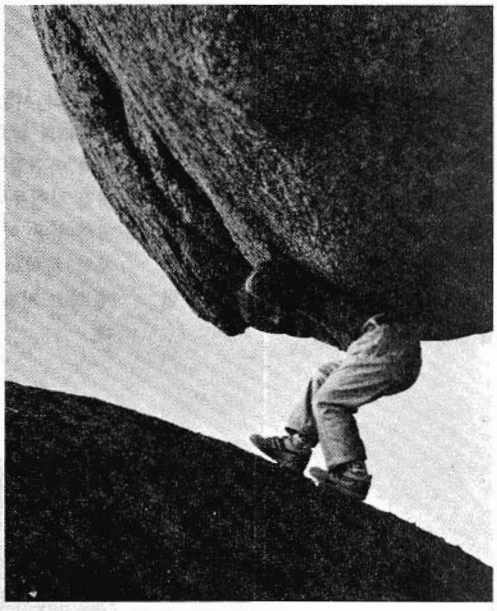
는 정도로 現代人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만약 作家를 알아보고 初面이라면 가벼운 目禮라도 나누는 예의는 지켜야 한다. 大家 아닌 젊은 初年作家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아량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物質文明이 극도로 발달하고 拜金思想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 팔리지도 않는 그림에 一生을 거는 畵家들! 그러나 그들이 있기에 이 메마른 世上에 윤활유 역할이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5,000年의 歷史를 가진 文化民族이다. 先祖들이 이룩해 놓은 文化的 유산이 너무도 많이 流失되었다. 審美的 안목을 길러 얼마 안되는 유산이라도 오래 간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藝術家를 존중할 줄 아는 國民이야 말로 一等國民이다. 經濟大國이란 이웃 日本에도 2,000萬의 美術人口를 가지고 있다 한다. 門外漢이라고 손을 내젓는 사람들도 美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束草文化界



이동식 "꼬마슈퍼맨"
(속초사진동우회)

# 文化界 소식

## 文學

### 文人동정

○김영준－「心象」등에 10여편의 特輯과 體驗的 詩論 발표

○金鍾榮－아동문예에 중편童話(150매) "노을", 어린이 강원에 동화 "이쁜이 여행" 7회 연재등 다수 발표.

○朴明子－월간문학에 특집 및 현대문학, 心象, 시조문학, 心象에 "춤추는 꽃나무"외 10여편 발표.

○朴容說－KBS-TV「어느인생」"시골의사의 손익계산서"편에 출연

○尹弘烈－9.5.－9.19. 2주간 동남아 교육계 시찰.

○李相國－80년대 民族詩人選에 "고구려로 가는길"외 월간문학, 心象등에 10여편 발표.

○李聖善－현대문학, 신동아, 월간문학, 심상, 현대 시학 등에 작품 다수발표.
근간에 전예원에서 신작시집 발간 예정.

○이희갑－8월7일부터 4일간 동남아 여행.

○崔明吉－현대문학, 월간문학 등에 작품다수 발표.

○최재도－KBS 라디오 연속극「여인극장」에 6월 한달동안 "그대있어야 할 자리에" 집필

### 「詩마당」시낭송회(설악문우회)

지난 3월21일 카페 사랑방에서 "헬리혜성과의 만남을 위하여"라는 부제로「詩마당」시낭송회를 개최, 100여명의 독자가 참가하여 근래 보기드문 대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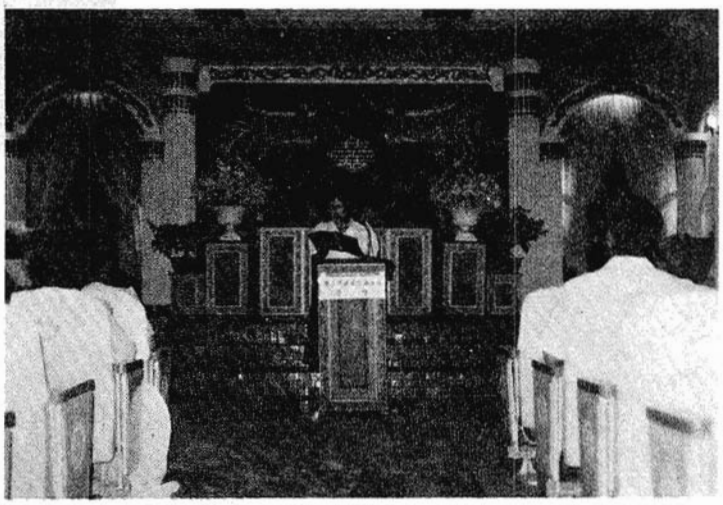
이후 정기적인 시낭송회로 확대, 현재 5회에 이르고 있다.

### 「물소리」시낭송회(물소리시낭송회)

제43회 물소리 시낭송회가 12월27일 카페"아쉬람"에서 있었다. 이성선, 최명길 시인등이 81년9월부터 꾸준히 개최하여 온 이 시낭송회는 그동안 우리 지역 문학독자들에게 현대시를 접하게 하고 지방문화 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 「갈뫼」제16집발간(설악문우회)

설악문우회 회원들이 동인지「갈뫼」제16집을 발간했다. 고형렬외 18인의 동인이 참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 주고 있다.



## 1986년도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동정

1986년초 1월에는 전국지방연극제 강원도 예산대회에 대비하여 윤조병씨 희곡인 "모닥불 아침이슬"을 극협기획, 장규호 제작, 이수곤 연출로 연습에 돌입했다.

예선대회 연습을 병행하면서 2월 초순에는 "연극인 세미나"를 속초시 금호동 서울예식장에서 개최하여 당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인 김동훈씨(현실험극단대표)와 부이사장인 권오일씨(현극단 성좌대표)를 초치하여 연극예술의 개괄적 이론과 무대공연의 실제를 지방연극 동호인을 상대로 강의하여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그후 등장인물11명 스탭진 15명으로, 전체약30여명으로 이루어진 "모닥불 아침이슬"팀은 4월3일 춘천시립 문화관에서 거행된 예선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본선(대구직할시, 6월)의 참가출전권을 따냈다. 5월중순 속초 제일극장에서 전국대회 참가기념공연을 가진후 6월 대구본선에 참가했다. 본선에서 입상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심사위원을 비롯한 연극인들로부터 신선하고 감각적으로 매우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다. 7월부터8월초순까지는 휴식기간을 가진후 제 21회 설악제 기념고연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공연무대를 준비하여 극협기획 제작, 장규호연출로 박우춘작 "무엇이 될고하나"를 9월16일-17일 이틀동안 속초시 일복문화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했다. 참가인원은 등장인물9명, 스탭진15명등, 27명,·상기 설악제 공연이 끝난후 86년을 마무리짓는 송년공연을 즉시 준비하여 극협기획 장규호제작, 조수현 연출로 번역극인 후가드원작"아일랜드"를 준비하여 12월26일-30까지 시내 "노인회관" 에서 공연했다.

한편87년도 지방연극제 강원도 예선에 대비하여 현재 참가작을 검토중이며 1월중으로 작품이 결정되면 즉시 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 : 장규호/연극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 극단"태"창단

구 청년문화연구회의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극단"태"가 지난12월6일 창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창단 기념및"평화의 댐" 건설 기금 모금을 의한 공연으로 이강백작"결혼"을 준비하여 1월10일 신라예식장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다.

대표 박장건, 총무 장태우, 회원 강철환, 김남선, 김미희, 김수선, 김영봉, 김하수, 노경민, 노애숙, 박춘성, 방원욱, 석강남, 심상봉, 원성일, 장국진, 정재수, 이순희.



## 서예인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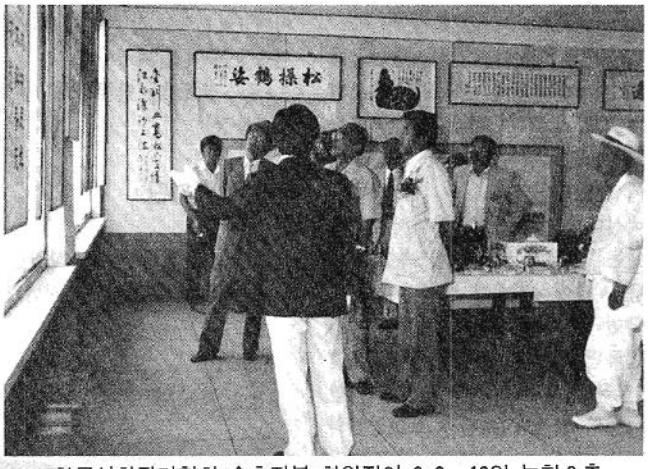
☆한국서화작가협회전

• 한국 서화작가협회 속초지부에서는 제2회 서화전시회를 9월9일부터13일까지 속초농협2층전시장에서 정원철지부장을 비롯 속초 고성 양양60여 회원 작품과 전국지부장들의 찬조 작품20점등 약80여점을 전시했다.

☆설악서예전

• 제9회 설악서예전이 9월15일-9월19일까지 설악제행사의 일환으로 속초농협2층 전시장에서 해석 황동준외 66명의 작품80여점 전시됐다.

• 영월에서 개최된 제6회 강원도 서화전에 제산 지응준외 속초지역 서예동호인 13명의 작품 14점을 출품했다.



한국서화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이 9. 9~13일 농협 2층 전시장에서 있었다.




속초무용학원의 제 6 회 무용발표회가 시내 제일극장에서 있었다.

## 무용인 동정

속초무용학원(원장 양숙희)에서는 지난11월21일 제6회 무용발표회를 시내 제일극장에서 개최했다.

화관무·삼고무 등 우리 고유무용이 1시간30분 동안 2회 공연으로 펼쳐져 老小모두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했다.

양숙희선생은"외래문명에 휩쓸려 서글프게 소외되어가는 우리 선조의 의식을 다시금 재현하려 애썼다"고 공연직후 소감을 피력했다.

## 청봉사진동우회동정

속초청봉사진동우회는 창립 3주년의 짧은 역사속에서도 꾸준한 창작활동과 인근 영동지역 사진동우회의 교류 및 합동촬영대회를 비롯 각종 토론회를 통해 속초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1회 전국누드사진 촬영대회 입선 이상 작품 70점을 속초 카페 "다사랑"에 유치 전시회 개최

○제3회 영동지역 연합사진 전시회

강릉, 속초, 동해, 태백을 순회하는 영동지역 연합사진 전시회를 속초 카페 "다사랑"에서 10월3일부터 8일까지 전시

○제3회 회원전을 12월5일부터 9일까지 속초 카페 "다사랑"에서 전시, 사진애호가들의 대호평을 받았다.

○"엄상빈"

86년 강원도 미술대전에서 미망인으로 사진부분 입선

"이래현"

86년 제10회 전북예술제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어부의 아내로 "입선"외 전국사진공모전 나수 입선

"김정일"

제1회 전국누드사진 촬영대회에서 모델2로 입선.

(글 : 김정일/청봉사진동우회장)



이래현 作 "어부의 아내"가 '86 제10회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제 3 회 회원전을 카페 "다사랑"에서 개최하였다.



# 束草文學의 현주소



이 상 국/詩人

束草文學이라함은 속초에 살고 있는 문인들이 속초를 중심으로 벌이는 문학활동을 이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역시 지방부재의 상황 속에서 더구나 선배문인을 갖지 못한 현역문인들만의 짧은 당대 활동 일부만을 束草文壇내지 束草文學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은 속초의 대략적인 문학현황과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인들의 면면을 간략하게 말하고자 한다.

현재 속초의 文學단체로는 **文協束草支部** 산하에 **雪嶽文友會**가 유일한 단체로 존속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때문에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1970년 **윤홍렬·박명자·이성선·강호삼** 씨등이 설악문우회를 발족하고, 동인지「갈뫼」를 발간하면서 미미하게나마 이 지역에 문학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雪嶽文友會의 주된 활동은 同人誌 발간과 유명 문인의 초청 강연등의 문학행사를 주관하면서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일과 문화적인 분위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땅의 어느 소도시 보다 활동적인 문학이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모체 겸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악 문우회가 발족한 지 17년이 경과하고 16집의 同人誌를 내는 동안 많은 文人들을 배출하였고 현재도 상당히 역량있는 후진들이 모여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雪嶽文友會가 배출한 文人들로는 창작에 **윤홍렬·강호삼**, 詩人으로 **이성선·최명길·박명자·이상국·고형렬·이충희**, 아동문학가로는 **김종영·이희갑** 제씨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한국문단의 중진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리고 前記 문인외에 최근 시인 **김영준**·회곡작가 **최재도**씨 등이 합류하여 튼튼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설악문우회 외에 속초에는 "물소리" 시낭송회가 40여회의 낭송회를 가지면서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성선·최명길**씨가 상임시인으로 시작된 "물소리" 시낭송회는 순수독자 및 문학지망생들에게 살아있는 시와 시론을 들려주고 같이 호흡하므로서 이 지역의 문학 활성화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 외의 詩 낭송회로는 설악문우회 詩 분과에서 주관하는 "**詩 마당**"이 최근 활동을 시작하여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詩 낭송회의 실체가 대부분 그렇듯 시낭송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한계성, 단순하게 낭송하고 듣고하는 싸롱 문화적 이고 소녀 취향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탈피하여 문학의 현장성과 문학활동의 전위성을 획득하며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모든 詩 낭송회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보겠다.

다음은 束草文人들의 작품활동 경향을 간략하게 훑어 보고자 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속초에는 한국아동문학의 원로인 **朴容說** 씨가 고독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50년대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신춘문예를 거친 씨는 탈 문단적인 고독과 어머니등 원초적인 상실에 대한 그리움을 점자처럼 찍어서 아동문학의 특수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 한중작가회의차 대만을 다녀온바 있는 **尹弘烈**씨의 소설은 삶을 관조하는 입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분단상황이나 전쟁을 통과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낙인처럼 인각되는 개인의 고통을 재 조명하는 노력을 기우렸고 그러한 작품이 일어로 번역되어 주목을 받았던 **강호삼**씨는 서울 전근 후 큰 수술을 받는등 건강상의 이유에서인지 근간의 작품활동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시인인 **이성선**씨는 끝없는 자기성찰과 파괴를 통하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를 투명한 언어로 밝히는 작업으로 한 국시단의 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崔明吉**씨는 고뇌와 명상으로 여과된 시적대상이 심미적이고 유연한 언어들에 의하여 명징하게 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朴明子씨가 보여주는 무구한 정신세계 속에서 고통스럽게 깨어나는 서정성과 점액질의 한이 일깨우는 詩 정신은 이미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李相國·高炯烈**이 추구하는 현실적 삶과 역사의식이 제기하는 드러냄의 시적상황은 동질성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튼튼한 육성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다. 최근 등단한 **김영준**이 보여주는 신선하고 감각적인 언어구사와 사물에 대한 아이러니로 보여주는 가능성

"詩 낭송회는
이제 文學의
현장성과
문학활동의 전위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진은 제 1 회 "詩마당"
낭송회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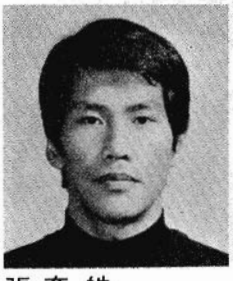
등, 속초 詩人들의 시 세계는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시 속에는 이 지역의 산과 바다, 농토와 고깃배가 길러준 건강한 정서와 지칠줄 모르는 정신의 불이 타고 있다.

아동문학의 김종영은 작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한국아동문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의 손에 들어가면 인간이나 사물이나 모두 빛이되고 소리가 되고 바람이 된다. 티 없는 정신의 세계가 곧 그의 작품세계이며 그는 최근 동화와 동시를 혼합한 아동문학의 한 장르를 개척하여 아동문학계에 조용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희갑의 작품 세계 또한 진솔하다. 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교보다는 감동적인 방법으로 진술하므로서 진실성이 가슴에 와 닿고 있으며 씨의 동화는 기독교방송국에서 연속낭독 되는 등 탄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 신춘문예를 통해 희곡작가로 등단한 최재도 씨는 비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소재와 우회적인 접근방식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형성하여 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KBS 라디오에 연속극·단막극등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상 대략적인 東草文人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활동적인 詩에 비하여 창작쪽이 비 활동적이라는 점이다. 숫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열세인 창작쪽을 위하여 젊은 지망생들이 열심히 원고지를 버리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편으로 詩人作家들의 문학행위나 업적을 정리 조명하는 분야인 평론不在의 현실 역시 아쉽지만 누군가에 의하여 부재의 현실은 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속초에 살면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의 역량이나 업적은 각자의 활동과 노력에 따라 당대, 혹은 후대에 평가받을 일이지만 문학이 각자가 살고 있는 곳의 토양과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속초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도 그들의 문학 속에 포함되어 용해되고 혹은 드러날 때 진정한 東草文學이 탄생되리라 믿는다.

# "束草 演劇史"



張 奎 皓
/연극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束草 演劇史는 기원을 약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맥을 찾을 수 있을것 같다. 1966년 10월, 속초고등학교가 개최한 향토예술제에 처음으로 연극을 공연하면서 속초연극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필자는 劇中 세자역(극명 : 단종애사, 연출 : 김택인)으로 출연하여 첫 무대경험을 얻은 뒤 이듬해에 당시 중앙국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황창건(후일 방송국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속초 청년문화연구회와 속초문화동인회를 창립시키는 산파역으로 활약했음.)씨와 김영복씨(화가 : 현 미술협회 속초지부장)등과 같이 演劇同友會를 설립하고는 본격적인 성인연극의 활동을 위해 20여명의 회원과 공연준비를 하였으나 당시의 연극에 대한 인식이 소위 "신파"와 속칭 "딴따라"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몰이해로 인해 후원자가 없어서 막을 올리지도 못하고 와해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듬해인 1968년에 다시 황창건, 김영복씨와 필자는 예총 속초지부를 설립한 연후 예총산하에 연극협회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 했으나 기초적인 연극지식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하에선 연극예술의 참뜻이 흐려질 뿐 진정한 무대예술을 시민들에게 선 보일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연극을 하고자하는 의욕만이 앞섰을 뿐 연극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전혀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연극을 해보고자, 혹은 배우고자 하여 찾아왔던 상당수의 연극 지망생들이 실망을 안고 돌아섰으며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1970년까지는계속되었으니, 그 시기가 최대의 시련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신원하씨(현 연극협회 속초지부장)가 속초여중으로 부임하면서 속초연극은 제2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신원하씨는 대학(경희대학교 국문학과)재학시절에 현재 중견 탤런트인 문오장, 이대근, 이정길씨및 김지연(현 MBC제작부국장)씨 등과 같이 대학연극을 주도 하였으며 졸업 후 교직 발령을 받아 속초에 부임하면서 속초여중에서 학생연극을 지도하던 중 필자와 조우하면서 속초연극의 본격적인 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신원하씨와 필자는 우선 불우청소년 선도를위한 연극을 기획하여 당시 직업청소년학교(속초경찰서에서 운영했던 중학과정의 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광래씨 작품인 "한낮등불아래 나비들"이라는 연극을 신원하 연출, 필자의 제작으로, 지금은 없어진「동보극장」에서 막을 올려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2～3회의 학생연극을 더 시도한 후 1976년경 부터 성인연극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76년말 신원하, 황창건, 김영복제씨, 그리고 필자는「속초청년문화연구회」라는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예술연구단체를 설립하여 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후 산하에 문학부, 미술부, 음악부, 연극부, 무용부등 5개부서를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작품발표회를 갖기로하고, 첫 공연으로 신원하작, 연출인 "세바위의 착각"을 시초로 하여 속초성인연극은 그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7월에 첫공연을 시작한 연극은 연극부의 명칭을「청봉극회」로 명명하고 1982년까지 약 15회의 공연을 가졌으며 후일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로 정식 인준을 받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청봉극회」의 상임 연출가로 활약하던 신원하씨와 필자는 지방의 자생단체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좀더 광범위하고 예술성있는 극예술공연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배우를 양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1983년도에는 "강원연극인세미나"를 속초에 유치하여 강원도내(춘천, 원주, 강릉, 태백)에서 활동하는 약 100여명의 연극인을 초청하고 서울에서 활



86년 속초연극은 강원도를 대표하여 지방연극제 본선에 출전하기도 했다.
(사진은 "탈출기" 공연장면)

동중인 교수(연극학)및 중견연기인들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배우수업의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한국연극협회에 정식으로 속초지부의 인준을 신청하여 83년 11월에 한국연극협회속초지부로 정식인준을 받으면서 속초지부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을 정회원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84년도 전국지방연극제 예선대회에 東草市대표로 참가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하고 필자는 남자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후, 연극협회는 매년 4회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졌으며 7월과 12월에는 시민위안 자선공연을 실시하여 연극예술이 "시민속의 예술"로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속초시가 매년 개최하는 설악제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시민및 관광객에게 속초연극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약 1,000여명의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뿌리는 굳게 다져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년에는 전국지방연극제 강원도예선대회에서 타시군의 대표를 물리치고 당당히 최우수상과 연출상을 수상하여 속초연극의 저력을 강원도 전역에 떨쳤으며 강원도를 대표하여 지방연극제본선대회(대구)에 참가 하기도 했다. 내년도에는 연극협회의 숙원이었던 공연장도 마련되고 "시립극단"도 창단되면 속초연극은 일취월장 지세로 예술성을 높여가리라 확신한다.

# 속초미술의 어제와 오늘

## 〈한국미협 속초지부를 중심으로〉



金 榮 福
/미술협회 속초지부장

화려하게 내세울만한 전통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지역 미술문화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되기에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이 씻길 날을 기대하며 속초지방의 어제와 오늘의 미술 활동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산명수려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건만 근세 이곳을 中心으로 활동한 미술인이나 작품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이곳 미술활동의 시작은 1960년대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몸담고 있던 고순재, 장 일섭, 최 홍원, 장 세환, 송 대헌, 최 재혁, 정 난시, 장 덕준, 이 복우, 김 영복 등이 '설악문미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년 회원전을 갖는 것이 미술 활동의 전부였으며 모두가 서양화뿐이었다.

그렇게 유지되던 이곳 화단도 교사들의 전출로 대부분이 떠나버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 당시 한국 미협 道 지부장이었던 한 신구와 강릉 지부장이었던 선 학균의 추천을 받아, 최 호규, 김 영복, 이 동명 등이 춘천 원주 강릉에 이어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당시 회원으로는 김 경숙, 김 광희, 김 남수, 신 양순, 신창교, 윤 성빈, 윤 재복, 이 영구, 이 춘섭, 정 철, 홍 정임, 김 희자등으로 유일하게 최 호규가 비구상 조각을 처음 선보이게 되었으며 강원도미술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후 김 광수, 옥 명준, 등의 회원이 증가되었고 정 광섭, 고 주리, 장 국보, 최 낙민, 최 종국, 권 계정, 이 강석 등이 합하여 속초지부 회원전을 11회까지(85) 계속 되고 있다.

회원중 김 광수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미술 학원을 경영하면서 사실적인 산과 바다를 그려 주목을 받고 있으며,개인전, 유럽스케치전 등을 통하여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 영복은 비구상과 구상을 곁들인 그림으로 道 미술전 초대작가가 되었고, 강원도 미술전을 통하여 등단한 고장 출신으로는 85년 서양화 최고상을 수상한 박 홍기, 은상을 수상한 장 국철 등이 있으며 86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정 봉제(양화 비구상), 신 동진(조소)이 입선하므로써 신인 작가들의 숨은 역량을 서서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속초고 동문들의 모임인 '속초동문미전'이 4회째 계속 열리고 있으며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돌아와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고장 출신 신인들의 활동을 기대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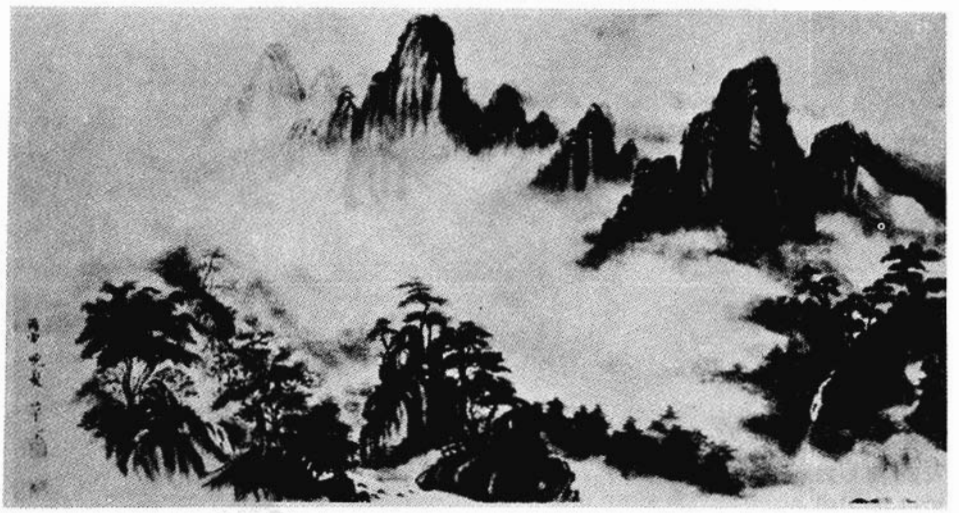


그림 : 草堂 鄭 仁 煥

이상에서 60년대와 현재 속초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들을 알아 보았다. 이들이 전시한 장소들을 보면 다방, 아니면 속초농협 2층 회의실을 얻어 전시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변변한 전시공간 하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지방문화는 작은 서울문화가 아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지방 문화제만 하더라도 억지로 있지도 않은 지방 전통 민속놀이로 예산을 써 버리거나 전국을 상대로 하는 행사라야 권위가 서고 서울 분들이 와서 전시하고, 공연하고, 쇼하고, 노래자랑하고, 문학 발표하고 하는 식의 행사로 일관한다면 특색있는 지방문화가 탄생되리라는 기대는 어렵다. 미술전 팜프렛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인색 하면서도 박공예, 돌전시등을 초대하여 예술의 극치인양 찬사를 아끼지 않는 지방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한,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좀 모자라더라도 정말로 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애정을 가지고 보아주고, 격려하고, 꾸짖고 한다면 이 지역 미술인들은 힘을 얻어 더욱 정진 하리라 본다. 우리 고장의 하늘과 산과 바다를 우리들의 것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특색이 있다. 여기에 자라는 문화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특색이 있는 문화로 승화 시키려면 지역을 지키고 묵묵히 작업하는 파수꾼을 길러 줘야한다. 우리의 어제가 내세울 전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대에서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어야한다. 하늘의 무지개를 잡듯, 멀리 있는 것만 동경하지 말고 지방민들은 우리 주변의 작가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작가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몰두할때 이 고장 미술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 초대詩

# 黎　明

서늘한 달이
밤을 잠재워지고
별들은
머언 雪嶽峰에서
빛나고 있었네.

太古적 부터
바다는
언제나처럼 變함이 없었고.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채이던 苦痛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벽과 아침사이로
날아가는 어여쁜 바닷새야.

過去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가버리고.
오늘도 아침은 다시 찾아 돌아오려니.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

학(鶴)이 잠들다 간
淸澗亭 老松 위로
붉게 밝아오는 빛이여 —

그빛속에 祈願하는 마음으로
自由를 던지어 보리라.

눈부시게
새 하늘이 열리는
저 巨大한 現實앞에
우리들의 旅程을 마련해야 하느리라.



朴 容 說

**略　　歷**

| | |
|---|---|
| 1929. | 함북 청진에서 남 |
| 1959. 1. 1 | 동아일보 및 京鄕新聞 新春文藝 童詩 當選 및 入選 |
| 1979. | 한국동시문학상 받음(제 2 회) |
| 1984. 5. 5 |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받음(제 2 회) |
| 1953. 1. 15 | 화랑은성무공훈장 받음 |
| 1986. 6. 12 | 국민훈장석류장 받음 |

● 초대詩

# 침묵으로 가는 자의 노래〈7〉



崔 明吉

윗물을 뜹니다.
반쯤 미소하는 그.
아랫물을 뜹니다.
그는 몸을 일그려뜨려 물을 쏟고 그릇 마저 깨뜨립니다.

거기 물마시는 이여. 아랫물 윗 물을 가리지 말거라. 이 핏물 괸 아랫 물도 마시면 물인 것을. 그는 몇 차례 헛구역질을 합니다. 핏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물 뜬 여인을 밀치고 서둘러 산모롱이를 돌아갑니다. 그녀 홀린 애련의 피 씻은 물을 먹을 수 없읍니다. 잠시 돌아보는 사이, 저 천야한 시간 벼랑 아래 여인은 새가 되어 있었읍니다. 새는 그를 지나쳐 먼 바다 끝으로 날아갔읍니다. 무한 공간이 물그물처럼 일렁이더니, 연꽃 한 송이 청람빛 하늘 귀에 피어 올랐읍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연꽃을 가리킵니다.

하늘거리는 노을 잎새,
내 삶 어딘가가 아파옵니다.

〈약 력〉

○1975년 「현대문학」지에 시 「은유의 숲」「음악」「해역에 서서」 등으로 문단에 나옴.
○1978년 시집 「화접사」 발간
○1984년 시집 「풀피리 하나만으로」 발간.
○중요작품 「인연설」「연꽃」「반가사유상」「온몸 새벽으로 깨어」등이 있음.
○현재 李聖善 시인과 함께 〈물소리 시낭송회〉를 열고 있음.

● 초대詩

# 어머니의 꽃밭



張 承 鎭
/詩人·속초고등학교 교사

보이세요. 어머니
보고싶던 이모님
이산가족 찾기 때엔 포스터 이름위로
어른 어른 젖은 모습만 어리더니
파지(破紙)같은 세월 날리고 돌아와
이렇게 서 계시는데

유월이 가는 길목
가랑비같은 기억의 빗발 속
살고 죽는 것이
그땐 아련한 봉선화꽃 빛이더니
노랗게 바랜 기억 잔니위에 펼쳐놓고
포탄같은 눈물을 쏟아놓는 소리가
들리세요. 어머니

네 이모가 있었지.
그날 포탄은 비오듯 했었지…
기억이 씨앗되고
세월은 줄지않는 거름 된다면
척박한 꽃밭엔 늘 비가 내리겠지요.
그러나 세월은
스스로 태어나는 씨앗이기에
예리한 기억의 파편들도 제자리에 박힌 채
그만그만한 꽃들로 아름답지 않읍니까.

아쉬운 언덕을 마지막 돌아
호미쥔 채 눈길 심으며 가신 어머니
이젠 가루분 터지는 흰 감자 속살로 여미던
길고 길던 여름도 꽃향기로 얘기하세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은
꽃으로 가꾸기로 해요.
우리들 모두가 꽃으로 설게요.
굳은 땅에 물이 괸단다.
꽃뿌리 다둑이며 하시던 말씀
나팔꽃처럼 자라는
손주에게도 해주세요.

하늘로 자라는 꽃줄기들은
유월의 빗줄기에 뿌리를 맡깁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는 소담한 꽃밭은
이승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날거예요.

● 초대詩

# 길이 保存하리라

「東草文化」 발간에 부쳐

黎明을 향한 그 念願의 가슴위로
장중한 미사곡처럼 海潮音은
千古의 鄕愁를 담아
저기 검붉은 우람한 바위 기슭에
백발은 성애처럼 어느 仙人이 있어
한묶음의 푸른풀로 울타리를 엮어
당신의 그리운 눈동자들이 첫날을 시작할때
둔한 巨人의 발자국처럼 다가선
저기 雪嶽의 크나큰 품
義湘의 피곤한 지팡이가 맞닿아
홀연히 구름깃 쳐다보며 발길을 옮겼던곳
觀音을 보았노라.
衆生의 앓음소리를 들었노라.
合掌하고 무릎꿇며
가없는 無限에 눈길을 두면
東海여
그 장엄한 물결과 하늘의 調和여
그리하여
念願이 구슬처럼 줄줄이 이어져
우뚝솟아오른 慈悲의 像

海棠花 꽃내음을 찾아
갈매기는 이웃들의 숨결을 전하고
白沙의 언덕에서 모두들 손잡고 강강 수월래
달이 밝아 유난히도 그리움 더해지는듯
永朗의 深淵속에는 아직도 그윽한 전설의 목소리

누님의 손길을 따라 찾아온 아우가 기둥을 세우고
수백년 세월에 이끼가 덮였어도
순박한 마음이야 물고기처럼 맥은 뛴다.
오늘 우리의 옛 이야기가
오늘의 밝은 대화의 낱말들을
훗날의 傳說을 위해 보석처럼 담아두려는가.
東草의 마음이여
그 간절한 이웃들의 자랑스러운 우리끼리의 証言들
길이 그내음 그웃음 그 祈願의 소리 保存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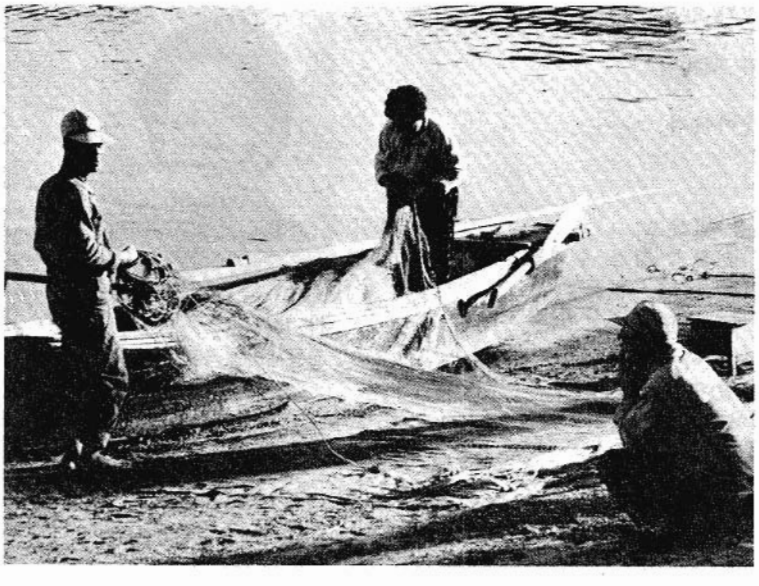
朴 明 子 /
교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약 력

전 속초시 사회정화협의회 부회장
전 KBS 속초방송국 자문위원
전 새세대육영회 속초시 지회대표
현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자문위원

강 덕 희





정 연 국

## 바닷가
청봉 사진



박 종 영

허 필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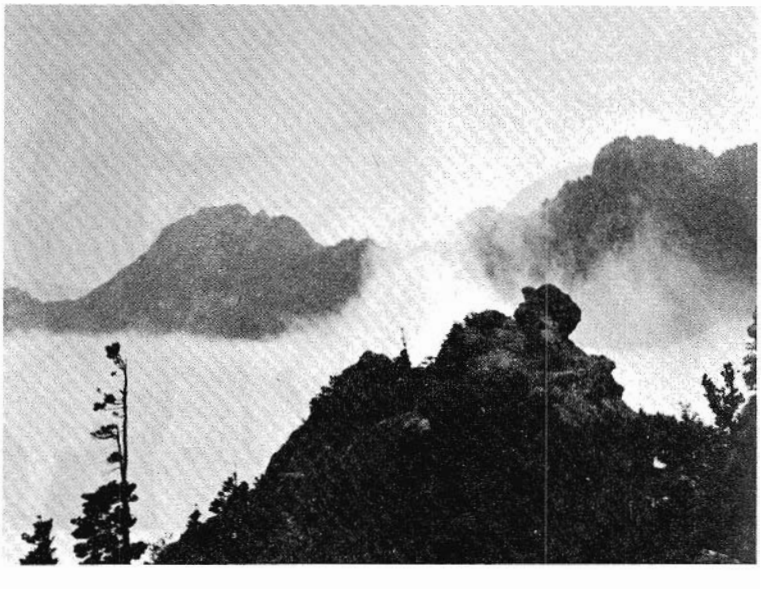


사람들
동우회



# 根, 그리고
## 속초 사진

최 이 권



김 영 재

# 마을 동우회



최 춘 영



권 영 진





海石 黃 棟 俊

- 江原美術大展 入選('85·'86)
- 江原道 書壇同人會員
- 雪嶽山 國立公園管理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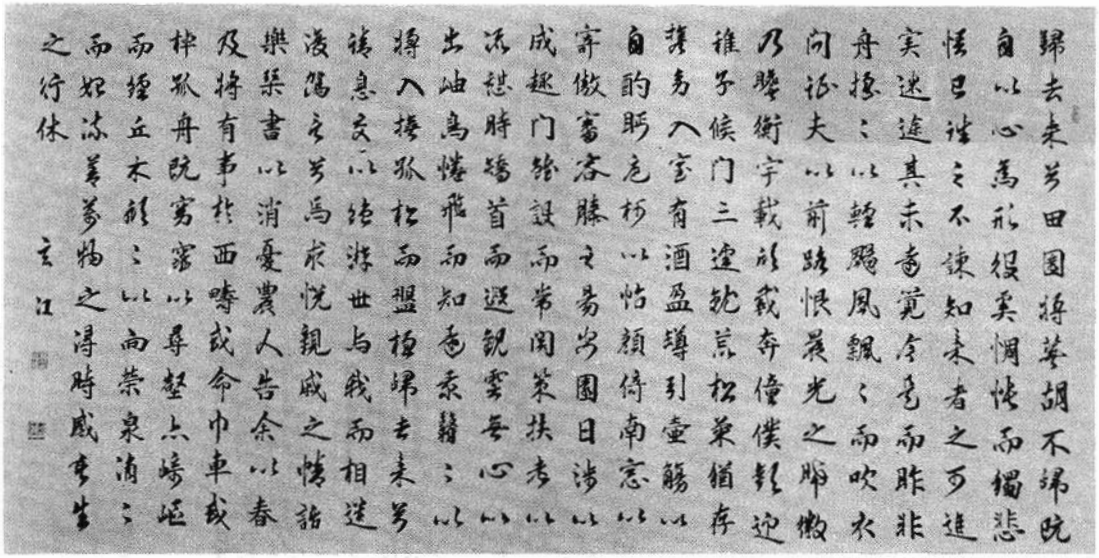
# 書芸展





松亭 趙 鎭 玉

- 江原道 書畵同人會員
- 束草市 琴湖洞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既
自以心爲形役奚惆悵而獨悲
悟已往之不諫知來者之可追
實迷途其未遠覺今是而昨非
舟搖搖以輕颺風飄飄而吹衣
向指夫以前路恨晨光之熹微
乃瞻衡宇載欣載奔僮僕歡迎
稚子候門三逕就荒松菊猶存
攜幼入室有酒盈樽引壺觴以
自酌眄庭柯以怡顏倚南窗以
寄傲審容膝之易安園日涉以
成趣門雖設而常關策扶老以
流憩時矯首而遐觀雲無心以
出岫鳥倦飛而知還景翳翳以
將入撫孤松而盤桓歸去來兮
請息交以絕游世與我而相遺
復駕言兮焉求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農人告余以春
及將有事於西疇或命巾車或
棹孤舟既窈窕以尋壑亦崎嶇
而經丘木欣欣以向榮泉涓涓
而始流善萬物之得時感吾生
之行休

玄江

# 제9회 설 익



玄江 黃 哲 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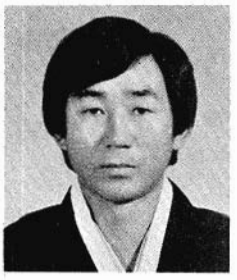
- 江原道 書畵同人會員
- 東草市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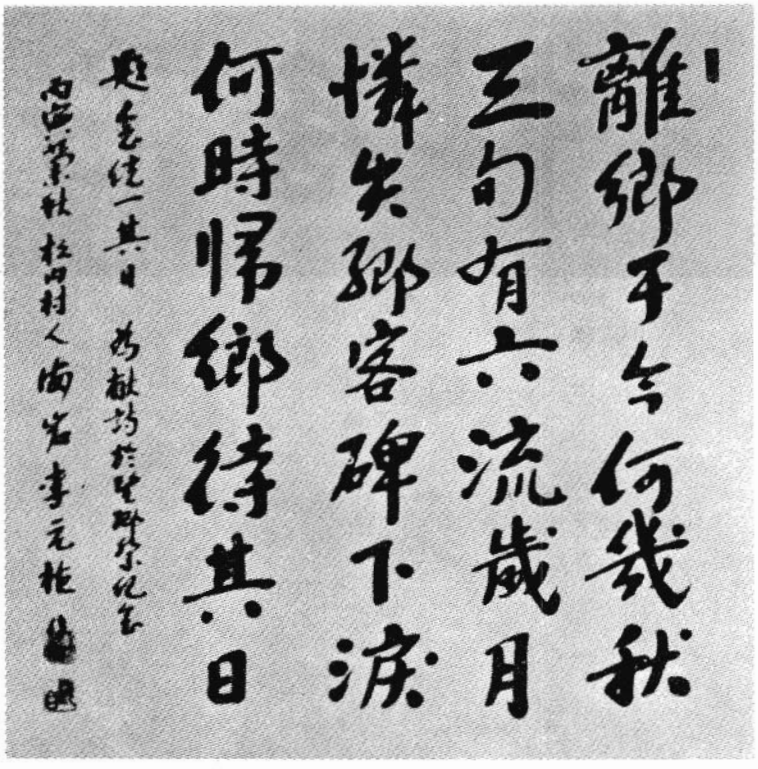



# 서 예 전

霽山 池 應 準

- 東江 趙守鎬先生 師事
- 韓國書藝學會 東草支部長
- 雪嶽書藝學院長






## 제2회
# 한국서화작가협회



海岩 李 元 植

- 成均舘法政大學校 2年退
- 大韓民國書藝大展 入選
- 東草市勤務(公務員 25年)
- 本會 會員



# 속초지부회원전



芝峰 李 昌 燮

- 東草 名譽消防署長
- 東草 弓道協會長
- 重石商會 代表
- 本會支部諮問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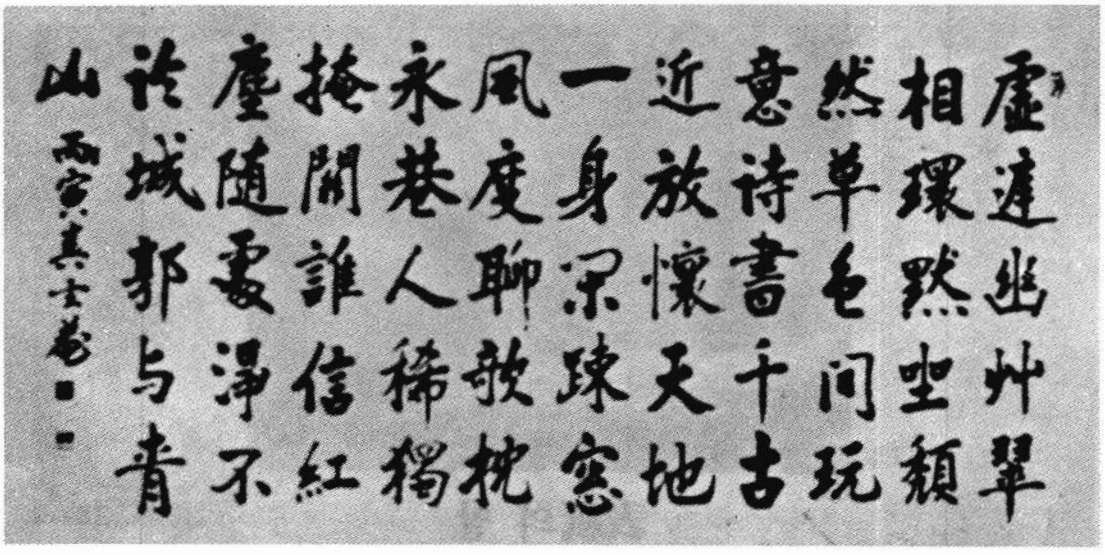
## 제2회

# 한국서화작가



頂峰 黃 男 一

- 第二回 韓國書畵藝術大賞展 入選
- 韓國文化藝術大賞展 入選(1985)
- 現 寫眞業從事
- 本會 會員




# 협회 속초지부회원전



玄菴 鄭 元 澈

- 第二回 韓國書畵藝術大賞展 審査委員 歷任
- 韓國文化藝術研究會 推薦作家
- 漢文聖經普及會 招待作家
- KBS 東草·襄陽郡 忠孝教室 招待講師
- 韓國書畵作家協會 東草支部長
- 嶺東書藝學院長



# 表紙의 말

題目：「盛夏의 飛仙臺」

85年 8月 어느날 아침 서울에서 온 畵友와 어울려 飛仙臺行을 결심한다. 따가운 여름햇살에 어느덧 몸은 땀범벅이 되었다. 물감박스, 이젤, 캔버스 등등 좀 무거운가? 메고 들고 십리 길이나 걸어 왔으니 말이다.

차가운 계곡에 발을 담그니 살 것만 같다. 우거진 綠色의 壯觀, 멀리 바라보이는 雪嶽의 連峰들 바위에 부딪치며 흐르는 水晶같이 맑은 물줄기 沼에 담긴 물의 影像들.

神이 創造한 이 아름다운 自然을 내 12號의 畵幅에 담아야 하다니…

명상에 잠긴다. 어디선가 仙女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沼에서 목욕하는 仙女의 아리따운 映像이 眼幕에 어른거린다. 神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無限한 創造의 힘을!

중얼 거리는 사이 내 畵筆은 無我의 境地를 달린다. 흐르는 땀에 눈이 따가워 뜰 수가 없다. 三伏 더위에 이 무슨 짓인고, 누가 칭찬이나 해준다고? 獨白을 뇌까리면서도 畵筆은 계속 달린다.

땅거미가 질무렵에야 미소를 머금고 下山한다.

## 속초문화원 임원

| 직 책 | 성 명 | 직 위 | 주 소 | 전 화 |
|---|---|---|---|---|
| 원 장 | 金 容 龜 | 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동명동 513-52 | 33-3368 |
| 부 원 장 | 咸 泳 泰 | 현대슈퍼 대표 | 금호동 473-46 | 33-3456 |
| 이 사 | 鄭 鍾 勳 | 전 온정국교장 | 청학동 482-37 | 32-9492 |
| | 沈 丙 燮 | 전 속초시 민방위과장 | 동명동 559- 2 | 33-3186 |
| | 高 榮 和 | 영동철물 대표 | 영랑동 5/3 | 33-5374 |
| | 安 國 俊 | 함남도민회장 | 금호동 1/4 | 33-3687 |
| | 鄭 仁 燮 | 우리 페인트 대표 | 금호동 479-11 1/3 | 33-2909 |
| | 崔 敬 順 | 황금상회 대표 | 중앙동 496-55 7/4 | 33-3668 |
| | 崔 龍 文 | 국제방역공사 대표 | 동명동 250 | 33-3233 |
| 감 사 | 李 光 春 | 평통자문 위원 | 교동 627-50 | 33-3920 |
| | 池 一 權 | 전 한국일보 기자 | 중앙동 469-15 | 33-5100 |
| 사무국장 | 崔 在 都 | 劇作家 | 중앙동 12/3 | 33-1354 |
| 서 기 | 鄭 福 德 | | 조양동 3/2 | 32-1916 |

## 속초문화원 연혁

1965. 3. 22 문화공보부 장관 설립허가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법인등기 제2호(설립자원장 韓淳榮)
1970. 4. 30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상 馬長乾
1974. 3. 27 정기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張憲榮
1975. 12. 2 문화원청사신축기공
1976. 2. 30 문화원청사 준공
1976. 12. 1 문화원청사 束草市에 寄附採納
1982. 3. 9 총회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鍾祿(법인등기변경신고)
1984. 3. 20 총회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鍾祿 재선
1986. 7. 24 86년 임시총회 개최 임원개선 원장 金容龜
1986. 10. 21 문화공보부장관 허가및 定款承認
1986. 12. 13 법인등기 변경신고

# 束草文化院 회원명단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 분 야 | 성 명 | 직 위 | 주 소 | 전화번호 |
|---|---|---|---|---|
| 문 학 인 | 尹 弘 烈 | 문인협회지부장. 소설가 | 교동 10/3 | 33-1155 |
| | 李 相 國 | 시인(설악문우회) | 교동아파트 2동 508호 | 32-8586 |
| | 李 聖 善 | 시인(물소리 시낭송회) | 동명동 513-54 | 33-3743 |
| | 崔 在 都 | 희곡작가 | 중앙동 12/3 | 33-1354 |
| | 朱 廣 河 | 소설가. 외항선원 | 동명동 427번지 | 32-6283 |
| 연 극 인 | 辛 沅 夏 | 연극협회지부장 | 금호동 16/3 | 33-4300 |
| | 장 규 호 | 청봉극회 | 중앙동 11/2 | 33-5013 |
| | 최 신 영 | 청봉극회 | 금호동 8/3 | 33-3707 |
| | 고 준 규 | 청봉극회 | 설악동 지구 5동 | 7-7533 |
| | 朴 長 健 | 극단"태" | 청학동 6/4 | 33-3057 |
| | 원 성 일 | 극단 "태" | 중앙동 강원전업사 | 32-5054 |
| 미 술 | 김 영 복 | 미술협회지부장 | 금호동 16/3 | 33-4180 |
| (회화·조각) | 金 光 秀 | 미협고문(중앙미술학원장) | 청학동 중앙미술학원 | 32-8022 |
| | 崔 虎 圭 | 미협고문. 교사 | 중앙동 500-6 11/2 | 33-4044 |
| | 張 世 煥 | 전미협지부장 | 중앙동 468-65 백경사 | 32-1278 |
| 미 술 | 鄭 元 澈 | 영동서예학원장 | 교동 780-169 10/6 | 32-4909 |
| (서 예) | 金 秀 鐵 | 서예가 | 중앙동 3/5 | 33-2282 |
| | 嚴 柱 天 | 서예가 | 중앙동 473-25 | 33-3066 |
| | 池 應 進 | 설악서예학원장 | 교동럭키아파트 6동 506 | 32-8217 |
| | 黃 棟 俊 | 서예가(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금호동 622-199 16/4 | 32-7402 |
| | 金 珠 鎭 | 서예가 | 금호동 4/1 | 33-1234 |
| | 金 光 喆 | 서예가. 교사 | 양양읍 구교리 1반 | 2-1960 |
| 미 술 | 金 榮 鳳 | 목공예, 태백공예사 | 영랑동 태백공예 | 33-5664 |
| (공 예) | 강 철 환 | 목공예 | 도문동 | 34-7236 |
| 사 진 인 | 崔 春 永 | 속초사진동우회·속초시청 | 교동 6/1 | 33-5515 |
| | 金 正 日 | 청봉사진동우회·신우사 | 중앙동 475-24 신우사 | 32-8028 |
| | 崔 洛 珉 | 청봉사진동우회·설악프라자레저 | 설악동 주택 83/3 설악프라자레저 | 7-7019 |
| | 李 來 鉉 | 청봉사진동우회·상업은행 | 조양동 우성연립 101호 | 32-6564 |
| | 全 泰 極 | 청봉사진동우회·대포횟집 | 대포동 4/3 대포횟집 | 33-4424 |
| | 嚴 湘 彬 | 청봉사진동우회·속초상고 | 금호동 14/7 | 33-1919 |
| 무 용 인 | 양 숙 희 | 한국무용가 | 금호동 1/6 속초무용학원장 | 33-3913 |
| 음 악 인 | 이 진 우 | 성악가 동우전문대 교수 | 노학동 동우전문대 | 32-6552 |
| 건 축 인 | 裵 基 雄 | 성보건축사대표 | 동명동 253-6 | 33-5397 |
| 민 속 | 朴 益 勳 | 전국교장. 노인학교장 | 교동 6/5 | 33-5468 |
| | 林 德 洙 | 동우전문대교수 | 교동 767-133호 | 32-8032 |
| | 崔 琳 圭 | 동우전문대교수 | 노학동 산 244 | 32-6551 |
| 향 교 | 李 鍾 旭 | 양양향교 총무 | 조양동 8/1 | 32-6531 |
| | 朴 淳 午 | 양양향교 | 노학동 2/1 | 32-2895 |
| 의 료 인 | 金 在 燮 | 영랑약국 | 영랑동 137-6/3 | 33-2416 |
| | 尹 鍾 九 | 현대약국 새마을운동속초지회장 | 동명동 466-58 | 33-2533 |
| | 崔 茂 一 | 제일약국·속초라이온스클럽회장 | 동명동 450-118 | 33-3844 |
| 변 호 사 | 朴 昌 緖 | 변호사 | 동명동 450-50 | 33-2689 |

| 분 야 | 성 명 | 직 위 | 주 소 | 전화번호 |
|---|---|---|---|---|
| 학 계 및 교 육 계 | 李 虎 舜 | 전고교장·전 문화원이사 | 동명동 514－12 | 33－3034 |
| | 鄭 鍾 勳 | 전국교장. | 청학동 482－37 | 32－9492 |
| | 吳 濟 政 | 온정국민학교장 | 노학동 620 | 32－0925 |
| | 尹 東 萬 | 영랑국민학교장 | 영랑동 163－1 | 32－6212 |
| | 崔 五 圭 | 중앙국민학교장 | 영랑동 11/4 | 33－1608 |
| | 李 沅 宰 | 동우전문대교수 | 노학동 244 | 32－6551 |
| 언 론 인 | 金 正 祐 | 전 기자. 농업 | 장사동 2/4 | |
| | 池 一 权 | 전한국일보 기자 | 중앙동 469－15 | 33－5100 |
| | 董 文 星 | 전조선일보기자(유암문화재단) | 동명동 450－22 4/4 | 33－3721 |
| | 崔 龍 文 | 전 서울신문기자(국제방역공사) | 동명 250 | 33－3233 |
| 종 교 인 | 黃 善 勇 | 속초감리교회목사 | 동명동 338 | 33－2534 |
| | 張 命 壽 | 속초장로교회 목사 | 동명동 441－1 | 33－2762 |
| 관 광 업 | 金 兌 泳 | 척산온천장. 평통위원 | 조양동 923 | 33－3620 |
| | 金 亭 東 | 설악케이블카 대표 | 동명동 253－3 5/5 | 33－3576 |
| | 李 章 燮 | (주)정아레저타운상무 | 장사동 24－2 | 32－7711 |
| | 李 成 哲 | (주) 새강원관광 대표 | 금호동 11/4 | 32－6943 |
| 수 산 인 | 安 國 俊 | 정치망협회. | 금호동 1/4 | 33－3687 |
| | 徐 東 石 | 항운노조 | 교동 769－22 | 33－5300 |
| 인 쇄 업 | 金 鵬 海 | 문화인쇄소 대표 | 동명동 450－39 | 33－2021 |
| | 강 수 길 | 관동인쇄소. 양양유도회원 | 교동 664－76 | 33－2384 |
| 극 장 | 李 源 益 | 제일극장대표. 상공회의소장 | 중앙동 468－27 | 33－2462 |
| | 咸 泳 泰 | 전 전국극장연합회지부장·현대슈퍼 | 금호동 473－46 | 33－3456 |
| 상 공 인 | 金 致 龍 | 유일택시 | 금호동 16/2 | 33－3847 |
| | 李 起 榮 | 삼원 전업사 | 동명동 450－181 | 33－2130 |
| | 韓 高 本 | 농업 | 장사동 1/2 | 33－3780 |
| | 高 榮 和 | 영동철물대표 | 영랑동 5/3 | 33－5374 |
| | 鄭 仁 燮 | 우리페인트 | 금호동 479－11 1/3 | 33－2909 |
| | 崔 敬 順 | 황금상회. | 중앙동 496－55 7/4 | 33－3668 |
| | 尹 有 根 | 설악가방 | 중앙동 6/6 | 33－4882 |
| | 金 格 子 | 정화숯불갈비 | 대포동 산 34－1 | 33－4539 |
| 관 계 | 沈 丙 燮 | 전 속초시 사회과장 | 동명동 569－2 | 33－3186 |
| | 李 光 春 | 평통위원 | 교동 627－50 14/4 | 33－3920 |
| | 崔 相 圭 | 속초시 경우회장 | 동명동 7/1 | 32－3593 |
| | 金 容 龜 | 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 동명동 513－52 | 33－3368 |
| | 金 奭 俊 | 전 문화원사무국장 | 조양동 5/1 221호 | 32－9613 |
| | 李 建 錫 | 지방행정동우회장 | 동명동 469－36 | 33－3987 |
| | 文 龍 翼 | 농지개량조합장 | 동명동 450－300 | 33－3589 |
| | 金 普 漢 | 일복문화관장 | 조양동 1398－6 | 33－4042 |

# 편 집 후 기

*제3호를 편집하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고장에서도 문화적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좀더 진하게 우리마을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한다.

*寄稿者를 비롯해, 관심가져주고 협조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 편 집 위 원

주 간 : 池　一　權
위 원 : 李　建　錫
　　金　光　秀
　　崔　龍　文
간 사 : 최　재　도
사 진 : 崔　春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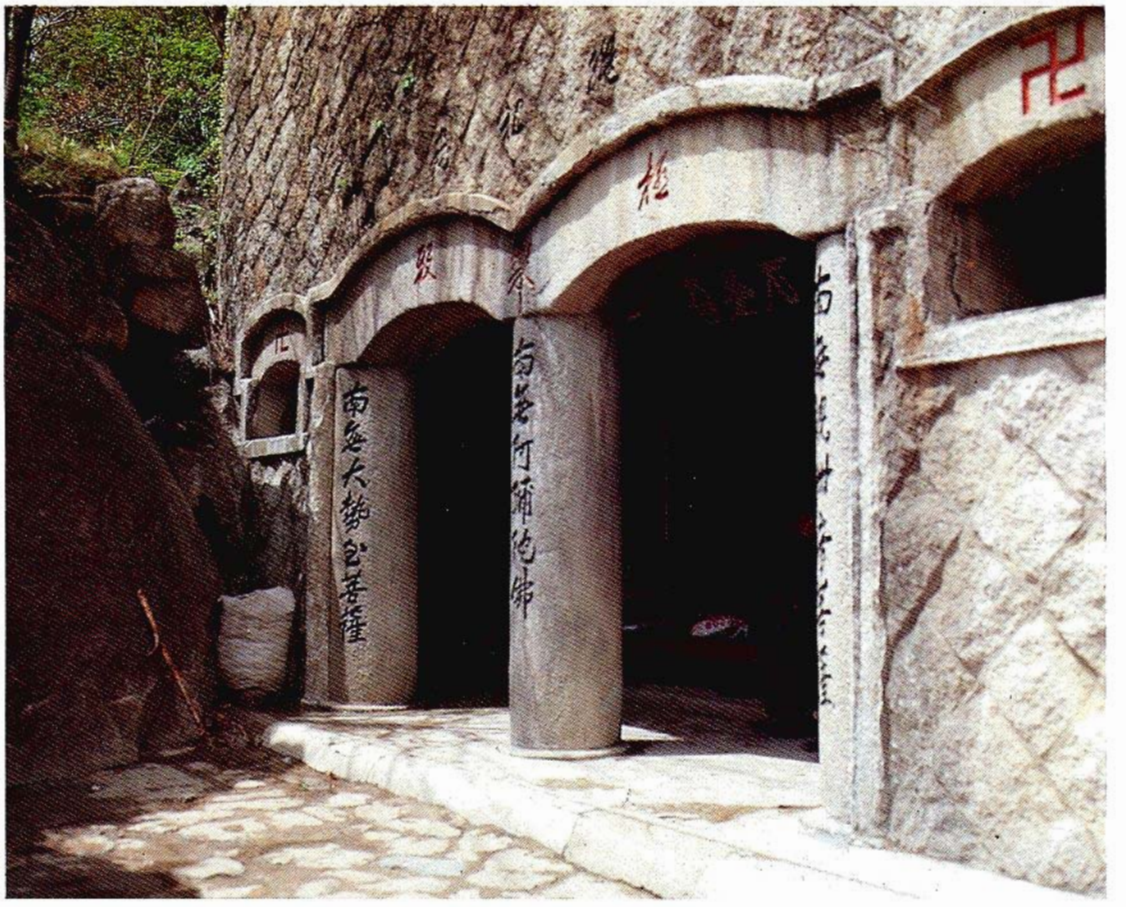
# 東草文化 第三號

〈비 매 품〉

1986. 12. 30 인쇄
1987. 1. 10 발행

발행처 : 東 草 文 化 院
발행인 : 金　容　龜
인쇄처 : 江 原 日 報 社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출판비 보조로 제작됨〉



# 繼祖菴

계조암은 신흥사로부터 북방 2.3km 지점에 있다.

세칭 천후산이라 불리우는 산아래의 石窟안에 위치한 암자이다. 옛날 洞山, 覺智, 鳳頂등 三祖師가 상주하면서 정진수도 하시던 처소요, 의상, 원효, 二祖師가 상계하여 수도하던 도장이라하여 繼祖로 명명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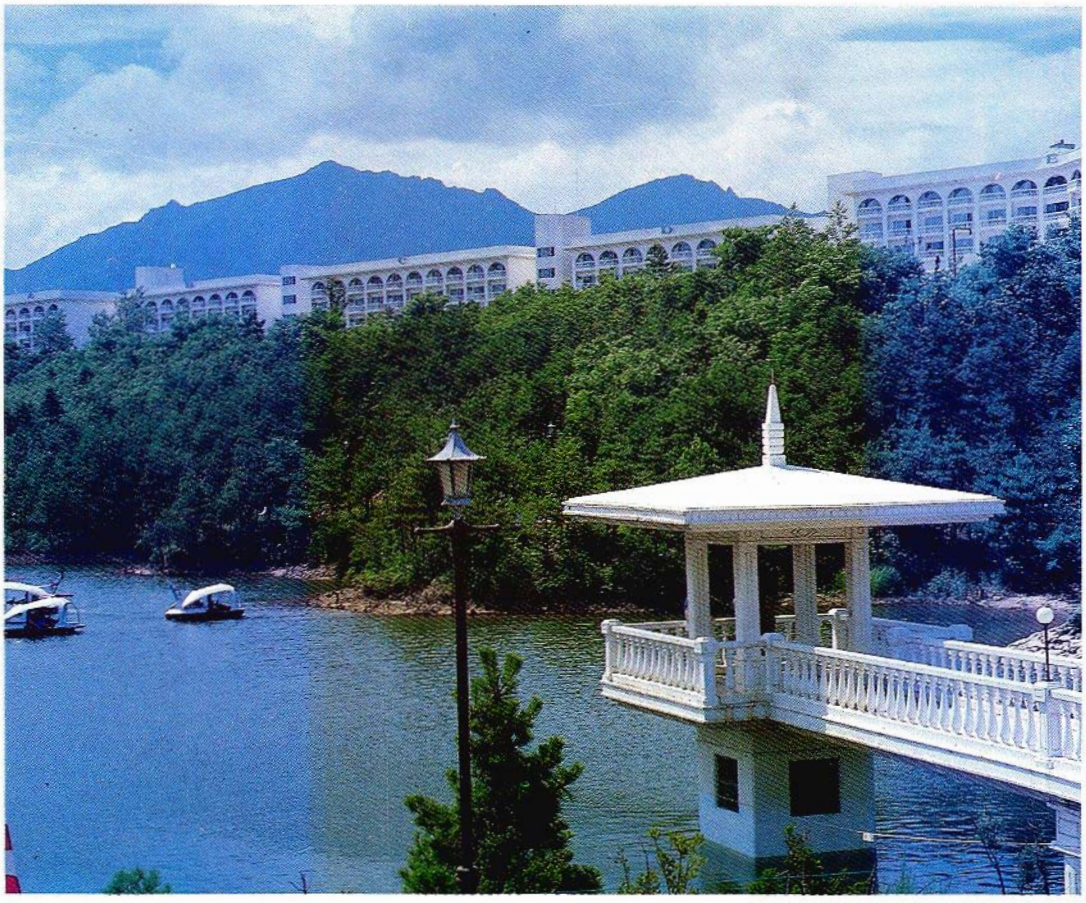
此菴에 봉안한 佛像은 아미타불 이외에 獨聖那畔존자를 모셨는데 응감이 甚靈하여 一切道俗이 성심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한다하여 地方人士, 佛子들의 발길이 그칠사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계조암 門안에는 雙龍岩이 수문의 儀를 이루고 문밖에는 臣人牛石 龍岩石이 있어 青龍白虎를 이룬다. 그 배상에 있는 일명 食堂岩의 牛角石이 그 유명한 흔들바위이고, 청암석아래 甘露藥泉의 맛또한 빼어나기 이를데 없다.

이곳은 세계의 珍域이요, 천하의 絶勝처로서 萬古의 불후를 자랑하는 현세의 극락정토이다.

"자연, 꿈, 낭만이 있는 제2의 가정"

# 설악프라자 페밀리타운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1(우편번호 210-20)
※ **전화번호** : (0392) 32-7711(대) 8611(대)
**FAX번호** : (0392) 32-8011
※ **회 사 명** : (주)설악프라자페밀리타운
＊설악프라자페밀리타운 관리담당 상무이사 李 章 燮



※ **체 인 망**

＊용 인 콘 도 :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리 소재
콘도 : 250실, 골프코스 : 36홀
＊지리산콘도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콘도 : 57실
＊양 평 레 저 : 공사중
＊백 암 콘 도 : 공사중